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67-10

# 국민 삶의 질 2023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 발간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입니다. 사회 발전의 척도로 경제적 성장만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 또한 경제성장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11년「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부터 삶의 질 지표의 측정 결과와 관련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2023』은 2017년 첫 발간 이후 여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이라는 3개 분야의 11개 영역별 지표로 구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에 대한 최근 추세 및 시계열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 추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2023년의 삶의 질 측정 결과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었던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고립감, 여가활동, 자원봉사 참여 등의 지표들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률, 대학졸업자 취업률, 미세먼지 농도, 삶의 만족도 지표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2편의 이슈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삶의 질의 특징을 제시하고,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미있는 원고를 작성해주신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님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권다은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증거 기반 정책을 촉진시키는 자료로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계개발원장 송 준 혁

# CONTENTS

PART 1

## 개요


작성배경 • 8
목적 • 9
삶의 질이란 • 10
프레임워크 • 11
지표 선정 기준 • 12
최근 추세 판정 기준 • 12
지표 관리 절차 • 13
지표 체계 • 14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 15


PART 3

## 이슈분석


01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 128
02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 136


APPENDIX

## 부록


01 지표 정의서 • 148
02 지표 자료출처 • 174


PART 2

## 영역별 측정결과


**01 가족·공동체**

독거노인 비율 • 23
가족관계 만족도 • 24
지역사회 소속감 • 25
사회단체 참여율 • 26
사회적 고립도 • 27

**02 건강**

기대수명 • 31
건강수명 • 32
스트레스 인지율 • 33
주관적 건강상태 • 34
비만율 • 35
자살률 • 36
신체활동 실천율 • 38

**03 교육**

유아교육 취원율 • 41
교육비부담도 • 42
학교교육의 효과 • 43
학교생활 만족도 • 44
대학졸업자 취업률 • 45
고등교육 이수율 • 46

**04 고용·임금**

실업률 • 51
고용률 • 52
월평균 임금 • 54
저임금근로자 비율 • 55
근로시간 • 56
일자리 만족도 • 57

**05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 61
가구중위소득 • 62
소득만족도 • 63
소비생활 만족도 • 64
가구순자산 • 65
가계부채비율 • 66
상대적 빈곤율 • 67

**06 여가**

문화여가 지출률 • 71
여가시간 • 72
여가시간 충분도 • 7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74
1인당 여행일수 • 75
여가생활 만족도 • 76

**07 주거**

자가점유가구 비율 • 79
주택임대료 비율 • 80
1인당 주거면적 • 8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82
통근시간 • 83
주거환경 만족도 • 84

**08 환경**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87
미세먼지 농도($PM_{2.5}$) • 88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90
대기질 만족도 • 91
수질 만족도 • 92
토양환경 만족도 • 93
소음 만족도 • 94
녹지환경 만족도 • 95
기후변화 불안도 • 96

**09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 99
범죄피해율 • 100
야간보행 안전도 • 101
산재사망률 • 102
화재 사망자수 • 103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104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105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106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108

**10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 111
정치적 역량감 • 112
기관신뢰도 • 113
부패인식지수 • 114
시민의식 • 116
자원봉사 참여율 • 117
대인신뢰도 •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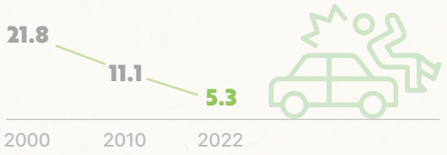
**11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121
긍정정서 • 123
부정정서 •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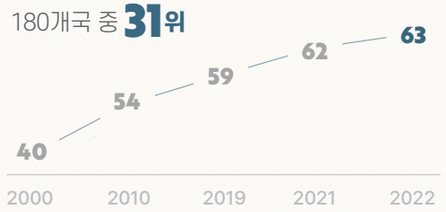
# 국민 삶의 질 핵심지표

##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2년 인구 10만 명 당 **5.3명**으로
전년대비 0.3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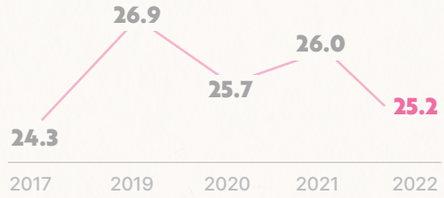



**부패인식지수는**은
2022년 100점 중 **63점**,
180개국 중 **3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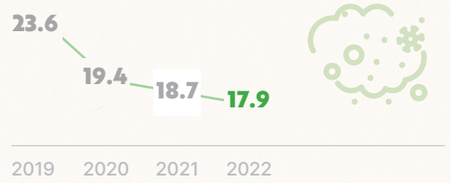



## 최근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

**자살률**은 2017년부터 소폭 증가 추세에서,
2022년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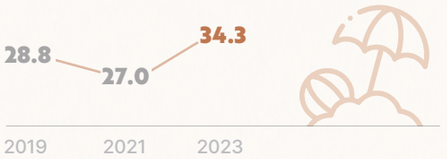



**미세먼지 농도**는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감소,
2022년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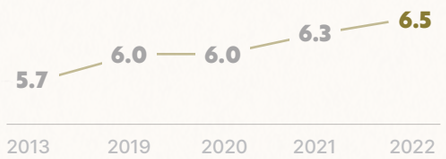



## 코로나19 시기 정체되었으나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1년 27.0%에서 2023년 **34.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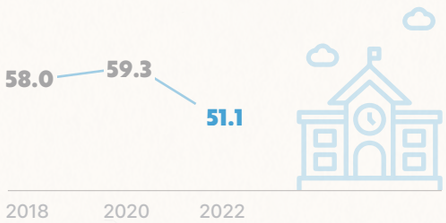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22년 **6.5점**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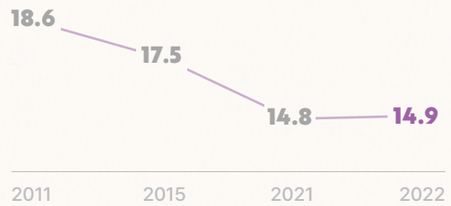



## 최근 악화 추세를 보이는 지표

**학교생활 만족도**는
2020년 59.3%에서
2022년에는 **51.1%**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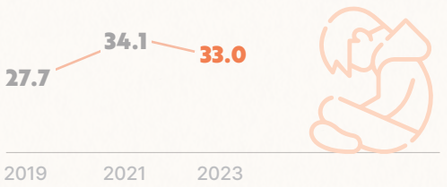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전체 국민의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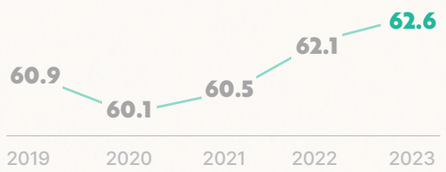



## 코로나19 시기 악화 후 최근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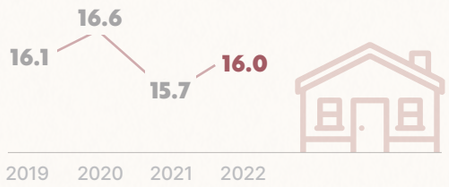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0%**로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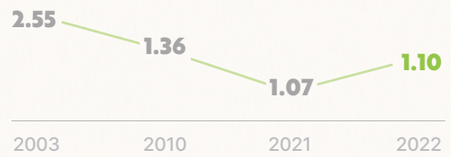

**고용률**은 2020년 감소한 이후
2023년 **62.6%**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




**월가구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2년 **16.0%**로 전년대비 악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인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2022년 **1.1명**으로
전년대비 악화



# PART 1

## 개요


01 작성배경

02 목적

03 '삶의 질' 이란?

04 프레임워크

05 지표선정 기준

06 최근 추세 판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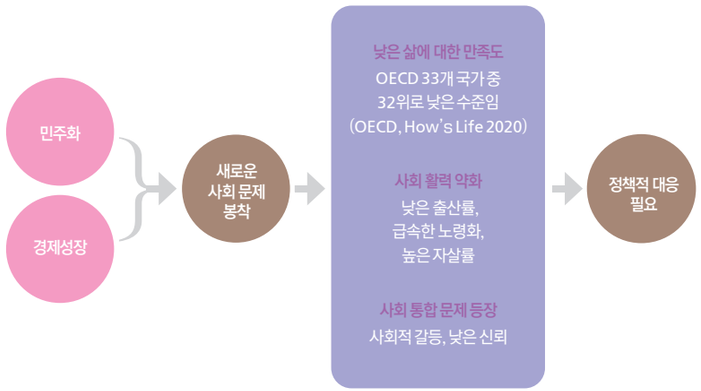
07 지표관리절차

08 지표체계

09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 01 작성 배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인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먼저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이념적 갈등, 세대간 갈등,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 중심의 GDP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국제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발전의 측정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OECD는 2004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과로 "How's Life?"를 2011년에 발간하여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비교 통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 and Beyond"에 대한 논의를 2009년에 출발하여 EU 2020년 정책전략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단위 차원에서도 다양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02 목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작성연혁

| | |
|---|---|
| 2011년 | **외부 공동연구를 통한 삶의 질 기본틀 및 지표체계 개발**<br>•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연구<br>• 9개 영역, 84개 지표 |
| 2012년 ~2013년 | **미생산 신규지표 개발**<br>**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 및 지표변경**<br>• 12개 영역, 83개 지표(삭제 9개, 신규 8개, 변경 6개)<br>• 기존의 물질적 조건 영역을 4개(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사회복지, 주거)로 분류 |
| 2014년 | **홈페이지 구축(qol.kostat.go.kr) 및 서비스 실시**<br>**내외부 전문가의 지표체계 검토**<br>•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2개, 변경 13개)<br>**지표검토위원회 구성** |
| 2015년 |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환경영역 중분류 변경)**<br>•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1개, 신규 1개, 변경 7개 ) |
| 2016년 |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br>• 12개 영역, 80개 지표(삭제 1개, 변경 3개) |
| 2017년 | **「국민 삶의 질 2017」 보고서 작성**<br>**국민의견 수렴 : NAVER 지식iN과 국민생각함 활용** |
| 2018년 | **지표체계 개편**<br>• 11개 영역, 71개 지표(사회복지 영역 삭제, 삭제 17개, 신규 8개, 변경 8개) |
| 2019년 | **아동청소년 및 고령자 삶의 질 지표구축 기반 마련**<br>**「국민 삶의 질 2019」 보고서 발간(매년 온라인 발간 )** |
| 2020년 |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국민의견 수렴(중요영역, 핵심지표)**<br>**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br>• 11개 영역, 71개 지표(4개 지표의 출처 및 산식 변경)<br>• 영역별 핵심지표 선정 |
| 2021년 |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추세 분석** |
| 2022년 |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
| 2023년 |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용역** |

• OECD의 How's Life는 2011년 보고서 발간 이후 2019년에 지표개편을 하였으며(24개→43개), 개편은 불평등 측면의 지표 보완, 헤드라인 지표 구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 03
## '삶의 질'이란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측정내용에 따라 삶의 질, 복지, 웰빙,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 다양한 유사 개념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다만 삶의 질, 복지, 웰빙 개념은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웰빙, 만족도, 행복 개념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04
## 프레임워크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영역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된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별 목표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차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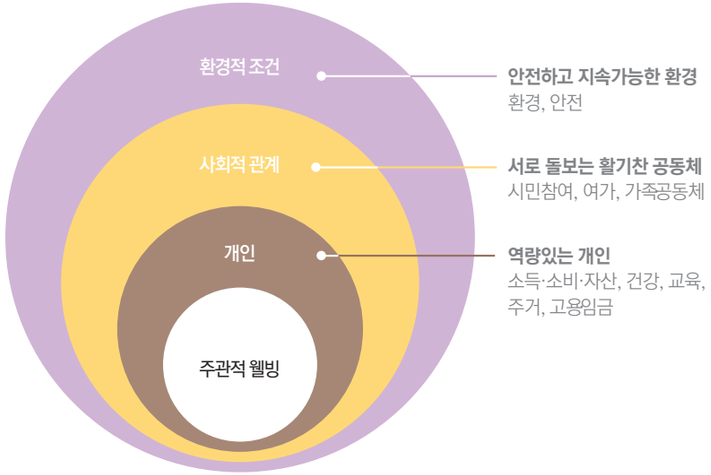
'역량있는 개인'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사회적 관계 차원의 목표**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로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환경적 조건 차원의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 05
## 지표 선정 기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는 크게 적절성, 자료의 질,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 지표 선정 기준

**적절성**

- **액면타당도**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 **산출에 초점**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
- **이해용이성**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가능한 지표
- **정책반응성**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
- **국내 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지표

**자료의 질**

- **공식통계**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통계
- **포괄범위**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 **시계열 확보** 동일척도로 반복적인 측정자료가 누적

**중립성**

-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표

## 06
## 최근 추세 판정 기준

- 1년주기 자료의 경우는 전년도 자료와 비교, 2년 주기 이상인 경우는 최근 측정값 이전의 자료와 비교

**지표의 작성주기**

1년주기: 45개

2년주기: 23개

3~5년주기: 3개

71개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최근 자료의 추세를 기준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지표별로 생산주기와 지표방향이 다르므로, 최근 측정값을 전기대비 측정값과 비교하여 각 지표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향에 따라 '개선', '악화', '동일' 세 개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 '개선'으로 판정된다. 반면, '실업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의 증가가 삶의 질의 개선이 아니므로, '악화'로 표시된다. 즉 지표 측정값의 전기대비 변화가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로 판정된다.

### 추세표시

| | | |
|---|---|---|
| 😊 | **개선** |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
| 😐 | **동일** |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 동일 $X_t - X_{t-1} = 0$ |
| ☹ | **악화** |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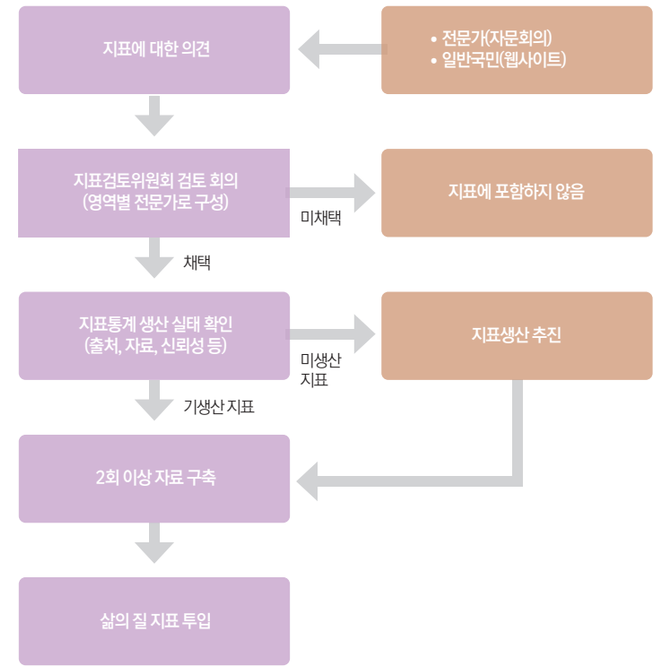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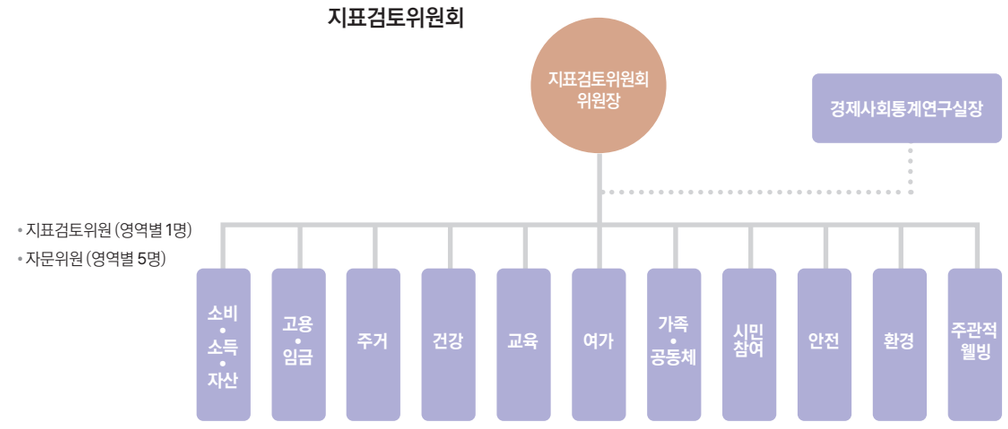
## 07
## 지표 관리 절차

개별 지표들은 최종 확정된 결과물이 아니며, 사회변화와 통계자료의 생산 현황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표에 대한 검토 및 평가과정을 통해 지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11개 영역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표 관리 절차




### 지표검토위원회



## 08 지표 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42개(59.2%), 주관적 지표는 29개(40.8%)이다. 각 지표는 지표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긍정방향 지표(+)와 부정방향 지표(-)로 구분된다.

| 영역 | 객관적 지표(42) | 주관적 지표(29) |
|---|---|---|
| 가족·공동체 | ⊖ 독거노인 비율<br>⊖ 사회적 고립도*<br>⊕ 사회단체 참여율 | ⊕ 가족관계 만족도<br>⊕ 지역사회 소속감 |
| 건강 | ⊕ 기대수명*<br>⊕ 건강수명<br>⊕ 신체활동 실천율<br>⊖ 비만율<br>⊖ 자살률* | ⊕ 주관적 건강상태<br>⊖ 스트레스 인지율 |
| 교육 | ⊕ 유아교육 취원율<br>⊕ 고등교육 이수율<br>⊕ 대학졸업자 취업률 | ⊕ 학교교육의 효과<br>⊕ 학교생활 만족도*<br>⊖ 교육비 부담도 |
| 고용·임금 | ⊕ 고용률*<br>⊖ 실업률*<br>⊕ 월평균 임금<br>⊖ 근로시간<br>⊖ 저임금근로자 비율 | ⊕ 일자리 만족도 |
| 소득·소비·자산 | ⊕ 1인당 국민총소득*<br>⊕ 가구중위소득<br>⊕ 가구순자산<br>⊖ 가계부채비율<br>⊖ 상대적 빈곤율* | ⊕ 소득만족도<br>⊕ 소비생활 만족도 |
| 여가 | ⊕ 여가시간*<br>⊕ 1인당 여행일수<br>⊕ 문화여가 지출률<br>⊕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 여가생활 만족도*<br>⊕ 여가시간 충분도 |
| 주거 | ⊕ 1인당 주거면적<br>⊖ 통근시간<br>⊖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br>⊖ 주택임대료 비율*<br>⊕ 자가점유가구 비율 | ⊕ 주거환경 만족도 |
| 환경 | ⊖ 미세먼지 농도($PM_{2.5}$)*<br>⊕ 1인당 도시공원 면적<br>⊕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 기후변화 불안도<br>⊕ 대기질 만족도<br>⊕ 수질 만족도*<br>⊕ 토양환경 만족도<br>⊕ 소음 만족도<br>⊕ 녹지환경 만족도 |
| 안전 | ⊖ 가해에 의한 사망률<br>⊖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br>⊖ 범죄피해율<br>⊖ 아동안전사고 사망률<br>⊖ 산재사망률*<br>⊖ 화재사망자수<br>⊖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야간보행 안전도*<br>⊕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 시민참여 | ⊕ 선거투표율<br>⊕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 정치적 역량감<br>⊕ 시민의식<br>⊕ 부패인식지수*<br>⊕ 대인신뢰도<br>⊕ 기관신뢰도 |
| 주관적 웰빙 | - | ⊕ 삶의 만족도*<br>⊕ 긍정정서<br>⊖ 부정정서 |

*표시된 지표는 영역별 핵심지표임

## 09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 **지표의 작성연도(2023년 12월 말 기준)**
  **2023년 11개**
  **2022년 57개**
  **2020년 2개**
  **2019년 1개**
  (지표 시의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공표된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2023년 수치를 반영하였음)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중장기적인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월간이나 분기별로 나타나는 최근 동향이 아닌 연간자료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다양한 출처에서 작성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 업데이트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 작성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바로 공표되는 지표가 있는 반면(예, 사회조사는 5월에 조사하여 그해 11월 공표), 2~3년 이후에 공표되는 지표도 있다(예, 범죄피해실태조사는 조사 후 2년 뒤 공표). 이에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지표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12월 말에 업데이트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3년 1년 동안 통계가 공표되어 업데이트된 지표는 71개 중 52개이다. 2년 이상의 주기 지표 중 19개 지표는

**신규 업데이트 된 지표의 연도별 현황**

| | 계 | 개선 | 악화 | 동일 |
|---|---|---|---|---|
| 2022 | 41 | 27 | 13 | 1 |
| 2023 | 11 | 9 | 2 | |
| **전체** | **52** | **36** | **15** | **1** |

2023년에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작년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지표별로 공표시점이 달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3년 통계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71개 지표 중 11개(15.5%)에 불과하며, 2022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57개(80.3%)로 대부분이 2022년 자료이다.

2023년에 업데이트한 52개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기대비 개선으로 나타난 지표는 36개이고, 악화로 나타난 지표는 15개, 전기대비 동일한 지표는 1개이다. 지표별 작성연도의 차이로 인해 52개 지표 중 2023년 통계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11개, 2022년 통계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41개로 대부분이 2022년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은 코로나19의 변화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던 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지표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을 거치며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고립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1인당 여행일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등의 지표가 최근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2020년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를 지나며 큰 폭으로 개선된 지표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률, 대졸자 취업률은 2020년 감소하였지만 2021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에는 기존 추세보다도 더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생활 만족도를 비롯하여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표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악화 또는 정체를 보였으나 최근 2019년보다 개선되었다.

2023년 업데이트 된 지표 중 특히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지표를 보면,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의 지표였으나 2022년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순자산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와 최근 주택가격의 변화가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지표는 매년 큰 폭으로 악화 추세를 보이는 지표로 2021년에는 기존 추세보다 더 급격한 악화를 보였으나 2022년에 크게 개선되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역별로 보면 주관적 웰빙은 악화된 지표가 없으며, 가족·공동체, 교육, 고용·임금, 주거, 환경 영역에서는 영역별로 1개 지표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다른 영역에 비해 개선 지표 비율이 낮은 영역은 소득·소비·자산, 안전, 시민참여 영역이다. 코로나19 시기 악화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여가 영역에서 2022년에 개선 지표가 많아졌다.



**전체지표 최근 추세(2023년 12월 말 기준)** ☺ 개선 51개, ☹ 악화 19개, ☺ 동일 1개

**01. 가족·공동체**
- ☹ 독거노인 비율
- ☺ 가족관계 만족도*
- ☺ 지역사회 소속감
- ☺ 사회단체 참여율
- ☺ 사회적 고립도

**02. 건강**
- ☹ 기대수명
- ☺ 건강수명*
- ☺ 스트레스 인지율*
- ☺ 주관적 건강상태*
- ☹ 비만율
- ☺ 신체활동 실천율*
- ☺ 자살률

**03. 교육**
- ☺ 유아교육 취원율
- ☺ 교육비부담도*
- ☺ 학교교육의 효과*
- ☹ 학교생활 만족도*
- ☺ 고등교육 이수율
- ☺ 대학졸업자 취업률

**04. 고용·임금**
- ☺ 고용률
- ☺ 실업률
- ☺ 월평균 임금
- ☹ 저임금근로자 비율
- ☺ 근로시간
- ☺ 일자리 만족도

**05. 소득·소비·자산**
- ☹ 1인당 국민총소득
- ☺ 가구중위소득
- ☺ 소득만족도
- ☺ 소비생활 만족도
- ☹ 가구순자산
- ☺ 가계부채비율
- ☹ 상대적 빈곤율

**06. 여가**
- ☺ 문화여가 지출률
- ☹ 여가시간
- ☺ 여가시간 충분도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 1인당 여행일수
- ☺ 여가생활 만족도

**07. 주거**
- ☺ 자가점유가구 비율
- ☹ 주택임대료 비율
- ☺ 1인당 주거면적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통근시간*
- ☺ 주거환경 만족도

**08. 환경**
- ☺ 미세먼지 농도($PM_{2.5}$)
-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 대기질 만족도*
- ☺ 수질 만족도*
- ☺ 토양환경 만족도*
- ☺ 소음 만족도*
- ☺ 녹지환경 만족도*
- ☹ 기후변화 불안도*

**09. 안전**
- ☺ 가해에 의한 사망률
- ☹ 범죄피해율*
- ☺ 야간보행 안전도*
- ☹ 산재사망률
- ☹ 화재 사망자수
-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10. 시민참여**
- ☹ 선거투표율*
- ☹ 정치적 역량감
- ☺ 부패인식지수
- ☹ 기관신뢰도
- ☺ 시민의식
- ☺ 자원봉사 참여율
- ☹ 대인신뢰도

**11. 주관적 웰빙**
- ☺ 삶의 만족도
- ☺ 긍정정서
- ☺ 부정정서

주 ① 2023년 12월 말 기준에서 작성된 자료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공표된 고용률, 실업률은 2023년값이 반영되어 있음.
② *표시된 지표는 2023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2022년 12월 기준과 동일
③ 개별 지표별 지표값 및 관련자료는 지표누리 홈페이지(index.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PART 2

## 영역별 측정 결과


01 가족 · 공동체
02 건강
03 교육
04 고용 · 임금
05 소득 · 소비 · 자산
06 여가
07 주거
08 환경
09 안전
10 시민참여
11 주관적 웰빙

# 01

# 가족·공동체

Family·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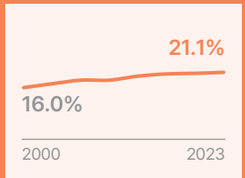
## 가족·공동체란?

가족과 공동체는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가족과 공동체는 공통적으로 구성원들 간 관계에 기초하여 돌봄 서비스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 등의 기회들을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재생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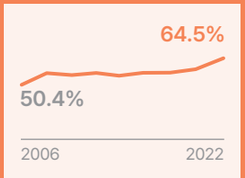
## 최근 추세

가족.공동체 영역의 5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지표 4개, 악화지표 1개이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악화 지표는 독거노인 비율로 소폭이지만 악화되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상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되면서 2019년 대비 2021년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에는 소폭 개선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참여율도 2020년 악화 이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기 대비 개선으로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관계를 보여주는 지역사회 소속감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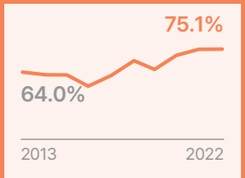
**독거노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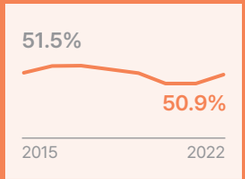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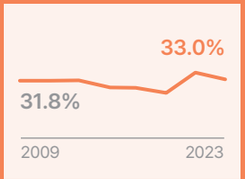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 독거노인 비율

Live-alone elderly rate

**지표 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65세 이상 1인가구수 ÷ 65세 이상 인구)×100

### 2023년 21.1%, 전년보다 0.2%p 증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 관련 정책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책적 관심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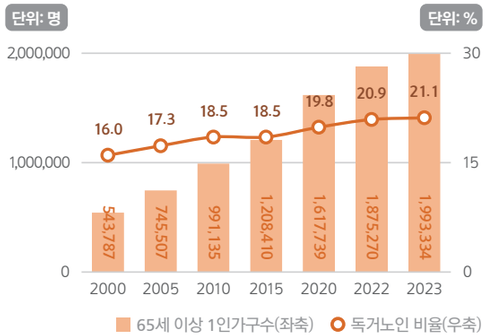
노인인구 중 특히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에 비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노인에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 중 하나이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인 측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특히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다.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의 수는 2023년 199만 3천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1.1%이다.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05년 17.3%, 2010년 18.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이후 정체되었으나 2015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39만 4천 명에서 2023년 943만 5천 명으로 2.8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독거노인 수는 2000년 54만 3천 명에서 2023년 199만 3천 명으로 3.7배 가량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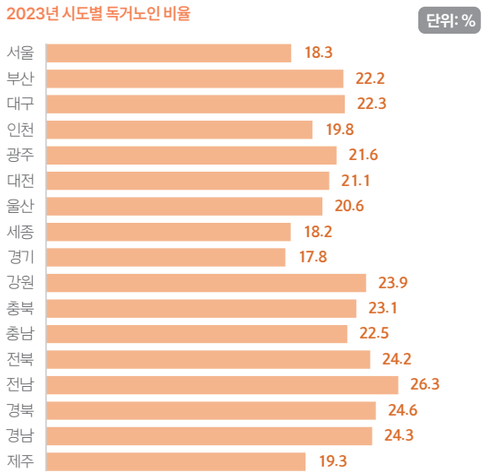
17개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전남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은 26.3%로 가장 높다. 반면, 경기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은 17.8%로 가장 낮으며, 세종(18.2%), 서울(18.3%), 제주(19.3%) 순으로 낮은 편이다.

**2000~2023년 독거노인 비율**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2023년 시도별 독거노인 비율**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시도,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시도, 2020년 기준)」

# 가족관계 만족도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지표 정의** 자신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64.5%, 2020년보다 5.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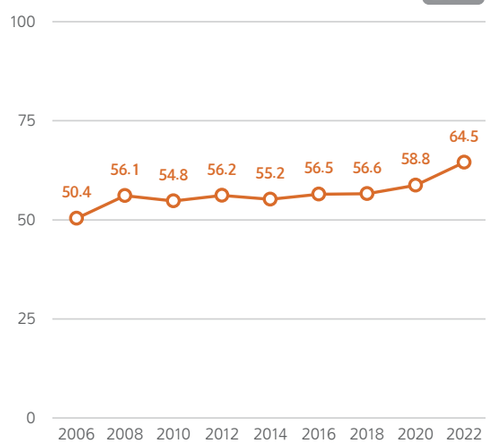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귀속감과 유대, 친밀감의 원천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망한다.

가족은 성별 및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집단이라는 특성상 잠재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가족은 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에서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낸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50.4%에서 2008년 56.1%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56.6%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58.8%, 2022년에는 64.5%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다. 2022년 기준 남녀의 만족도는 각각 65.5%와 63.5%로 남자가 2.0%p 더 높으며, 2006년 이후 비슷한 추세이다. 연령대별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13~19세의 80.7%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0~59세는 58.7%, 60세 이상에서는 54.6%만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를 보여준다. 13~19세의 만족도는 2012년 68.0%에서 매년 2%p 가량 증가하였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2018년까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2~4%p 정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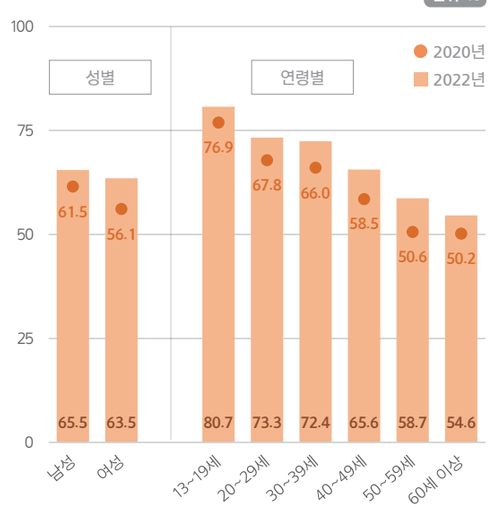
2006~2022년 가족관계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성·연령별 가족관계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지역사회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지표 정의** 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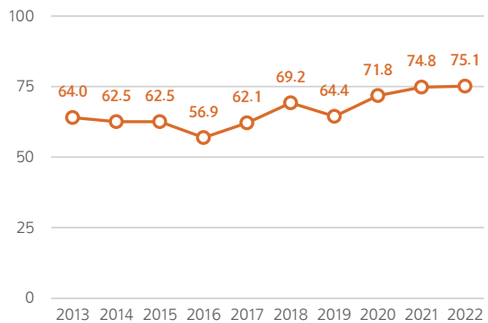
## 2022년 75.1%, 전년대비 0.3%p 증가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들 중 일부는 공동체나 지역사회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결속과 연대가 유지되면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결속과 유대가 약하면 소속감도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의 결속과 유대는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최근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시도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2022년 75.1%로 2021년 74.8%보다 0.3%p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소속감은 2013년 64.0%에서 2014년 62.5%, 2016년 56.9%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의 경우 66~67% 정도로 지역사회 소속감이 낮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60세 이상에서는 82.9%로 높다.

지역사회의 범위에 따라 소속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시도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75.1%인 반면, 시군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74.4%, 읍면동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71.8%로 지역사회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소속감이 낮아진다. 이러한 특징은 거주하는 지역(도시-동부, 농어촌-읍면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도시 지역 거주자는 시도 지역 소속감이 74.6%, 읍면동 지역 소속감은 70.3%로,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보다는 시도에 소속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시도 지역 소속감(77.7%)보다 읍면동 지역 소속감(80.0%)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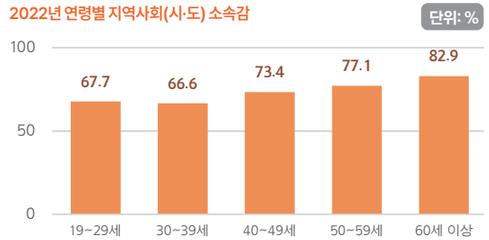
2013~2022년 지역사회(시·도) 소속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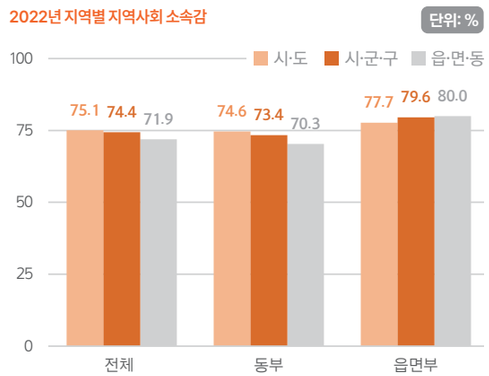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2년 연령별 지역사회(시·도) 소속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년 지역별 지역사회 소속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각각에 대한 소속감임.

# 사회단체 참여율

Social group participation rate

**지표 정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9개 사회단체* 중 하나라도 '소속되어 가끔 활동(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음)' 또는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

*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모임, 자원봉사·기부단체, 동창회·향우회, 사회적 경제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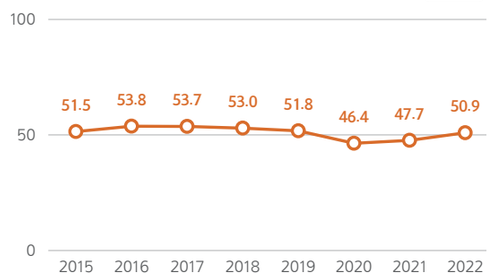
## 2022년 50.9%, 전년대비 3.2%p 증가

사회단체 참여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정도로 최근 공동체적 삶의 기초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공동체 발전의 기초로 보고 있다.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와 참여하는 단체의 유형은 전반적인 참여의 수준과 특성을 보여준다.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모임, 자원봉사·기부단체, 동창회·향우회, 사회적 경제조직의 9개 단체를 포함하는 사회단체 참여율은 9개 중 하나의 단체라도 소속되어서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된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2015년 51.5%에서 2016년 53.8%로 증가한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46.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21년 47.7%, 2022년에는 50.9%로 전년대비 3.2%p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아직 낮은 편이나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사회단체 참여율은 남자가 54.4%로 여자(47.4%)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8.3%로 가장 높고, 19~29세와 60세 이상에서 46%대로 낮은 편이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30~50대에서 증가폭이 크며, 특히 50대는 2021년 48.4%에서 2022년 58.3%로 10%p 가까이 증가하였다. 사회단체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는 동창회(33.8%), 동호회(19.8%), 종교단체(15.6%) 등 개인들이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인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단체, 정당의 2022년 참여율은 3%대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사회단체 참여는 일부 활동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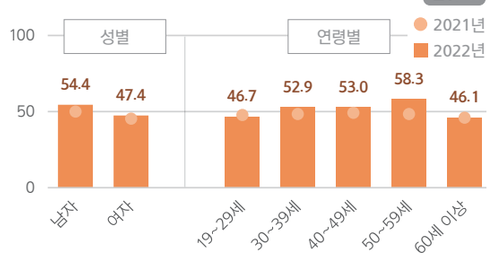
**2015~2022년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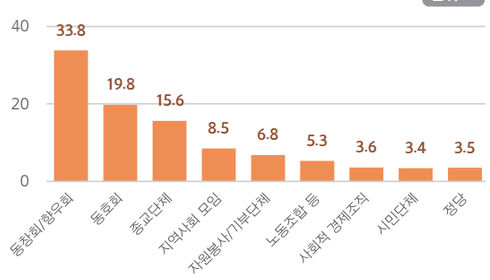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1년, 2022년 성·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2년 사회단체별 참여율**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① 각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의 비율임.
②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사회적 고립도

Social isolation

**지표 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 2023년 33.0%로 2021년보다 1.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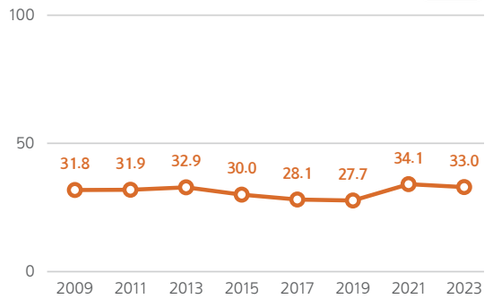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개인으로는 삶의 질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질과도 관련된다.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또는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0%로 2021년 34.1%에 비해 1.1%p 감소하였다.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32.9%에서 소폭이지만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소되고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2021년에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3년에 소폭으로 다시 감소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사회적 고립도는 35.2%로 여자(31.0%)보다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에서 사회적 고립도가 높다. 19~29세의 사회적 고립도는 24.5%, 30~39세는 27.5%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40.7%로 높아진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나 '이야기가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26.0%, 20.2%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은 26.9%로, 다른 연령대가 14~20%의 비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보면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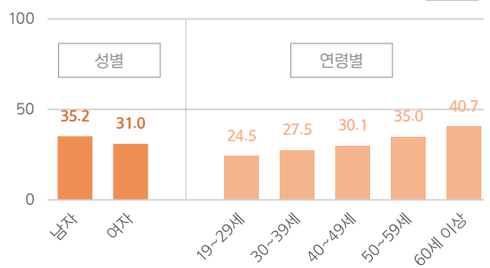
**2009~2023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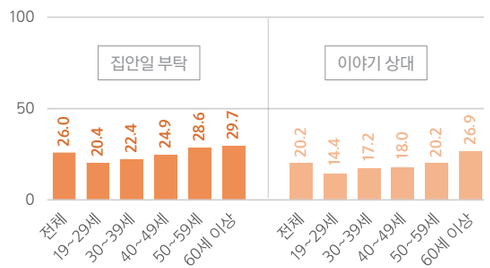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3년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3년 세부항목·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각 항목에 대해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 02

# 건강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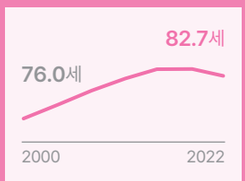
## 건강이란?

건강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삶의 양 혹은 길이)와 더불어 얼마나 잘 사는가(삶의 질)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좋은 건강 상태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 사회적 수준에서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건강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 영역은 개인들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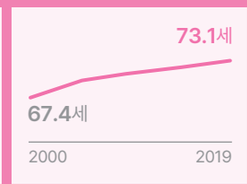
## 최근 추세

건강 영역에 포함되는 7개 지표 중 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는 2개이다. 악화로 나타난 지표는 기대수명과 비만율로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를 보인 지표였으나, 2022년 소폭 감소하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2020년의 급격한 증가 이후 2021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다시 증가하여 악화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함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모두 전기대비 개선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악화 추세를 보였던 자살률도 2022년에는 감소하여 개선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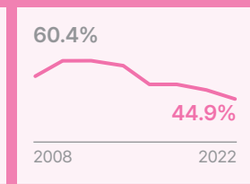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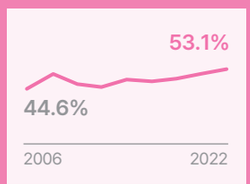

건강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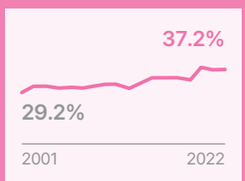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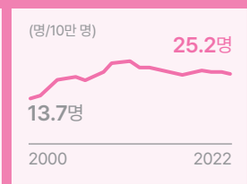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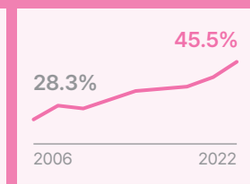

비만율




자살률




신체활동 실천율




#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지표 정의**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측정 방법** 0세의 기대여명

### 2022년 82.7세, 전년대비 0.9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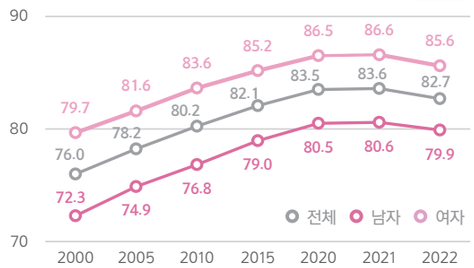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고, 사망은 인구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사망이 낮아지면 인구의 수명이 늘어난다.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은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20년 이상 늘어났다. 2000년 76.0세에서 2005년 78.2세, 2010년 80.2세로 증가하여 2000년 이후로는 매년 0.2~0.6세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 83.6세에서 2022년 82.7세로 전년보다 0.9세 감소하여,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감소는 2022년에 급격히 증가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영향이 크다.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어서 2022년 여자의 기대수명은 85.6세로 남자(79.9세)에 비해 5.7년이 길다. 이러한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2000년 7.4년에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대수명은 국가간 건강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을 전후로 80세까지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였으나 2022년 소폭 감소하며, 작년(3위)에 비해 순위(9위)가 하락하였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시기 기대수명이 감소하였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22년 82.7세로 지난 22년간 6.7세 증가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큰 증가폭을 보인다.

2000~2022년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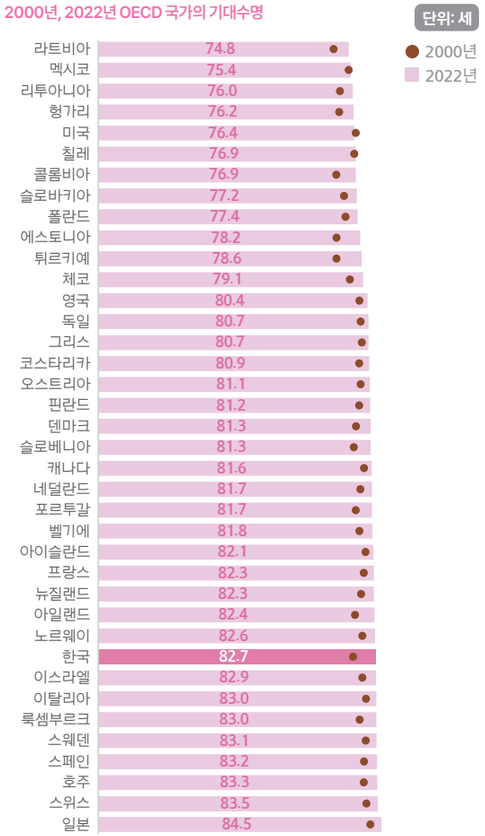
단위: 세




출처 통계청, 「생명표」

2000년, 2022년 OECD 국가의 기대수명

단위: 세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2023년 12월 인출)

주 ① 2000년 값 중 라트비아는 2002년 자료임.

② 2022년 자료 중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은 2021년, 영국은 2020년, 튀르키예는 2019년 값임.

#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지표 정의**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측정 방법**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기간

## 2019년 73.1세, 2015년 대비 1.1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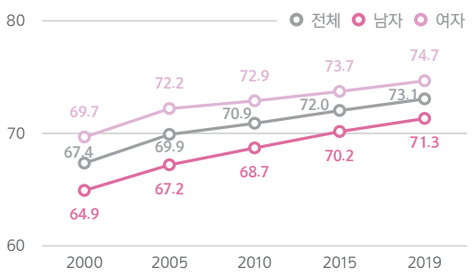
기대수명이 양적인 측면에서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건강수명은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오래 살고 있지만, 고령에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다. 단순히 기대수명이 증가했다고 그 사회의 건강수준이 좋아졌다 말할 수 없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을 말하는 것으로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보여준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건강수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7.4세에서 2019년 73.1세로 5.7세 늘어났다. 건강수명의 연장은 한국인의 건강수준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대수명이 같은 기간 7.4세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정도가 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2019년 남자는 71.3세, 여자는 74.7세로 여자가 3.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나 2000년(4.8년) 이후 성별 격차는 감소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2019년 OECD 37개국 평균 건강수명은 70.3세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일본이 74.1세로 길고, 그 다음으로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 스페인 순으로 건강수명이 길다.

2000~2019년 건강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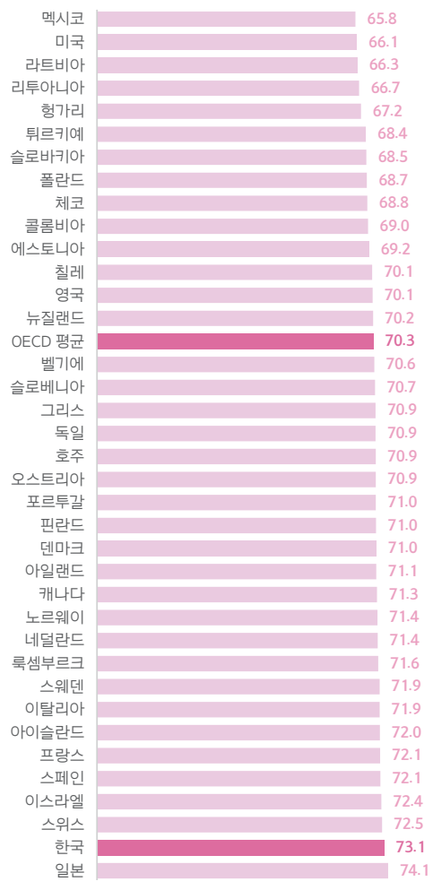
단위: 세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2022년 12월 인출)

2019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단위: 세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2022년 12월 인출)



# 스트레스 인지율

Stress self-recognition

**지표 정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낀 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많이 느꼈다' 또는 '느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44.9%, 2020년보다 5.6%p 감소

개인들의 건강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측정되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잦은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건강과도 연관될 수 있어 개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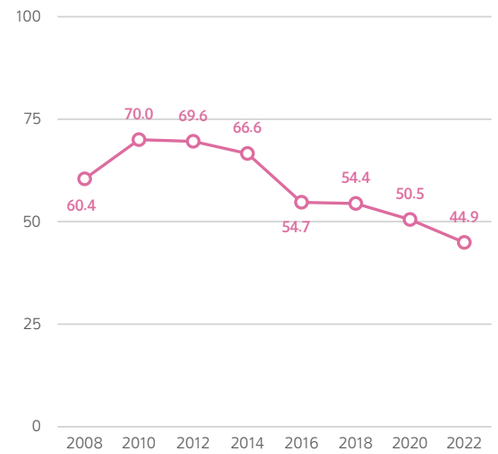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는 비율로 측정되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2년 44.9%로 2020년 50.5%보다 5.6%p 감소하였다. 2008년 60.4%에서 2010년 70.0%로 증가한 이후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특히 2014년 66.6%에서 2016년 54.7%로 크게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42.3%, 여자 47.6%로 여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 2010년에는 남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았으나 이후로는 여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낮아지거나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 이후 비슷한 추세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적으로 4%p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2020년에 비해 7.3%p 감소하였다. 다만 13~19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5%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가장 낮으나, 2020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동안 병행해오던 원격수업이 2022년에 전면 등교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일상에서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8~2022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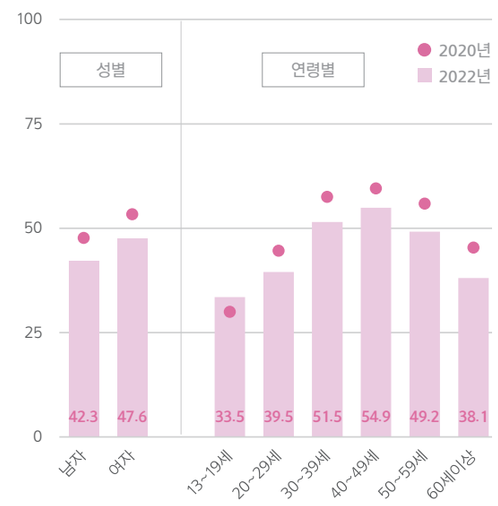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성·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주관적 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지표 정의**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53.1%, 2020년보다 2.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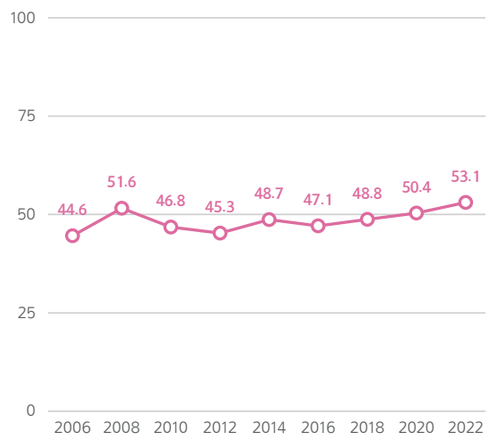
건강상태는 전통적으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의학적 진단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인이 고혈압으로 투약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한다면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파악한 주관적 건강상태, 즉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2년 현재 53.1%로 2020년 50.4%에 비해 2.7%p 증가하였다. 2006년 44.6%에서 2008년 51.6%로 증가한 이후 2012년 45.3%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 추세이다.

성별로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자는 56.4%, 여자는 49.8%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 10대의 경우 80.2%가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1.5%만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2020년과 비교해볼 때 13~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증가하였다.

2006~2022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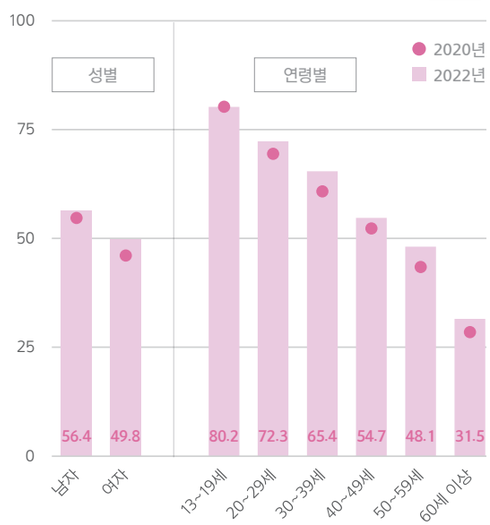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성·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비만율

Obesity rate

**지표 정의**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조사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²' 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 2022년 37.2%, 전년대비 0.1%p 증가

비만은 만성질환 발생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 섭취, 신체활동의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비만은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 달리 경제발전과 생활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다. 특히 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의 관계가 높아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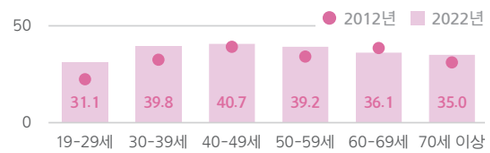
비만율은 2001년 29.2%에서 2005년 31.3%로 증가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5년 이후 33~34%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0년 38.3%로 2019년보다 4.5%p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나 운동시설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재택근무나 원격학습 등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2021년 37.1%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 37.2%로 다시 증가하여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47.7%, 여자가 25.7%로 남자의 비만율이 22.0%p 높다. 남자의 비만율은 2001년 31.8%에서 증가 추세인 반면, 여자의 비만율은 2001년 27.4%에서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24~28%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비만율은 2022년 19~29세가 31.1%로 낮은 편이며, 30~59세에서 39~40%로 높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30대 이하에서 증가폭이 크고, 60대의 경우 2012년에 비해 비만율이 감소하였으며, 40대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2012년, 2022년 연령별 비만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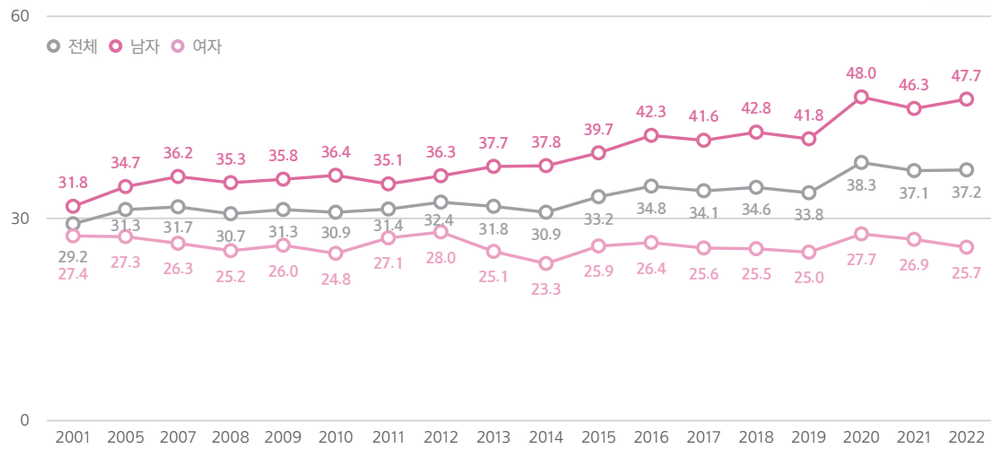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2005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2001~2022년 비만율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 자살률

Suicide rate

**지표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측정 방법**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2년 10만 명당 25.2명, 전년대비 0.8명 감소

모든 자살이 삶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은 서로 관계가 있다.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다. 또한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며,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이 증가했을 때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전체 자살자수는 12,90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0.8명이 감소하였다. 자살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3.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24.8명으로 5년간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31.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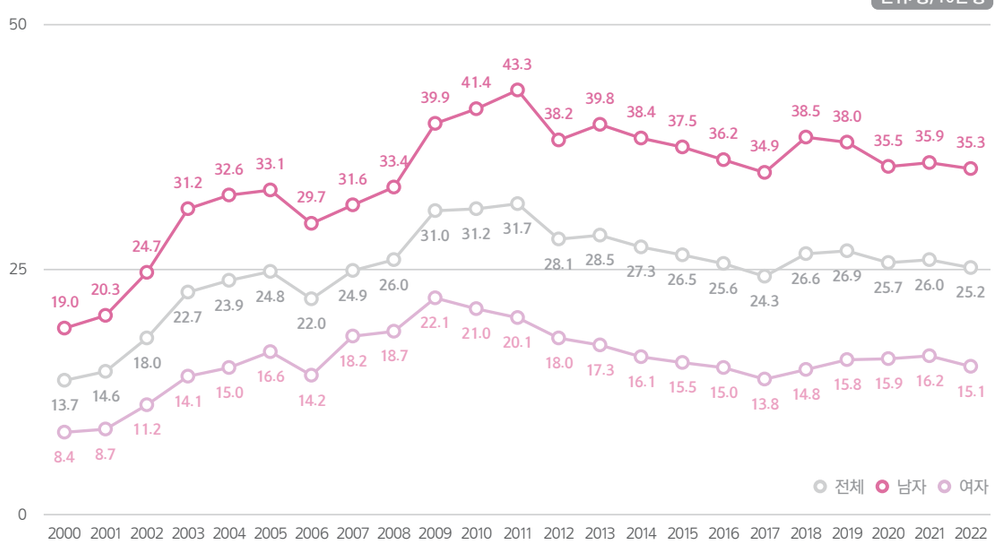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5.3명으로 여자(15.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남녀 모두 2021년보다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특히 7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40~60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이내인 반면, 70대는 37.8명, 80세 이상에서는 60.6명으로 높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는 10대와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의 자살률은 감소했으며, 특히 70~79세는 2021년 41.8명에서 2022년 37.8명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성 및 연령별 자살률을 비교해보면, 2022년 남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며, 월등히 높은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40~60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여자의 경우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20~40대에서 자살률이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남자와 차이를 보인다. 모든 연령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자살률이 낮지만, 10~19세의 경우 남자 7.6명, 여자 6.7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아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리투아니아가 18.5명으로 높다. 일본의 자살률은 15.4명으로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감소 추세이며, 2000년에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인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5명 미만의 자살률을 보인다.

2000~2022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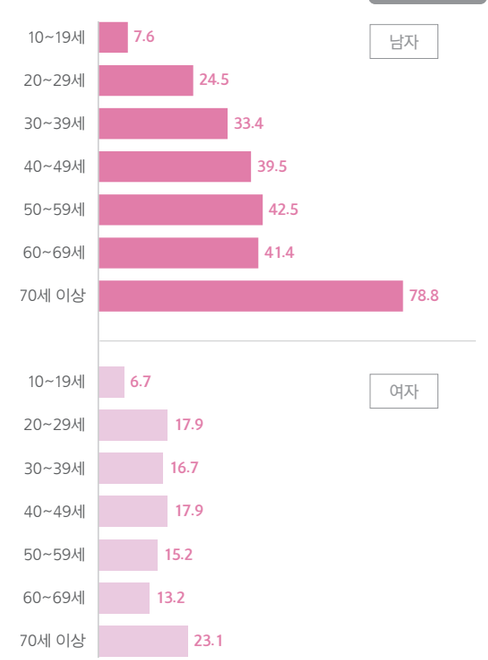
단위: 명/10만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2년 성·연령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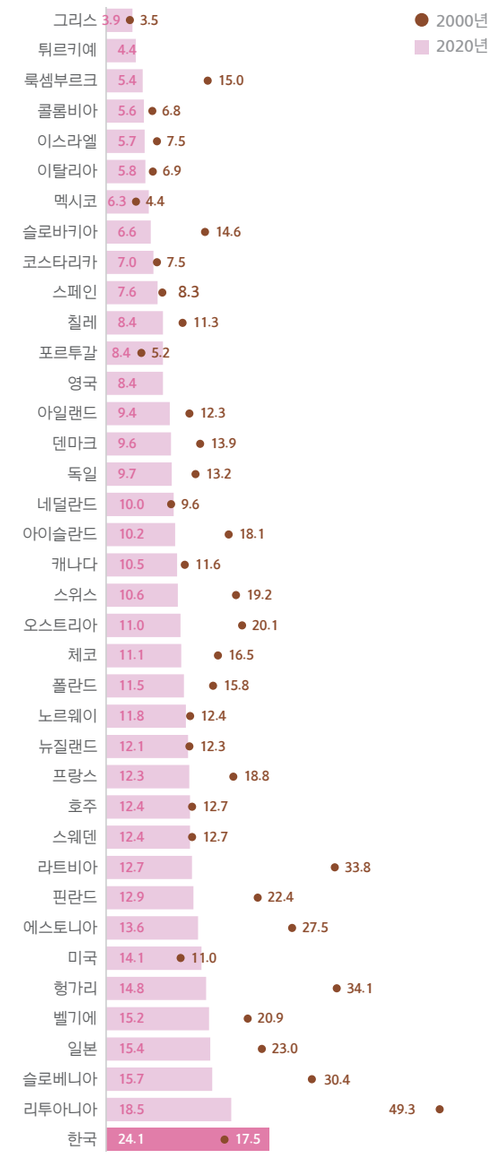
단위: 명/10만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0년, 2020년 OECD 국가의 자살률

단위: 명/10만 명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2023년 9월 인출)

주 ① 연령표준화 자살률임.

② 노르웨이, 뉴질랜드는 2016년, 이탈리아, 프랑스는 2017년,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튀르키예는 2018년, 슬로바키아, 캐나다, 포르투갈, 헝가리는 2019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스페인,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호주는 2021년 자료임.

# 신체활동 실천율

Physical activity rate

**지표 정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평소 규칙적 운동(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을 '실천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45.5%, 2020년보다 4.6%p 증가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신체활동은 대중적이란 측면에서 전문적인 운동(스포츠)과 차이가 있고, 신체 전반의 근육을 단련하고 심폐기능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동작만 반복하는 노동과도 다르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체활동은 비만의 예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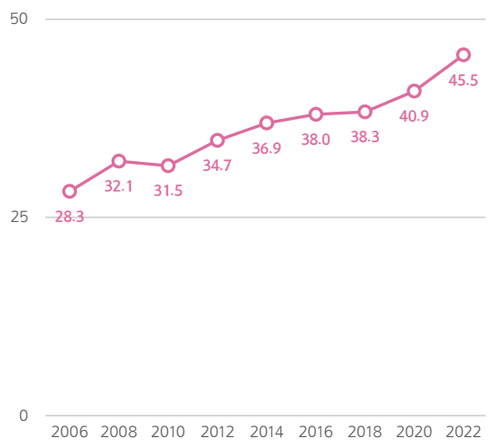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 조사로 파악한 한국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6년 28.3%에서 2022년 45.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47.3%, 여자 43.7%로 남자가 더 높고, 지역별로는 도시(동부) 지역에서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46.2%로 농촌(읍면부) 지역(42.4%)보다 높다. 이러한 성별, 지역별 차이는 2006년 이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46.7%와 50.5%로 30대와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0세 미만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40.6%로 다른 연령과 비교해 가장 낮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신체활동 실천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지만 13~19세의 경우 2020년 43.4%에서 40.6%로 낮아졌고, 30~39세는 같은 기간 34.3%에서 41.1%로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크다.

2006~2022년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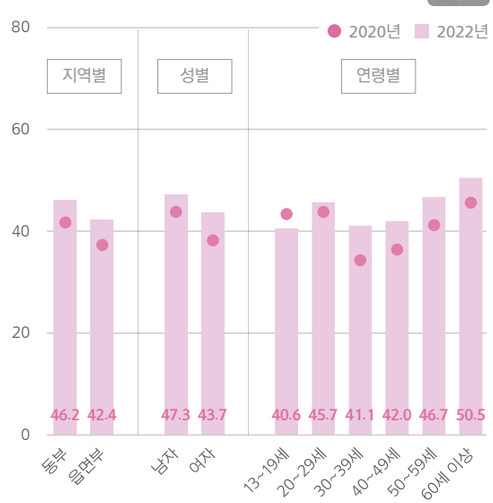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지역·성·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03 교육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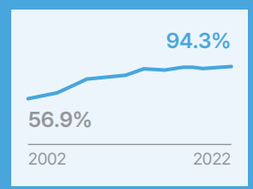
## 교육이란?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물질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함와 동시에 사회발전을 통한 사회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다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구성원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단으로 평가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게 해준다. 교육 영역은 삶의 질과 연관되어 교육기회가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가(교육기회), 교육의 삶의 질 제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가(교육자원) 그리고 기회의 확충과 재원투입의 확충을 통해 실시된 교육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가(교육성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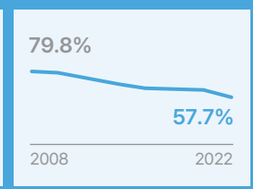
## 최근 추세

교육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는 1개 이다. 유아교육 취원율은 2019~2020년 감소 이후에 다시 기존 추세로 증가하였고, 교육비 부담도와 학교교육효과,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었던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21년부터 다시 개선 추세이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2020년에는 개선이었으나, 2022년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원격수업에서 전면 등교로 전환되는 등 일상에서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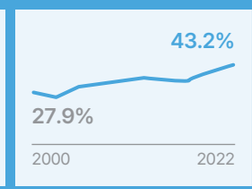
유아교육 취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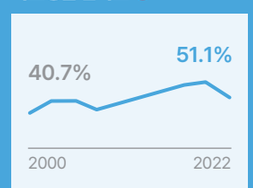

교육비 부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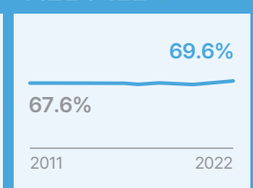

학교교육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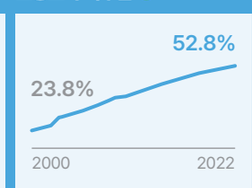

학교생활 만족도




대학졸업자 취업률




고등교육 이수율




# 유아교육 취원율

Preschool enrollment rate

**지표 정의**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율

**측정 방법** {(3~5세 어린이집 보육아수 + 3~5세 유치원 재적원생수) ÷ 취학적령(3~5세)인구} × 100

### 2022년 94.3%, 전년대비 0.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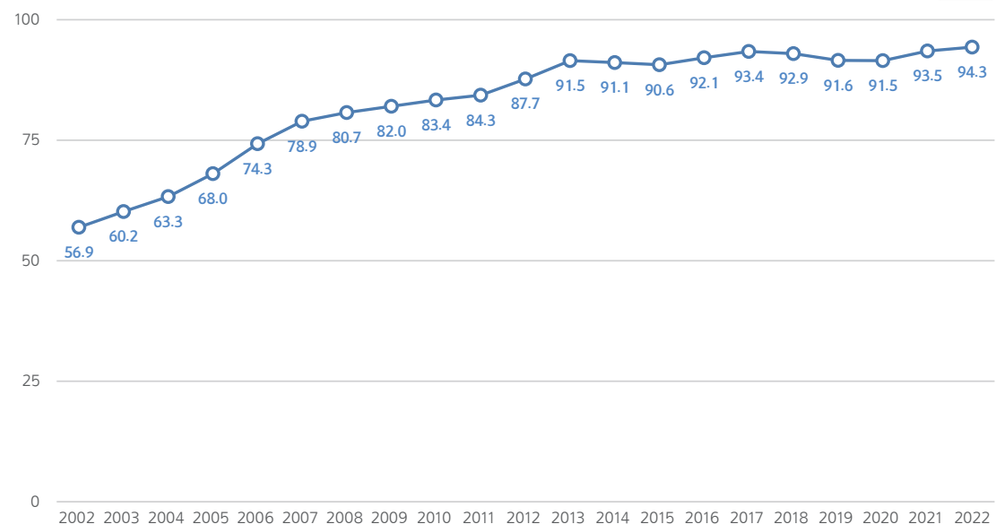
유아교육 취원율은 교육기회가 해당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한국 사회에서 초중등단계의 교육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 취원율 지표는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시설과 보육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기관 모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유치원 취원율 대신 두 기관 중 하나라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유치원은 대상 연령의 제한이 있어 유치원을 기준으로 하여 3~5세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2022년 유아교육 취원율은 94.3%로 3~5세 아동의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유아교육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표로 2002년 56.9%에서 2008년에 80.7%로 80%를 넘겼고, 2013년에는 91.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4~2007년까지 매년 4~6%p 가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이후 2008년부터 매년 1%p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90%를 넘어선 2013년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9~2020년에 91%대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93.5%, 2022년에는 94.3%로 증가하였다.

2002~2022년 유아교육 취원율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주 취학적령인구(3~5세)는 추계인구를 사용함.

# 교육비부담도

Degree of education cost burden

**지표 정의**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 중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57.7%, 2020년보다 6.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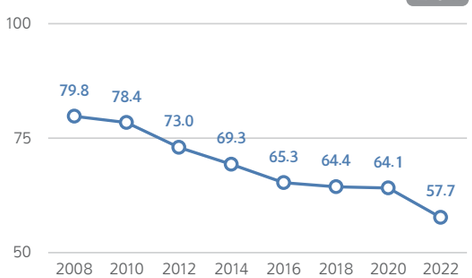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가구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교육비부담도는 가구소득 대비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를 보여준다.

가구의 교육비부담도는 자녀의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2022년에는 57.7%로 2020년보다 6.4%p 감소하였으며, 2008년 79.8%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2022년에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교육비부담도는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둘 시기인 30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40대 이상이 되면 높아진다. 2022년 30대 가구주의 경우 46.1%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40대는 58.4%, 50대는 60.8%로 증가하여 50대의 경우는 30대보다 약 14%p 정도 더 높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학교납입금외 교육비(72.0%)로 나타났으며, 학교납입금(23.4%), 하숙 및 기숙사비(4.7%)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학교 이외 교육비에 대한 부담 비율은 증가하고 학교납입금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하숙 및 기숙사비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과 2022년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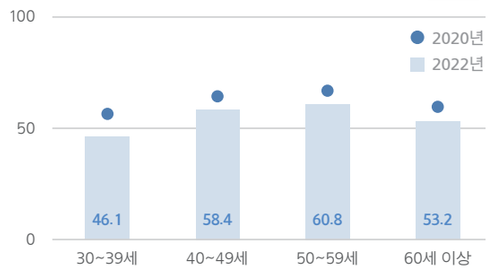
2008~2022년 교육비부담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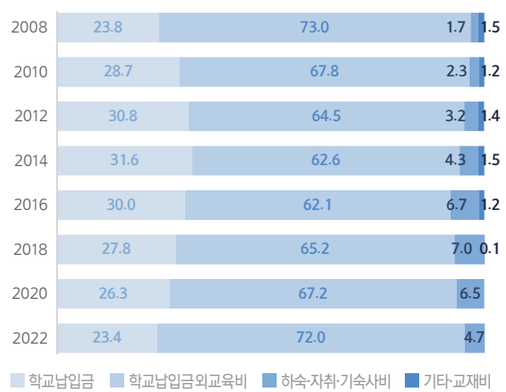
2020년, 2022년 가구주 연령별 교육비부담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008~2022년 교육비 중 부담스러운 항목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①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②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부담되는 교육비 항목임.
③ 교재비는 2018년 조사부터 제외, 2020년부터 '보충교육비'는 '학교납입금외교육비'로 변경



# 학교교육의 효과

Perception toward effects of school education

**지표 정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학교교육의 '생활, 취업 및 직업 활용' 효과에 대해 '매우 효과 있다' 또는 '약간 효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43.2%, 2020년보다 3.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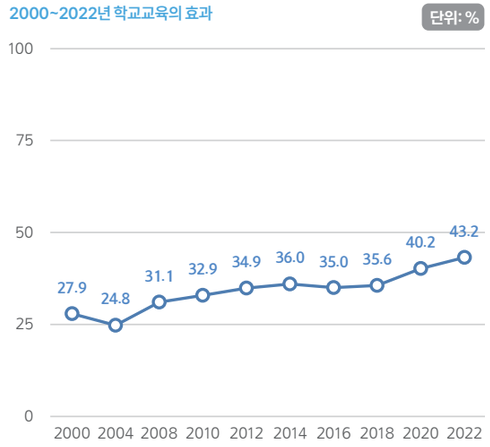
객관적인 수준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인들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이다.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관적인 지표로 학교교육이 생활, 취업, 직업 등에서 활용하는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통해 학교교육의 실생활 활용 정도를 보여준다.

학교교육이 생활과 취업, 직업 면에서 활용 효과가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2년 43.2%로 2020년 40.2%에 비해 3.0%p 증가하였다. 2000년 27.9%에서 2014년 36.0%까지 증가한 이후 비슷한 추세였으나 2022년 43.2%로 증가하였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비교적 높고, 30~40대가 상대적으로 낮다. 30~40대는 37%대로 낮은 반면, 13~19세는 49.3%, 60세 이상은 50.3%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할 때 이와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이 대부분인 초등학교 이하에서 학교교육의 효과는 52.8%로 높은 반면,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각각 40.8%, 41.5%로 대졸 이상이 약간 높긴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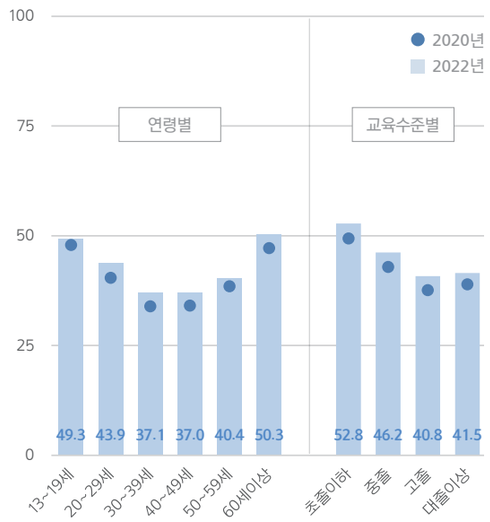
2000~2022년 학교교육의 효과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연령·교육수준별 학교교육의 효과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학교생활 만족도

School life satisfaction

**지표 정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

**측정 방법** 중·고등학생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51.1%, 2020년보다 8.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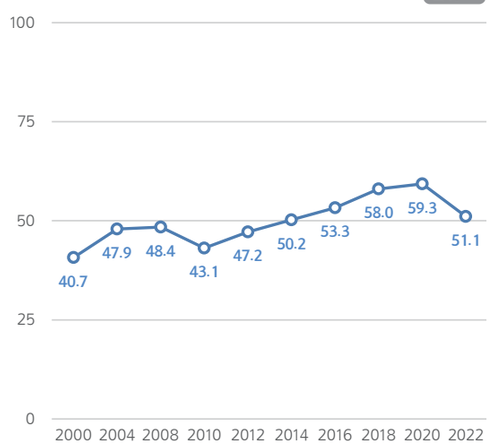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 수준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조건과 과정을 측정하기 어렵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만족도와 같은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참여와 활동을 살펴보는 지표로 학교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삶의 질이나 웰빙을 진단하는데 의미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22년 51.1%로 2020년 59.3%에서 8.2%p 감소하였다. 2000년 40.7%에서 2008년 48.4%까지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에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줄었고,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학교생활이 이루어졌음에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22년 전면등교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다. 반면,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49.0%로 가장 낮다. 최근 10년간의 시계열 변화를 보면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설비,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폭이 큰 반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증가폭은 낮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교우관계 만족도와 교육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학교주변환경 만족도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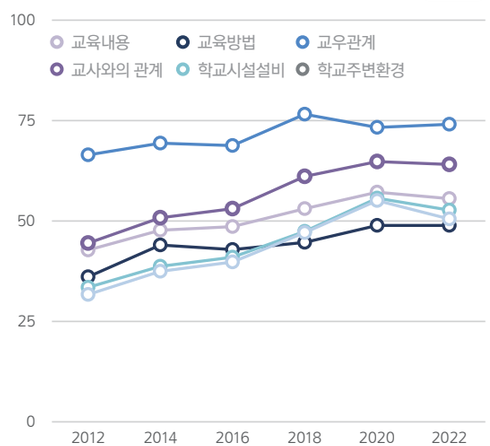
2000~2022년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2012~2022년 세부항목별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2~2016년은 13세 이상 재학생, 2018년부터 13세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 대학졸업자 취업률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지표 정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 취업자의 비율

**측정 방법** (취업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 100

## 2022년 69.6%, 전년대비 1.9%p 증가

앞서 학교교육의 효과 지표가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관적인 측면의 지표라면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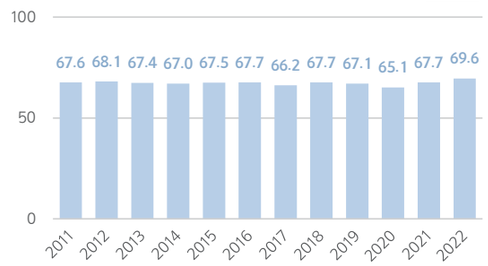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22년 69.6%로 2021년보다 1.9%p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취업률은 2021년 회복되었으며,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2011~2021년) 66~68% 사이에서 미미한 등락을 보여왔는데 2022년에 69.6%로 증가하였다. 2022년 남자의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71.2%, 여자는 68.2%로 남자가 여자보다 3.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취업률은 2011년 64.5%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녀 간 대학졸업자 취업률의 차이는 2011년 6.2%p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학계열별 취업률을 보면 의약계열이 83.1%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이 59.9%로 가장 낮다. 2014년과 비교해보면 교육계열과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조사기준일(12월31일) 당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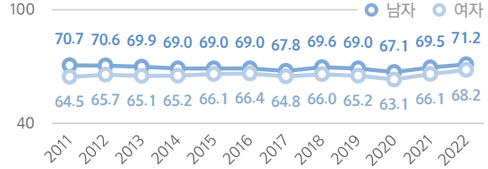
2011~2022년 대학졸업자 취업률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주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됨.
②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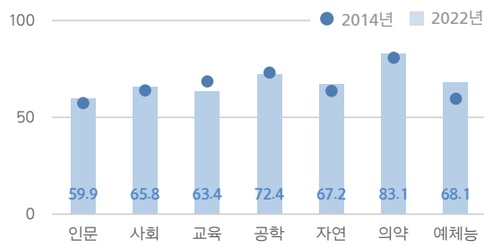
2011~2022년 성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주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됨.
②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함.

2014년, 2022년 계열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주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됨.
②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함.

# 고등교육 이수율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지표 정의**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고등교육기관 이수자 ÷ 25~64세 인구)×100

## 2022년 52.8%, 전년대비 1.1%p 증가

고등교육 이수율은 사회의 교육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기회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가 많다는 것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열도 높아,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여주는 취학률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한국인은 이미 세계에서 학교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기회가 충족되자 국민은 고등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1981년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여 대학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고,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자율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고등교육을 받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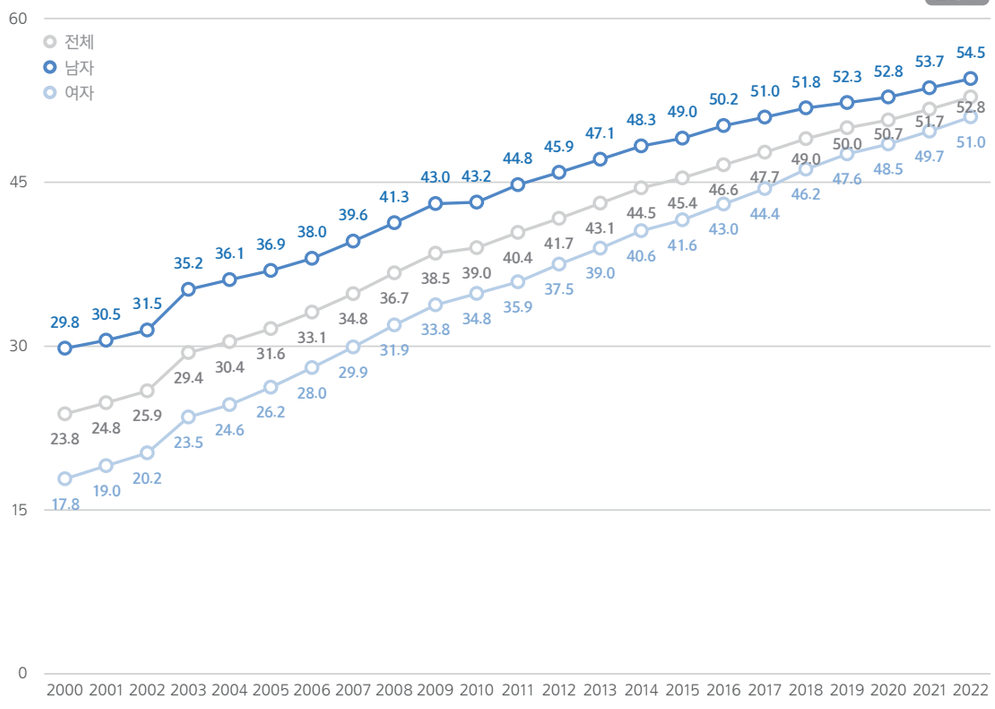
성인(25~64세) 인구 가운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즉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에 23.8%였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후 고등교육 이수율은 두 배 이상 늘어나 2022년에는 52.8%에 달하게 되었다.

성별로 보면, 2022년 남자는 54.5%, 여자는 51.0%로 남자가 3.5%p 더 높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면 남자 29.8%, 여자 17.8%로 12.0%p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7년 이러한 성별 격차는 10%p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부터 5%p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로, 2022년 OECD 평균(40.4%)에 비해 12.4%p 정도 높다. 한국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로는 캐나다(62.7%), 일본(56.1%), 아일랜드(54.4%) 정도가 있다. 2005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31.6%로 OECD 평균(26.3%)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은 14.1%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21.2%p 증가하여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고등교육 이수율이 2005년 대비 20%p 이상 증가하였다.

2000~2022년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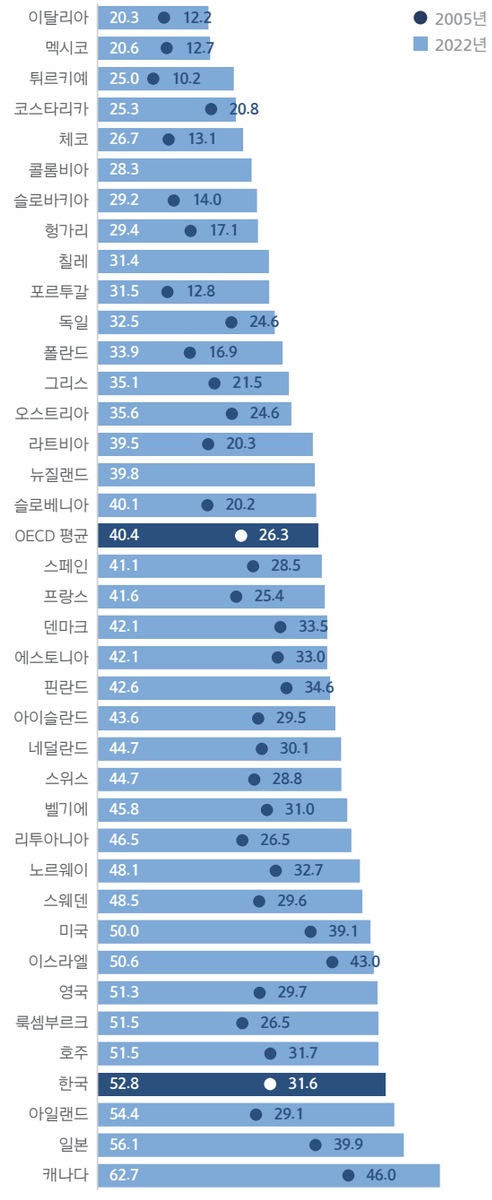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2023년 9월 인출)

**주** 고등교육이수율은 25~ 64세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이수자의 비율임.

2005년, 2022년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2023년 9월 인출)

**주** ① 고등교육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tertiery) 이수자의 비율임.

② 2005년 자료가 없는 경우 포함하지 않음.

# 04

# 고용·임금

Employment·W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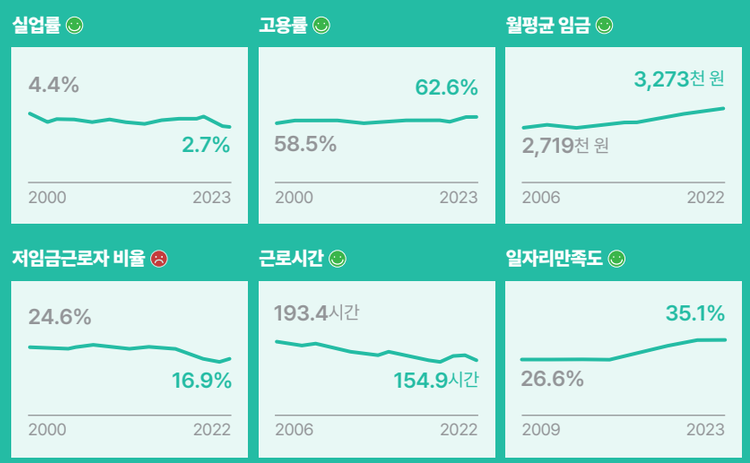
## 고용·임금이란?

경제활동의 기회유무, 경제활동에서의 정당한 보수 수급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의 질 등이 궁극적으로 소득이라는 최종 산출물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활동이라는 과정 자체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또한 고용의 질이 높은 경우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추세

고용.임금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2023년 현황을 보여주는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이며, 근로시간은 최근 증가 추세였으나 전년대비 감소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만족도 지표는 2021년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폭 개선되었다. 반면 저임금근로자 비율 지표는 기존의 감소 추세와 반대로 2022년에 증가하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지표들은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연초에 공표된(2024. 1. 10) 고용률과 실업률은 2023년 통계수치를 반영하였다.




#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측정 방법** (15세 이상 실업자수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00

### 2023년 2.7%, 전년대비 0.2%p 감소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2023년 실업률은 2.7%로 2022년보다 0.2%p 감소하였다. 2000년 4.4%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3년 3.1%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0%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 3.7%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2.7%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성별 실업률을 보면 2023년 남자 2.6%, 여자 2.8%로 여자가 약간 더 높은 수준이며, 남녀 모두 2022년에 비해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의 실업률은 5.9%로 가장 높고, 15~19세의 실업률이 5.5%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에는 모든 연령에서 실업률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5~19세 실업률의 감소폭이 커서 20~29세보다 낮다. 50대의 실업률은 1.7%로 가장 낮고 40대가 1.9%로 그 다음으로 낮다. 2022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30~50대의 실업률 감소폭이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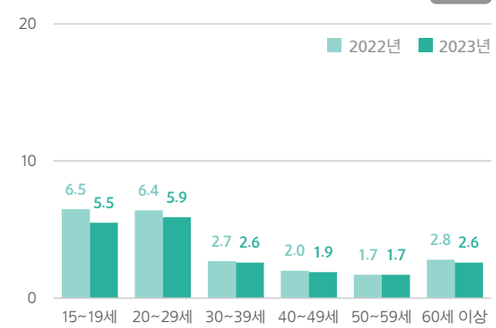
**실업률** 조사대상주간(지난 4주 기준)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자로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로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

2022년, 2023년 연령별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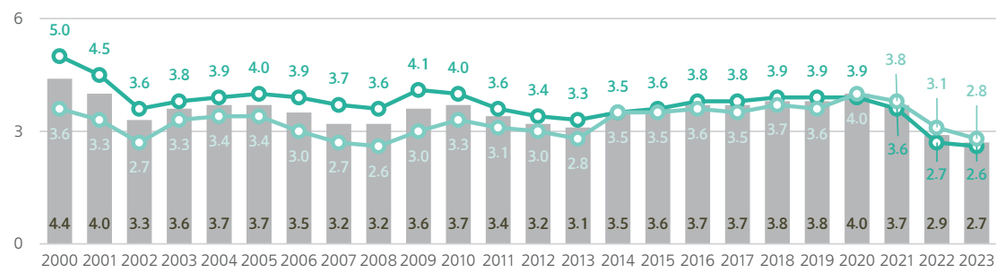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실업자수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000~2023년 실업률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실업자수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 고용률

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측정 방법** (15세 이상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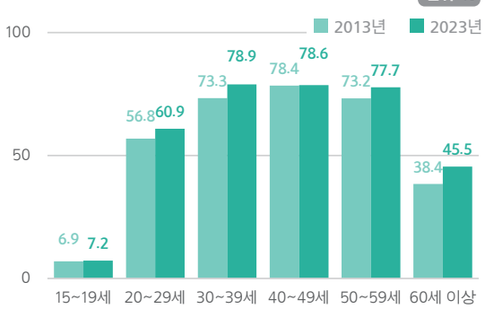
## 2023년 62.6%, 전년대비 0.5%p 증가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이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주목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비교지표로도 고용률이 주로 사용된다. 2023년 고용률은 62.6%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2000년 이후 대부분 59~60%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14년 이후부터 60%에서 소폭 증가 추세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60.1%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소폭으로 회복하였고, 2022년에는 62.1%, 2023년 62.6%로 기존 추세보다 높게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남자가 71.3%로 여자(54.1%)보다 17.2%p 높으나, 여자 고용률은 2000년 4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별 차이는 2000년 23.8%p에서 감소 추세이다. 특히 여자 고용률은 2022년에 전년대비 1.7%p, 2023년에는 전년대비 1.2%p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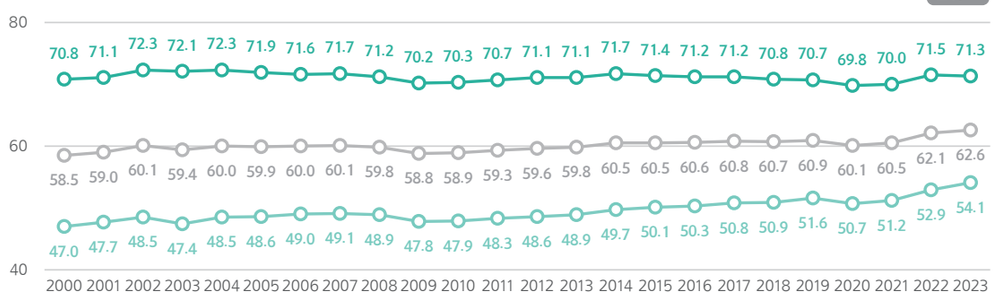
연령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30대와 40대가 78% 정도로 가장 높고, 50대는 77.7%이다. 그 다음으로 20대가 60.9%, 60세 이상이 45.5% 순으로 나타난다. 2022년과 비교할 때 15~19세(2022년 8.0% → 2023년 7.2%)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30대의 고용률이 전년대비 1.6%p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과 비교해보면 15~19세와 40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3년 38.4%에서 2023년 45.5%로 7.1%p 증가하면서 전체 연령에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2013년, 2023년 연령별 고용률**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23년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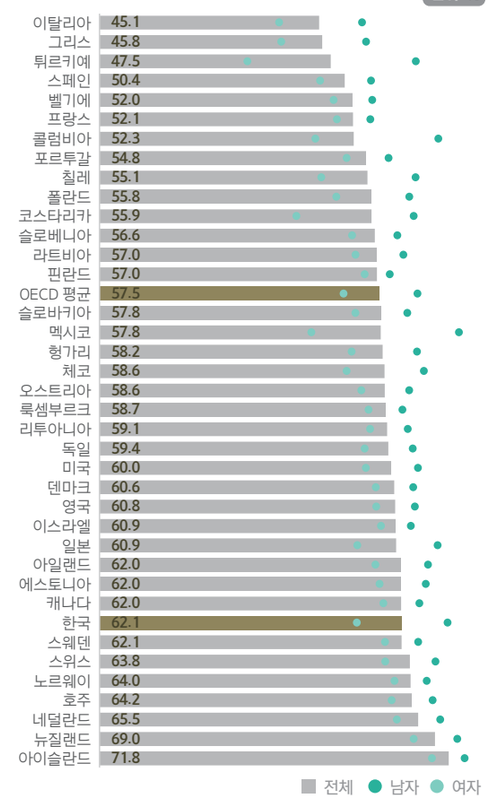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용률(15세 이상)은 2022년 62.1%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평균(57.5%)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라별로 보면 아이슬란드가 71.8%로 고용률이 가장 높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45% 정도로 낮다. 우리나라는 2022년의 고용률 증가로 기존에 비슷한 수준이었던 일본(60.9%), 영국(60.8%), 캐나다(6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수준인 반면, 여자는 OECD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편으로 OECD 여자 고용률 평균(50.1%)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성별 고용률 차이는 18.6%p로 OECD 평균(15.2%p)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별 차이가 큰 편이다. 일본도 성별 고용률 차이는 16.5%p로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보다는 낮고,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의 많은 OECD 국가들은 성별 고용률 차이가 10%p 미만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2년 36.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아 OECD 평균(15.5%)의 두 배 이상이다.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이 30%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32.3%)가 유일하다. 평균수명이 긴 일본도 65세 이상 고용률은 25.2%로 우리나라보다 낮고, 15세 이상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캐나다와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20%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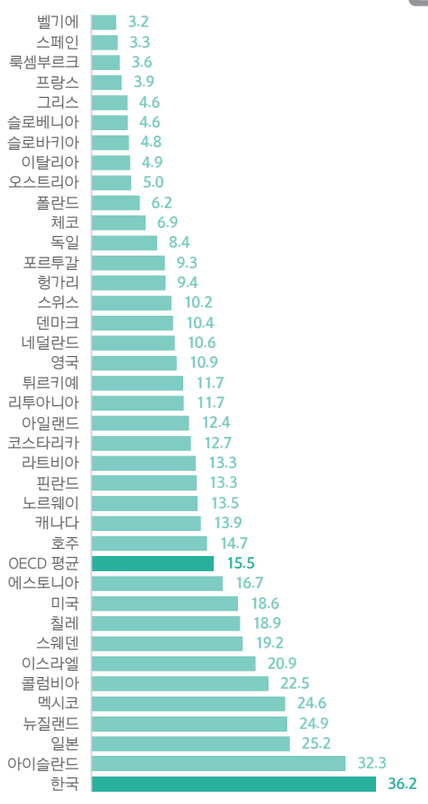
**2022년 OECD 국가의 고용률** 단위: %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2024년 1월 인출)

주 15세 이상이며, 코스타리카의 전체 고용률은 15-74세 기준임.

**2022년 OECD 국가의 65세 이상 고용률** 단위: %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2024년 1월 인출)

# 월평균 임금

Average monthly wage

**지표 정의**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실질금액으로 환산한 값

**측정 방법**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직전 연도 연간특별급여) ÷ 12개월

## 2022년 327만 3천 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급여액은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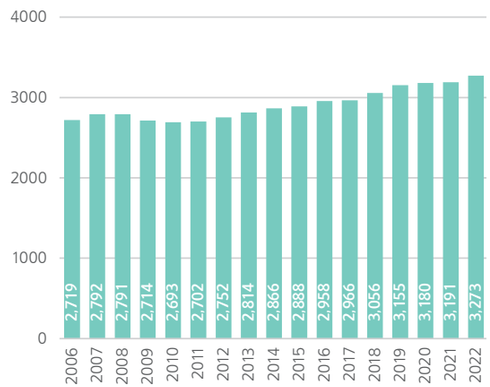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임금의 총액으로 임금총액은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임금수준의 정확한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실질금액)은 2009~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2022년 월평균 임금은 327만 3천 원(실질금액)으로 2021년 319만 1천 원보다 8만 2천 원 증가하였다. 2006년 271만 9천 원에서 2009~2010년의 소폭 감소한 이후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성별로는 2022년 남성은 412만 7천 원, 여성은 268만 3천 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5% 정도이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2000년(57.6%)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보면 2022년 정규직은 407만 8천 원, 비정규직은 182만 6천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약 44.8% 정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10년 전후 47% 내외 였으나, 최근 45% 미만으로 감소하여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상승폭에 비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상승폭이 적고 때로는 월평균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2014년)도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월급여액의 차이가 오히려 소폭으로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2022년에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21년보다 7.5%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8.6% 증가하였다.

2006~2022년 월평균 임금(실질금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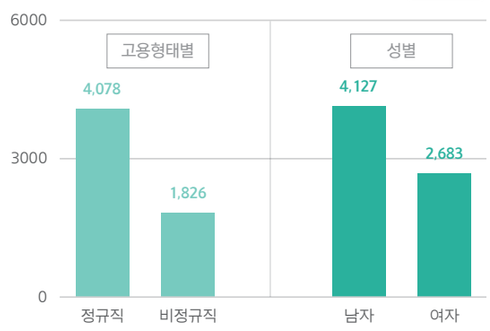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①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을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② 연간특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전 연도 기준으로 조사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당해 연도 6월 임금총액에 합산함.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2022년 고용형태·성별 월평균 임금(명목금액)

단위: 천 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① 연간특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전 연도 기준으로 조사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당해 연도 6월 임금총액에 합산함.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저임금근로자 비율

Proportion of low-paid workers

**지표 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측정 방법**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수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 2022년 16.9%, 전년대비 1.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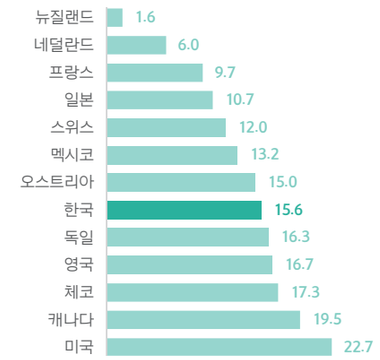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본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개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0년 24.6%에서 2015년 23.5%로 지난 15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에는 19.0%로 전년대비 3.3%p가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15.6%로 감소하였다, 2022년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9%로 전년대비 1.3%p 증가하여, 2013년 이후의 감소 추세가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성근로자보다 여성근로자가 더 높다. 2022년 기준 남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1.2%인 반면, 여자는 26.1%에 달한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14.9%p 높으나, 여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00년 45.8%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남녀간 차이는 2000년 30.7%p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5.6%로 미국(22.7%), 캐나다(19.5%), 영국(16.7%)보다는 낮은 편이나, 일본(10.7%)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2021년 OECD 주요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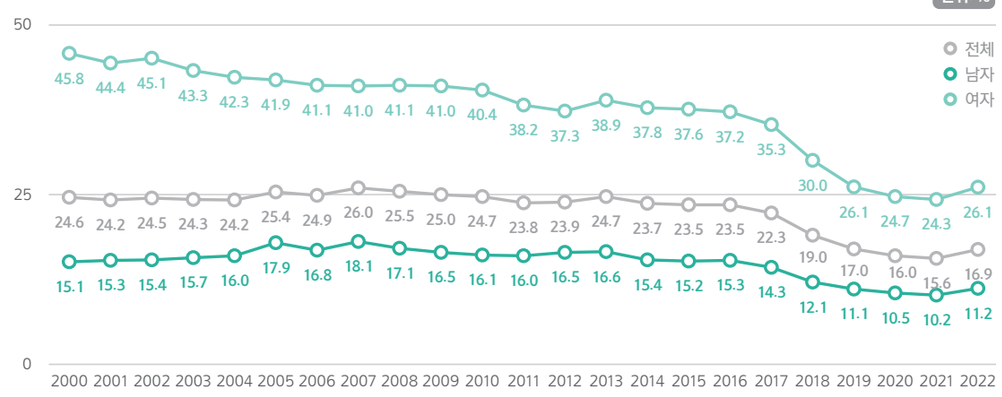



출처 OECD, *Earnings*(2024년 1월 인출)

주 스위스는 2020년 값임.

2000~2022년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출처 OECD, *Earnings*(2024년 1월 인출)

# 근로시간

Working hours

**지표 정의**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

**측정 방법**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2022년 154.9시간, 전년대비 9.3시간 감소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의 강조와 함께 최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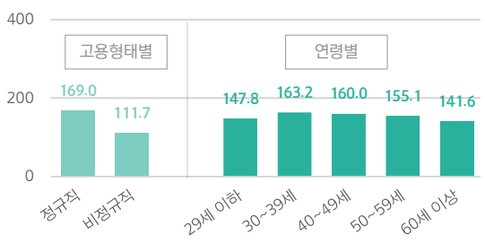
한국 임금근로자의 2022년 월간 총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2021년 164.2시간에 비해 9.3시간 감소하였다. 근로시간은 2006년 193.4시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173.5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전년대비 8시간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9년 152.4시간까지 감소하였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163~164시간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다시 154.9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근로시간은 보통 조사대상기간의 근로일수에 영향을 받는데, 2020년과 2021년의 월력상 근로일수(6월)는 22일로 2019년보다 3일 많았고, 2022년의 월력상 근로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2일 감소하였다. 근로일수에 따라 증감을 반복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성별로 남자는 160.8시간, 여자는 146.7시간으로 남자의 근로시간이 14.1시간 길다. 연령별로는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2022년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63.2시간인 반면,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147.8시간 141.6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2022년 169.0시간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11.7시간으로 차이가 크다.

2022년 고용형태·연령별 근로시간

단위: 시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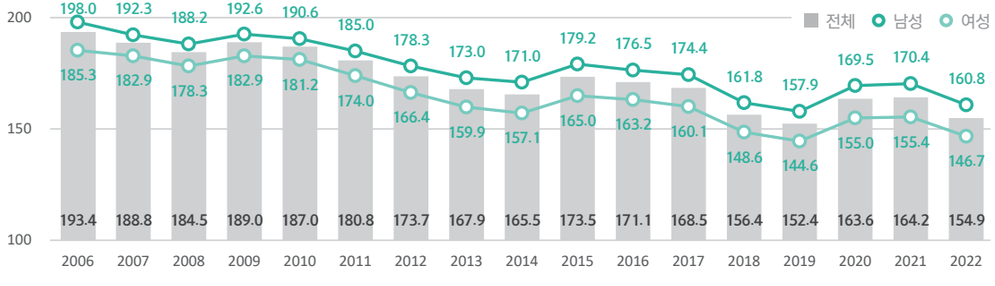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①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② 매년 6월 기준 근로시간임.

2006~2022년 근로시간

단위: 시간/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①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② 매년 6월 기준 근로시간임.



# 일자리 만족도

Job satisfaction

**지표 정의**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일자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3년 35.1%, 2021년보다 0.1%p 증가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만족도는 일자리에 대한 개인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이러한 하위 지표들을 측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한 것으로 근로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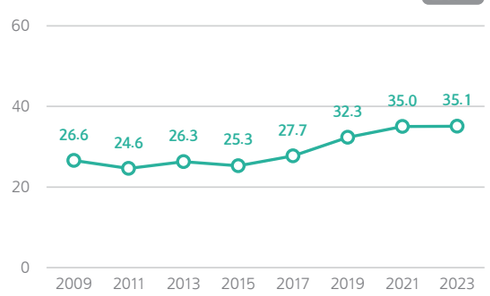
통계청 「사회조사」로 파악한 일자리 만족도는 2023년 35.1%로 2021년보다 0.1%p 증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09년 26.6%에서 2017년 27.7%로 큰 변화없이 유지해오다 최근 만족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2023년 남성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34.5%, 여성 근로자는 35.8%로 여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는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만족도가 31.4%로 가장 낮다. 20~29세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37.5%로 가장 높으나,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60세 이상의 일자리 만족도는 6.3%p 증가하였고, 20~29세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2021년보다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일자리 만족도는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관리직이 46.9%로 가장 높고, 사무직도 40.8%로 높은 편이다. 반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능노무직의 만족도는 각각 29.0%, 24.6%로 낮게 나타나 직종별로 차이가 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일자리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2009~2023년 일자리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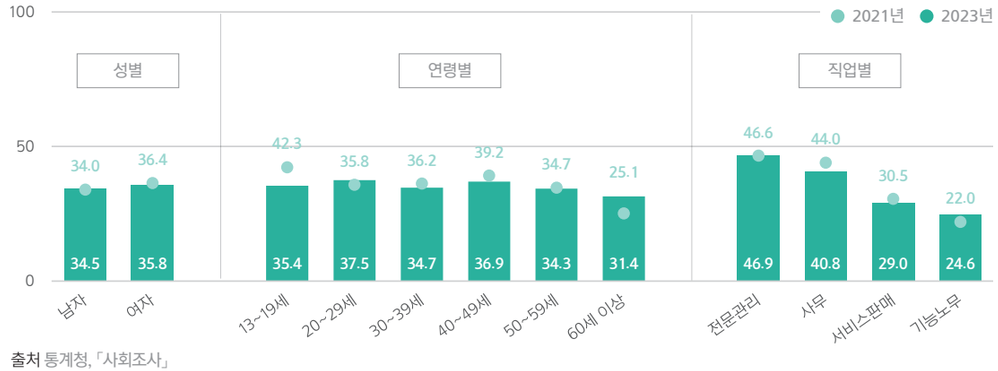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①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②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대상

2021년, 2023년 성·연령·직업별 일자리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대상

# 05

# 소득·소비·자산

Income·Consumption·Wealth

## 소득·소비·자산이란?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량은 물질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기 보다는 소비라는 과정을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은 물질적 자원의 보유량에 대한 핵심지표로서 소비행위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자산축적의 원천이 된다. 소득분배는 소득이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체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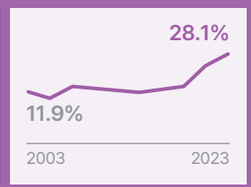
## 최근 추세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지표는 4개, 악화 지표는 3개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총소득 지표는 2020년 정체 이후에 2021년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실질금액을 반영한 가구순자산도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소폭으로 증가하여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객관적인 소득수준인 가구중위소득과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전기대비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가계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다만 2021년에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던 영향으로 기존 추세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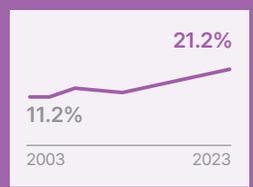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득**

**소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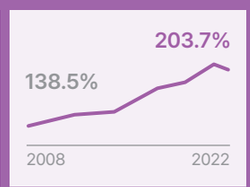



**소비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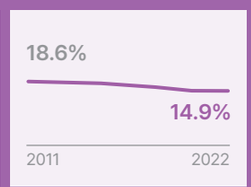



**가구순자산**

**가계부채비율**




**상대적 빈곤율**




# 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지표 정의**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것

**측정 방법** 국민총소득(소비자물가지수 적용) ÷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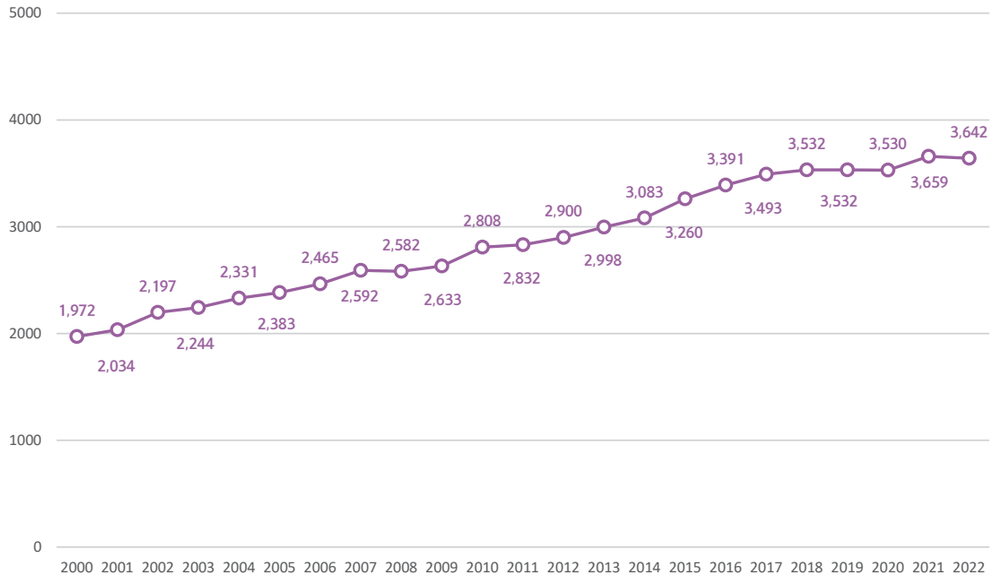
### 2022년 3,642만 원, 전년대비 0.5% 감소

국민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으로서 한 국가 국민의 소비와 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웰빙의 경제적 기초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의 소득수준을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유용하고 이러한 비교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질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3,642만 원으로 2021년 3,659만 원에 비해 약 17만 원 정도 줄어 0.5%의 감소율을 보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0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이나 증가율은 매년 차이를 보이는데 2002년은 전년대비 8.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8년에는 0.4%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2~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2017년 이후 증가율이 낮아져서 2020년에는 0.1% 감소하였다. 2018년 이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의 증가 추세가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명목금액은 2020년에 정체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00~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

단위: 만 원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장래추계인구(2020년 기준)」

주 ① 실질 국민총소득은 연평균 물가지수(2015년=100)를 이용하여 산출함.
② 202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임.
③ 2022년은 잠정치임.

# 가구중위소득

Equivalised median income

**지표 정의**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배분한 금액의 중위소득

**측정 방법** 표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하여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실질금액(소비자물가지수 적용)

## 2022년 3,206만 원, 전년대비 75만 원 증가

가구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계층 비율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이다. 가구마다 가구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간 소득수준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을 가구 균등화 소득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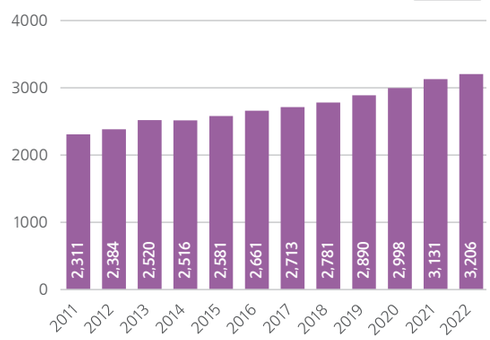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2022년 3,206만 원으로 2021년의 3,131만 원보다 75만 원 증가했다. 2011년 2,311만 원에서 2022년 3,206만 원으로 38.8% 증가하였다. 실질 가구중위소득은 2014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이다.

가구중위소득을 근로연령(18~65세)과 은퇴연령(66세 이상)으로 구분해 보면, 근로연령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은 3,761만 원이고, 은퇴연령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은 2,135만 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근로연령의 가구중위소득은 2011년 2,512만 원에서 2022년 3,761만 원으로 49.7% 증가하였으나, 은퇴연령의 가구중위소득은 같은 기간 1,215만 원에서 2,135만 원으로 75.7% 증가하였다. 2011년 근로연령가구와 은퇴연령가구의 가구중위소득은 두 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지만, 최근 그 차이가 소폭으로 감소하여 2022년 근로연령과 은퇴연령의 가구중위소득 차이는 1.8배 정도이다.

**중위소득**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

2011~2022년 가구중위소득(실질금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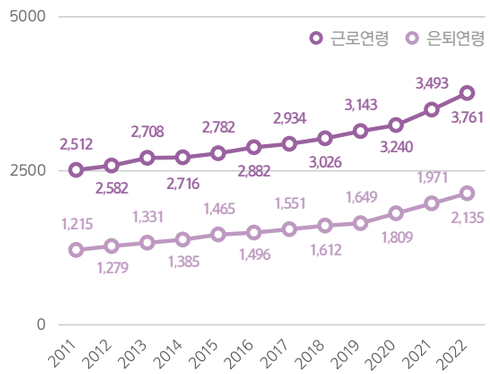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주 ① 균등화 연소득임.
② 처분가능소득 기준, 실질금액임(2020년=100).
③ 2021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과 시계열 비교시 유의

2011~2022년 연령계층별 가구중위소득(실질금액)

단위: 만 원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주 ① 균등화 연소득임.
② 처분가능소득 기준, 실질금액임(2020년=100).
③ 근로연령(18~65세), 은퇴연령(66세 이상)
④ 2021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과 시계열 비교시 유의



# 소득만족도

Income satisfaction

**지표 정의**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3년 28.1%, 2021년보다 4.6%p 증가

소득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득수준이 아닌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소득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만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소득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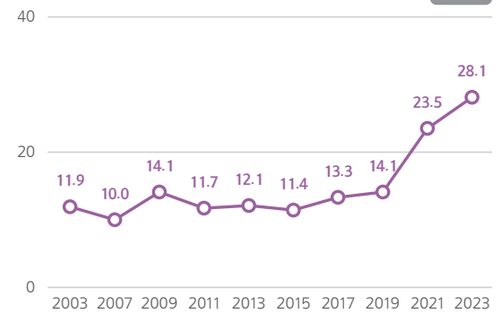
통계청 「사회조사」로 측정한 소득만족도, 즉 자신의 소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23년 기준 28.1%로 국민 10명 중 3명 가량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고 있다. 소득만족도는 2003년 11.9%에서 2009년 14.1%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9년까지 11~14%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1년 23.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도 2021년보다 4.6%p 증가하였다. 소득에 불만족하는 비율 또한 2021년 42.2%에서 2023년 39.8%로 2.4%p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소득만족도는 남자는 28.5%, 여자는 27.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23년 50대의 소득만족도가 30.3%로 높고, 60대 이상이 25.6%로 가장 낮으며, 40대 이하에서는 28%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만족도가 가장 높은 50대와 가장 낮은 연령인 60세 이상의 차이는 4.7%p이다. 2021년에 60세 이상의 소득만족도가 17.1%로 다른 연령대보다 약 10%p 가량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연령 간 차이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에는 상대적으로 소득만족도가 낮은 19~29세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5.3%p, 8.5%p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03~2023년 소득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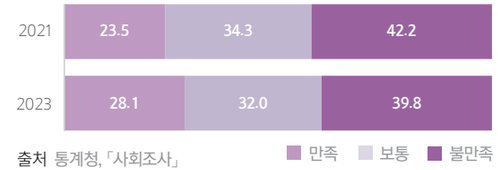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1년, 2023년 소득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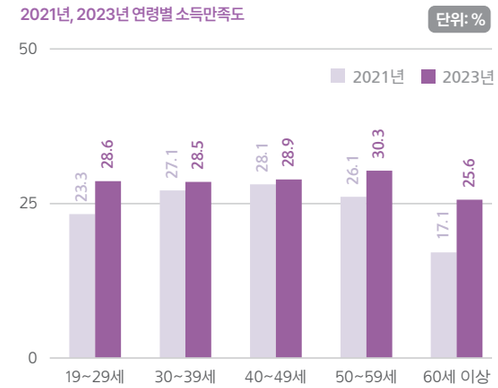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1년, 2023년 연령별 소득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소비생활 만족도

Consumption satisfaction

**지표 정의**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3년 21.2%, 2021년보다 2.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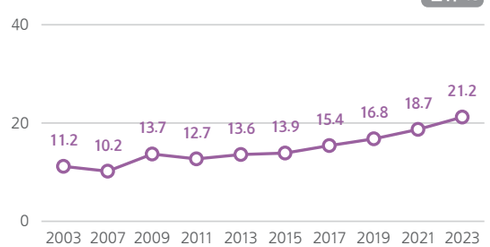
소비생활 만족도는 소비지출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태도를 보여준다.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측정한 소비생활 만족도, 즉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23년 21.2%에 불과하나 2021년 18.7%에서 2.5%p 증가하였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2003년 11.2%에서 2015년 13.9%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이후 소폭으로 증가 추세이다. 2011~2019년까지는 소득만족도보다 소비생활 만족도가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 소득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생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고 2023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생활 만족도의 경우 중립적인 응답인 '보통'의 비율이 2023년 49.9%로 높은 편이다(소득만족도의 경우 '보통' 32.0%). 따라서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28.9%로 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39.8%)보다 10%p 정도 낮다.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2021년 32.9%에서 4.0%p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21.6%로 여자(19.5%)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소비생활 만족도는 19~29세의 만족도가 26.0%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소득만족도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30~40대의 경우 23% 정도이고, 50~59세가 21.8%로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60세 이상에서는 16.0%로 낮아진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40~50대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2%p 미만으로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3%p 정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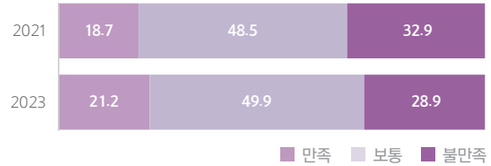
2003~2022년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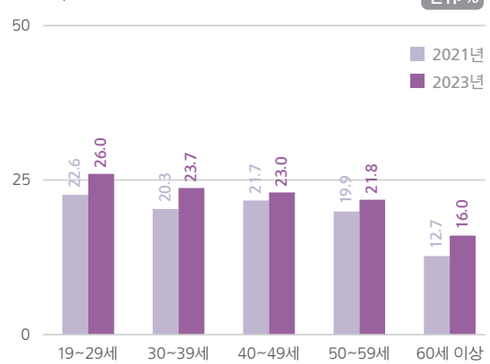
2021년, 2023년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1년, 2023년 연령별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가구순자산

Household net wealth

**지표 정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측정 방법** 전체 가구평균 순자산(소비자물가지수 적용한 실질금액) =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

## 2023년 3억 9,018만 원, 전년대비 3,316만 원 감소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것으로 웰빙의 지속에 직접적인 기반이 되는 축적된 재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가구 재산의 증감과 그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국민의 재정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가구의 재정상태는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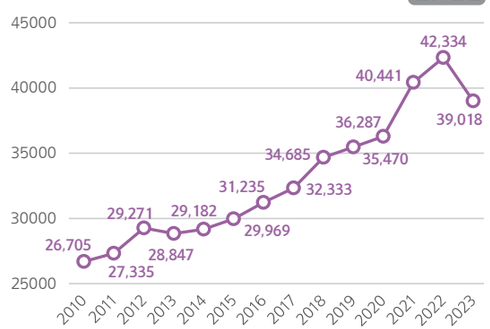
2023년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가구순자산(실질금액)은 3억 9,018만 원으로 2022년 4억 2,334만 원에 비해 3,316만 원 감소하였다.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은 2010년 2억 6,705만 원에서 2013~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에 감소하였다.

실질 순자산액 뿐 아니라 명목금액 또한 2022년 4억 5,602만 원에서 2023년 4억 3,54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순자산액의 감소는 2022년에서 2023년 자산 보유액이 5억 4,772만 원에서 5억 2,727만 원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주로 실물자산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3.8%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5.9% 감소하였으며,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의 감소(-10.0%)가 가장 크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2023년 순자산액(명목금액)은 50대가 4억 9,737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이 4억 8,630만 원 정도로 5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30대는 2억 7,300만 원으로 40대 이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부채는 30~50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자산이 50대가 더 많고, 60세 이상의 경우 부채는 6,206만 원으로 30대보다 적고 자산은 더 많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23년 가구 순자산액(명목)이 5억 4,154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 3,250만 원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2010~2023년 가구순자산(실질금액) (단위: 만 원)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주 ① 실질 가구순자산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함.
② 2017년부터 개인 및 직장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신용대출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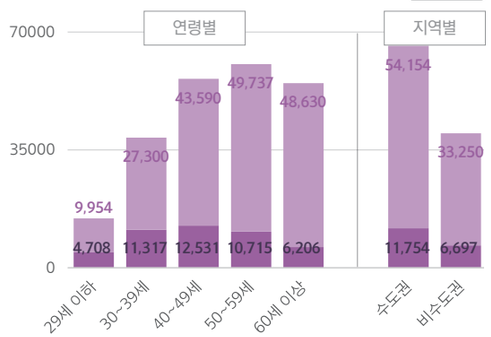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자산유형별 보유액(명목금액) (단위: 만 원)

| | 순자산 | 부채 | 자산 | | |
|---|---|---|---|---|---|
| | | | | 금융자산 | 실물자산 |
| 2022 | 45,602 | 9,170 | 54,772 | 12,126 | 42,646 |
| 2023 | 43,540 | 9,186 | 52,727 | 12,587 | 40,140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① 금융자산에는 저축액, 전월세보증금이 포함
② 실물자산에는 부동산과 기타실물자산이 포함

2023년 가구주 연령·지역별 가구순자산(명목금액) (단위: 만 원)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자산, 부채, 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자료임

# 가계부채비율

Household debt ratio

**지표 정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총액의 비율

**측정 방법** (가구부채총액÷가구순가처분소득)×100

## 2022년 203.7%, 전년대비 6.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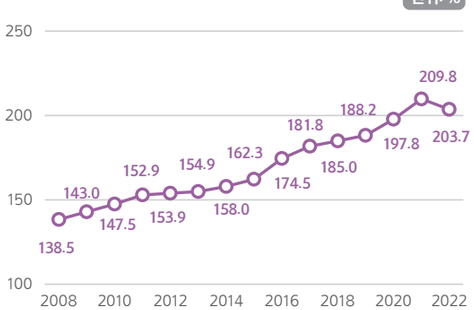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 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2년 203.7%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년 3~4%p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전년대비 12.2%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9.6%p, 2021년에는 전년보다 12.0%p 상승하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6.1%p 하락하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미국(101.8%), 일본(122.1%), 프랑스(126.1%), 영국(146.2%) 등은 150%를 넘지 않는다. 반면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가계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2008~2022년 가계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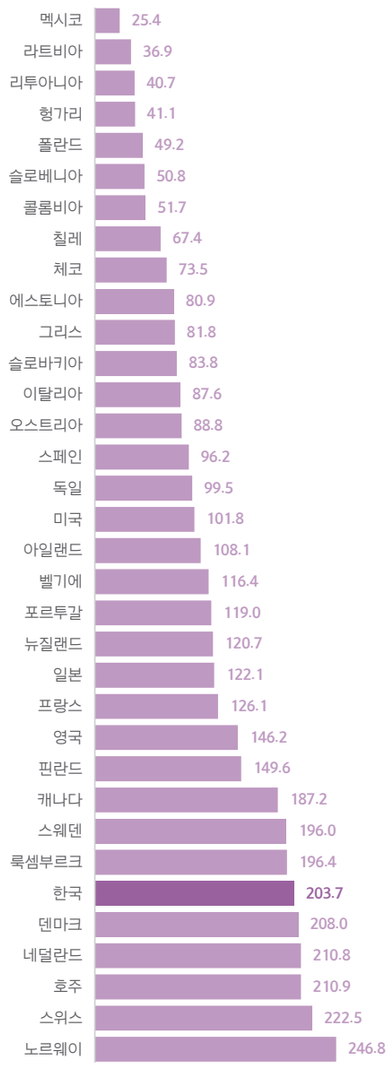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2023년 12월 인출)

2022년 OECD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

단위: %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2023년 12월 인출)

주 콜롬비아는 2020년, 호주,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은 2021년 자료임.



#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지표 정의**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가처분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전체 인구)×100

## 2022년 14.9%, 전년대비 0.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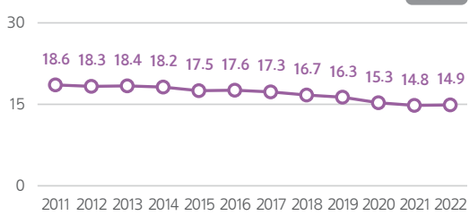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소득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도 자주 사용된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사회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지니계수가 전체 가구의 소득계층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빈곤가구 규모를 보여준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한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14.9%로 지난 2011년의 18.6%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 14.8%에서 소폭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OECD 자료로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5.1%)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일본(15.7%)에 비해서는 낮지만 호주(12.6%), 영국(11.7%), 독일(11.6%), 프랑스(8.5%)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인 코스타리카(22.4%), 멕시코(19.8%), 일본(20.0%) 보다도 월등히 높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연령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2022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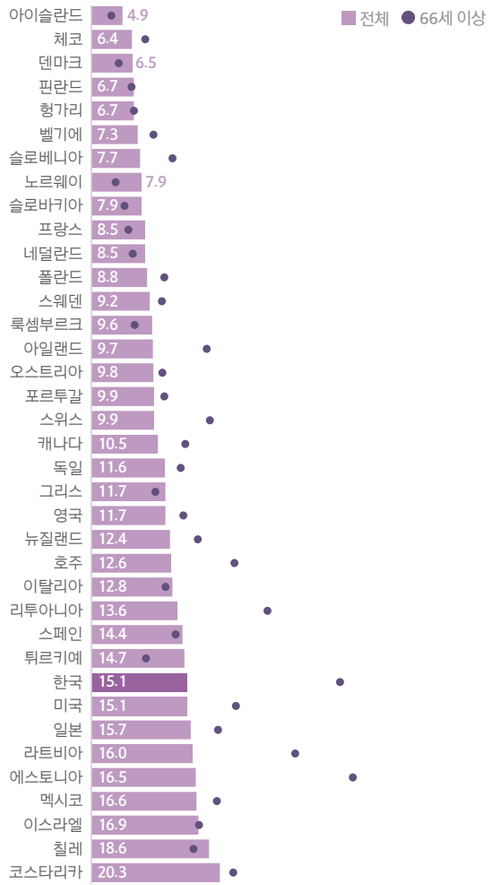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①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② 2021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과 시계열 비교시 유의

2021년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2024년 1월 인출)

주 ①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② 아이슬란드는 2017년, 일본은 2018년, 덴마크는 2019년, 호주, 칠레,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튀르키예는 2020년 자료임.

# 06

# 여가

Lei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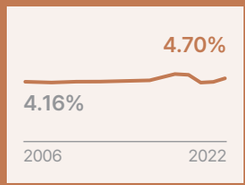
## 여가란?

노동시간과 대비해서 여가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잘 활용하면 일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과의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는 작용을 하며,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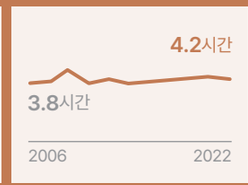
## 최근 추세

여가 영역의 6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여가 영역 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영역으로 2020년에 급격한 악화를 보인 이후 대부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가시간은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속적인 증가로 개선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1인당 여행일수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개선되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문화여가 지출률 지표는 2022년에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가시간 충분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도 개선 추세이다. 특히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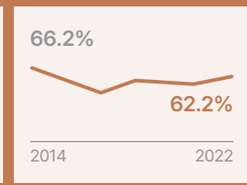
**문화여가 지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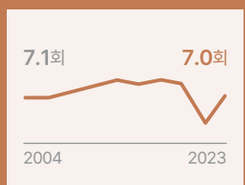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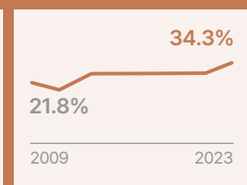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1인당 여행일수**

**여가생활 만족도**




# 문화여가 지출률

Ratio of expenditure on leisure

**지표 정의** 가계 지출 중 문화여가지출의 비율

**측정 방법**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 ÷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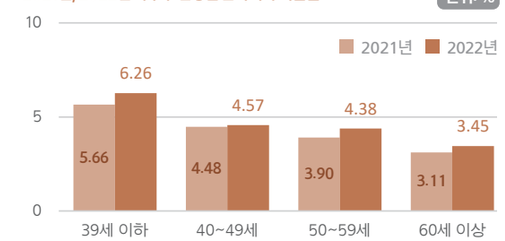
### 2022년 4.70%, 전년대비 0.47%p 증가

가구의 문화여가 지출은 여가자원의 투입 수준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문화여가지출의 총량은 문화여가시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을 가계지출에 대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제시한다. 또한 문화여가비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표이다. 2022년 가구의 문화여가 지출 월평균 금액은 16만 9천 원으로 가구의 전체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 지출인 오락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0%이다. 2021년(14만 3천 원) 대비 금액은 2만 6천 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율은 0.47%p 증가하였다.

문화여가 지출률은 2006년 4.16%에서 2010년 4.25%, 2015년 4.4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다. 문화여가활동은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는 탄력적 성격을 가지는 지표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문화여가 지출률은 4.00%, 4.04%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4.23%로 2020년(4.31%)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4.70%로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여가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감소했던 여가 관련 소비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촉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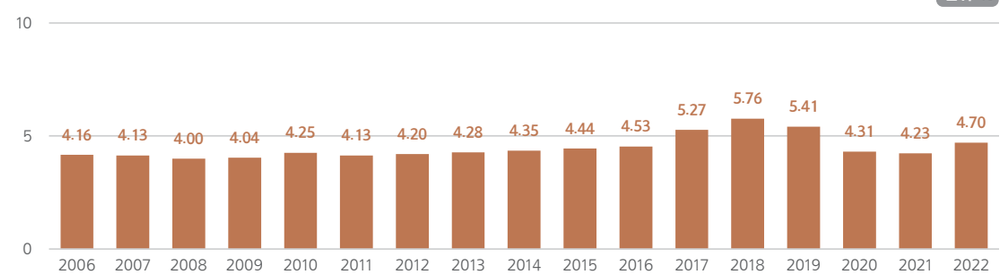
문화여가 지출률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여가 지출률이 높다.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에서는 문화여가 지출률이 6.26%로 높고, 60세 이상인 가구에서는 3.45%로 낮게 나타나 젊은 연령대에서 가계지출액 대비 문화여가 지출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문화여가 지출률이 증가하였으나 40~49세는 증가폭이 가장 적어서 202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 2022년 가구주 연령별 문화여가 지출률** 단위: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2022년 문화여가 지출률** 단위: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① 1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으로 2016년까지는 농가 제외, 2017년부터 농가 포함.
② 명목 금액 기준임.
③ 2017년, 2019년 두 차례 조사 개편으로 조사방법, 표본설계 등이 달라져 시계열 해석에 주의

# 여가시간

Leisure time

**지표 정의**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

**측정 방법**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 ÷ 7일

## 2022년 4.2시간, 2021년보다 0.2시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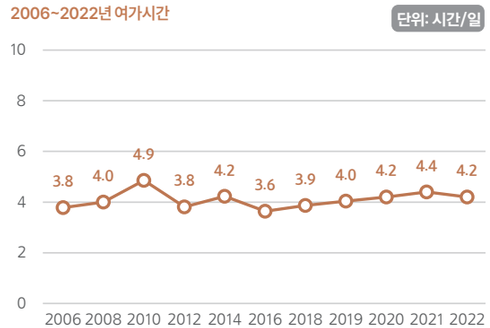
여가시간이란 일, 가사, 수업 등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가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기초 지표이자 여가활동의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적정한 수준의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여가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여가시간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을 집계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22년 평일 여가시간은 3.7시간이고 휴일 여가시간은 5.5시간이다. 이 둘을 합한 요일평균 여가시간은 4.2시간이다. 여가시간은 2006년 3.8시간에서 2010년 4.9시간 등 2018년까지 4시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4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시간은 2022년 남자와 여자가 모두 4.2시간으로 동일하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에는 여자가 3.7시간으로 더 길고 휴일에는 남자가 5.8시간으로 여자(5.3시간)보다 더 길어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60대는 4.4시간, 70대 이상은 5.3시간이다. 50대 이하에서는 20대가 4.4시간으로 여가시간이 긴 편이다. 202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여가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70대 이상의 여가시간은 2021년 5.7시간에서 2022년 5.3시간으로 감소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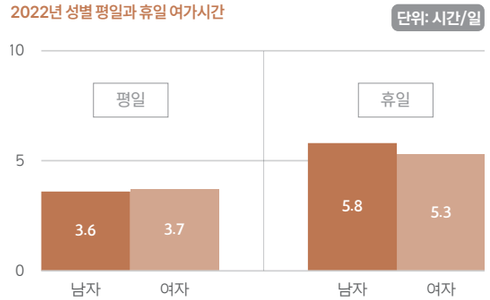
2006~2022년 여가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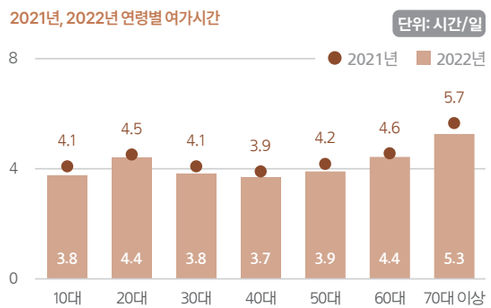
주 2008년까지는 10세 이상, 2010년부터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성별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1년, 2022년 연령별 여가시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시간 충분도

Sufficiency of leisure time

**지표 정의**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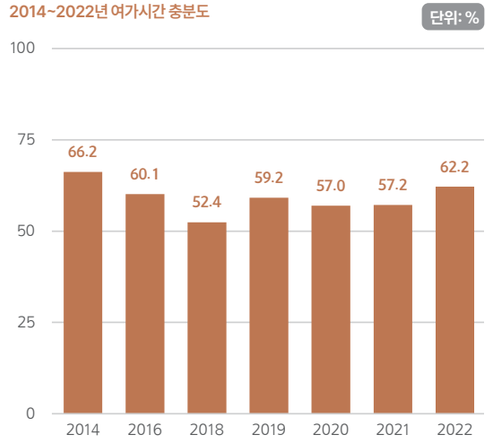
## 2022년 62.2%, 2021년보다 5.0%p 증가

여가시간은 사람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여가시간이 많아지면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여가시간의 양과는 별개로 각자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이 충분한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의 충분 정도는 개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적 자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생활시간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22년 62.2%로 2021년 57.2%에 비해 5.0%p 증가하였다. 2014년 66.2%, 2016년 60.1%에 이어 감소 추세로 60% 미만이었으나 2022년에 증가하였다. 여가시간이 2016년 이후 증가 추세인 것과 비교하면 객관적인 여가시간과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평일과 휴일을 비교하면 여가시간과 동일하게 평일보다는 휴일에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63.3%, 여자 61.2%로 남자가 여자보다 2.1%p 높게 나타났다. 휴일 여가시간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남자가 70.4%, 여자가 64.5% 정도로 남자가 5.9%p 높으나, 평일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남자는 56.2%, 여자는 57.8%로 여자가 1.6%p 높다.

연령별 여가시간 충분도 15~19세와 30~40대에서 낮은 편이고, 2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인구에서 높다. 2022년 여가시간 충분 정도는 15~19세가 가장 낮아 52.6%이며 그 다음은 40대 53.4%이다. 반면 70대 이상은 79.5%, 20대와 60대는 66% 정도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가 크다. 이러한 여가시간 충족 정도의 연령별 차이는 객관적인 여가시간의 연령별 차이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연령에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나 15~1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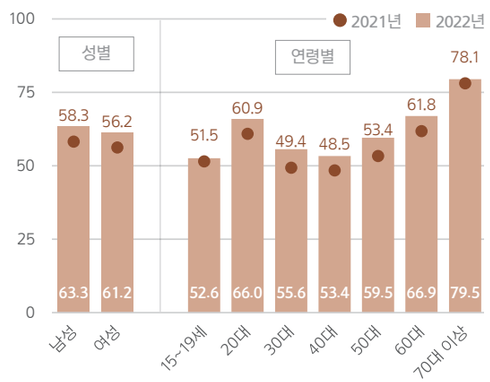
2014~2022년 여가시간 충분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① 여가시간충분도는 지난 1년 동안 평일과 휴일(휴가, 연휴 포함)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했다'의 7점까지 중 5-7점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②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1년, 2022년 성·연령별 여가시간 충분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여가시간충분도는 지난 1년 동안 평일과 휴일(휴가, 연휴 포함)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했다'의 7점까지 중 5-7점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Participation in culture, art and sport event

**지표 정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

**측정 방법** 지난 1년 동안 음악회·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문학행사 등을 관람한 사람들의 평균 관람횟수

## 2023년 7.0회, 2021년보다 2.5회 증가

여가활동 중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다양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한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는 2004년(관람률 51.0%, 평균 관람횟수 7.1회) 이후 2013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관람률과 관람횟수 모두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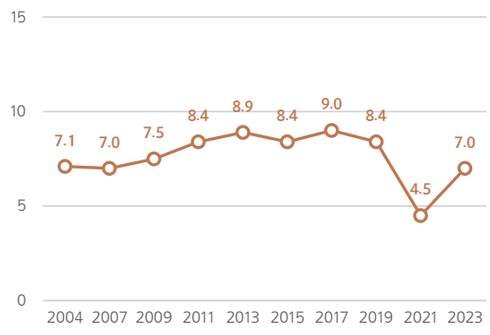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의 지난 1년간 예술공연, 영화, 박물관과 미술관, 스포츠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4.1%이고, 이들의 관람횟수는 1인 평균 4.5회로 2019년과 비교해보면(2019년 66.2%, 8.4회) 관람률은 절반 이상, 관람횟수는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2023년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55.3%, 1인 평균 관람횟수는 7.0회로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관람률과 관람횟수 모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는 7.0회, 여자는 7.0회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에 평균 관람횟수가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관람횟수가 8.5회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에서는 5.7회이다. 2021년에는 관람횟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관람횟수가 증가하였으나 5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진 것을 보여준다.

2004~2023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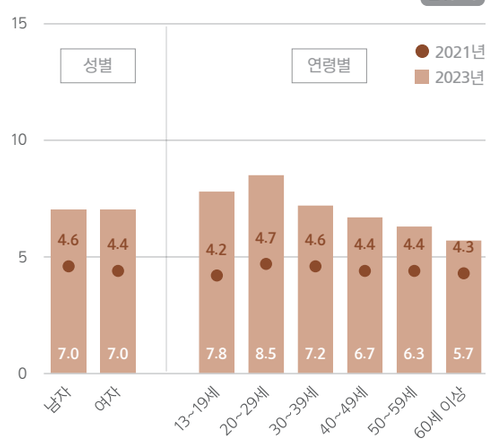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①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임.
②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③ 2023년부터 '문학행사'가 추가됨.

2021년, 2023년 성·연령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단위: 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①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임.
② 2023년부터 '문학행사'가 추가됨.



# 1인당 여행일수

Travel days per person

**지표 정의** 1인당 연간 국내 관광여행일수

**측정 방법**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국내 관광여행(당일여행 포함) 일수

## 2022년 8.29일, 전년대비 1.71일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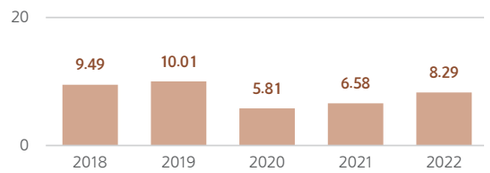
여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행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다른 여가활동들과 비교했을 때 비용과 시간이 모두 수반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 중 하나이다. 1인당 여행일수를 통해 국민의 여가향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022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는 8.29일로 2021년의 6.58일에서 1.71일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뿐 아니라 국내여행 및 이동에도 제한이 있어 여행일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01일만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여행경험률을 보면 국내관광 여행 경험률은 2021년 89.0%에서 2022년 91.8%로 약 2.8%p 정도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85.0%)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국내여행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행일수는 2019년보다 낮아 숙박여행보다는 당일여행이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 관광여행일수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0.39일, 10.96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0대 이상에서 3.20일로 가장 낮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에서 여행일수가 증가했으며, 15~19세와 7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내 관광여행일수도 증가하여,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는 11.26일이다. 특히 100만 원 미만에서는 2.79일, 100~200만 원 미만에서는 4.05일로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두드러지게 낮은 것을 보여준다. 2022년에 전반적으로 여행일수가 증가하였으며, 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만 2019년(11.31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2018~2022년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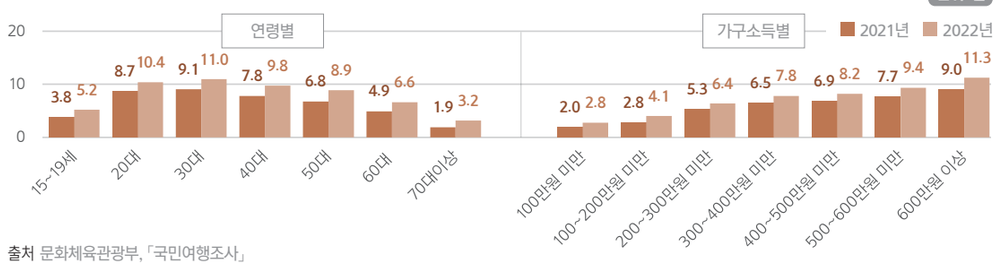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주 ① 국내관광여행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② 각 연도 12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수(장래인구추계, 2020년기준)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③ 2020~2022년 국민여행조사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경험률이 급감하여 국내여행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

2021년, 2022년 연령·가구소득별 국내 관광여행일수

단위: 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주 ① 국내관광여행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② 각 연도 12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수(장래인구추계, 2020년기준)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③ 2020~2022년 국민여행조사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경험률이 급감하여 국내여행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

# 여가생활 만족도

Leisure satisfaction

**지표 정의** 현재의 여가활용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조사대상자 중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3년 34.3%, 2021년보다 7.3%p 증가

여가생활 만족도는 여가활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수준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들이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듯이 여가생활이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가생활은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다양한 영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지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21.8%에서 2013년 27.1%로 높아진 후 이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가영역 다른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2021년에도 여가생활 만족도는 27.0%로 2019년 대비 1.8%p 감소에 그쳤다. 2023년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34.3%로 2021년보다 7.3%p 증가하여,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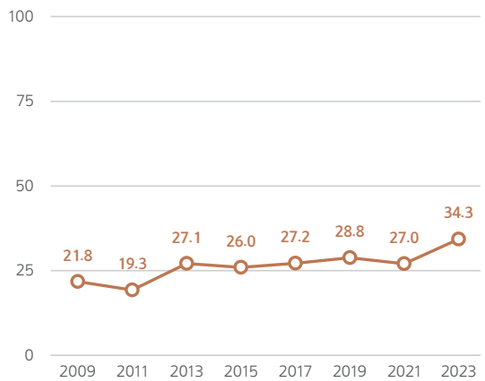
여가생활 만족도는 남자(34.8%)가 여자(33.7%)보다 조금 더 높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13~19세는 50.3%가 여가생활에 만족하는데 비해 60대 이상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5.2%에 불과하여 절반 수준이다.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의 지표추세와도 거의 유사하다. 고령층의 여가시간은 다른 연령보다 매우 긴 편이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적고, 여가생활 만족도 또한 매우 낮다. 이는 고령층이 여가 영역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여가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 10%p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가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13~19세의 경우 2021년에 비해 2.4%p 증가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2009~2023년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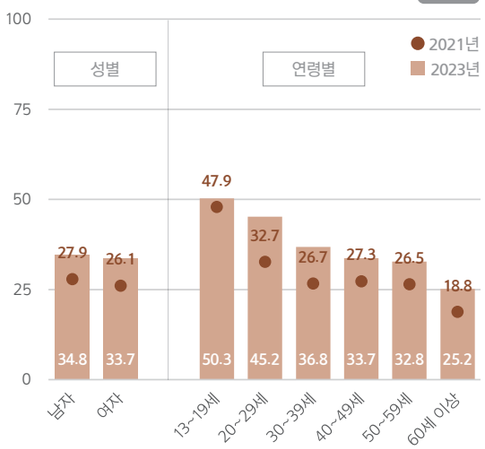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1년, 2023년 성·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07 주거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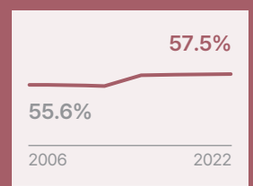
## 주거란?

거주하는 공간에서 향유하는 주거서비스를 의미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득·소비·자산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주거서비스의 확보여부와 안정성 그리고 크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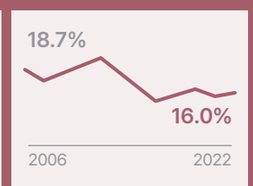
## 최근 추세

주거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는 1개이다. 악화지표는 주택임대료 비율로 2021년에 감소한 주택임대료 비율이 2022년 다시 소폭 증가하면서 악화로 나타났다. 자가점유가구 비율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주거면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정체되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감소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자가점유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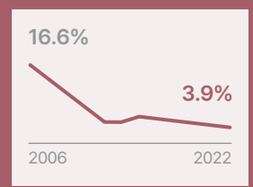



주택임대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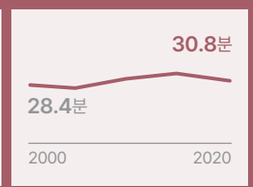



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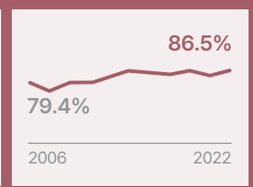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시간




주거환경 만족도




# 자가점유가구 비율

Home-ownership rate

**지표 정의** 전체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조사대상가구 중 자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 2022년 57.5%, 전년대비 0.2%p 증가

주택공급의 꾸준한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크게 늘어났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사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마련이 거주의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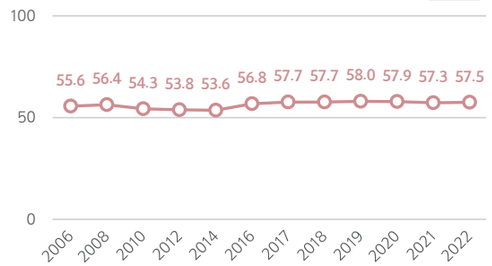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즉 자가점유가구의 비율은 2006년 55.6%에서 2014년 53.6%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9년 58.0%까지 증가하였다. 2019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 57.3%에서 2022년 57.5%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서울이 44.1%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대전, 세종도 각각 51.9%, 54.4%로 낮은 편에 속한다. 서울은 낮은 편에 속하는 세종, 대전보다도 8%p 가량의 차이를 보여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준다.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 지역은 60% 내외의 자가점유가구 비율을 보인다. 시도 지역에서는 전남이 70.6%로 가장 높고, 경북이 68.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경기도(55.9%), 제주도(56.8%)가 6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세종만 2021년 51.9%에서 2022년 54.4%로 2.5%p 증가하였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은 1%p 미만으로 증가하였고, 이 외의 다른 지역은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모두 1%p 미만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지역은 없다.

2006~2022년 자가점유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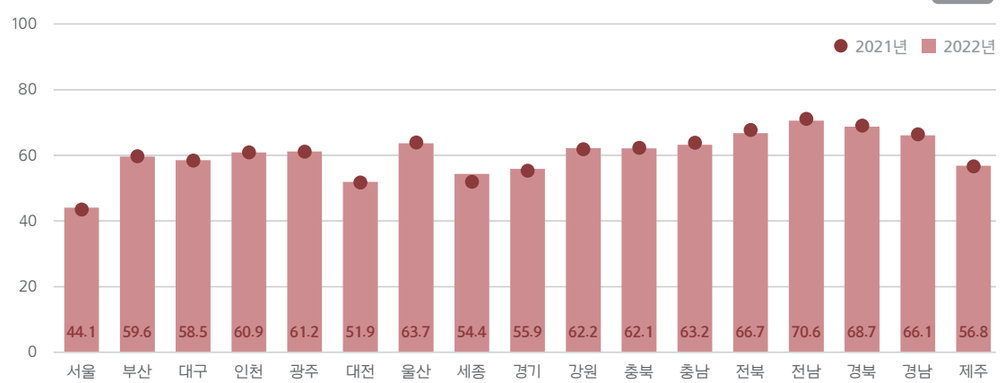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1년, 2022년 시도별 자가점유가구 비율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주택임대료 비율

Rent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주택임대료의 월소득 대비 비율

**측정 방법** (중위 월임대료 ÷ 중위 월가구소득) × 100

## 2022년 16.0%, 전년대비 0.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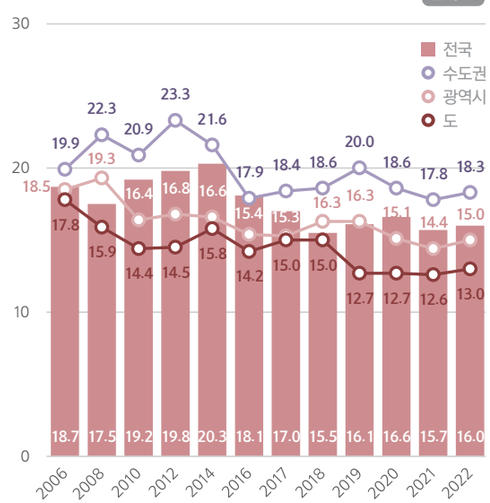
주택임대료는 가구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가거주가 아닌 가구에서 부담이 큰 가구소비 지출 항목 중 하나이다.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료 비율이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2년 16.0%로 2021년보다 0.3%p 증가하였다.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까지 증가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15.5%로 하락한 이후 15~16%에서 정체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8.3%, 광역시는 15.0%, 도지역은 13.0%로 주택임대료 비율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높다.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를 넘었다가 이후 20% 아래로 떨어졌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2010년에 하락한 후 최근까지 15%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수도권과 광역시, 수도권과 도지역 차이가 각각 6.5%p, 8.8%p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하락하며 지역간 차이는 감소하였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하위소득집단과 상위소득집단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고, 중위소득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위소득집단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14년 29.0% 이후 하락하여 2022년 18.8%이며, 중위소득집단의 경우 2006년 18.9%에서 감소한 이후 큰 변화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하위소득집단의 경우 2022년에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으나, 중위소득과 상위소득 집단은 2021년에 비해 소폭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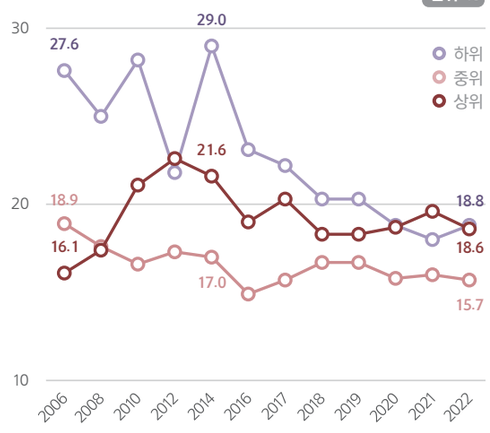
2006~2022년 주택임대료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2006~2022년 소득수준별 주택임대료 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소득수준은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로 구분됨.



# 1인당 주거면적

Residential area per capita

**지표 정의**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측정 방법**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 ÷ 개별 가구원수)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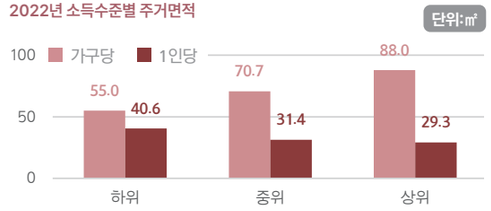
## 2022년 34.8m², 전년대비 0.9m² 증가

1인당 주거면적은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의 질 측정의 핵심 지표이다. 이 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산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주거면적은 가구당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근 가구원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1인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당 주거면적보다는 1인당 주거면적이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국제비교에서도 활용성이 높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14년 33.5㎡로 늘어난 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3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2021년에 비해 0.9㎡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0㎡, 광역시는 35.3㎡, 도지역은 38.8㎡로 도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6.8㎡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도지역은 1인당 주거면적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는 2021년에 비해 1.4㎡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16년간 수도권은 24.4㎡에서 32.0㎡로 7.6㎡가 증가하였으나 광역시와 도지역은 같은 기간 각각 11.3㎡, 8.8㎡ 증가하여 수도권이 가장 적은 증가를 보인다.

소득수준별로 주거면적을 비교해보면 1인당 주거면적은 하위소득집단에서 40.6㎡로 가장 넓고, 중위소득집단과 상위소득집단은 각각 31.4㎡, 29.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소득하위집단에서 1인가구나 노인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면적이 넓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구당 주거면적으로 보면 소득상위집단이 88.0㎡로, 소득에 따른 주거면적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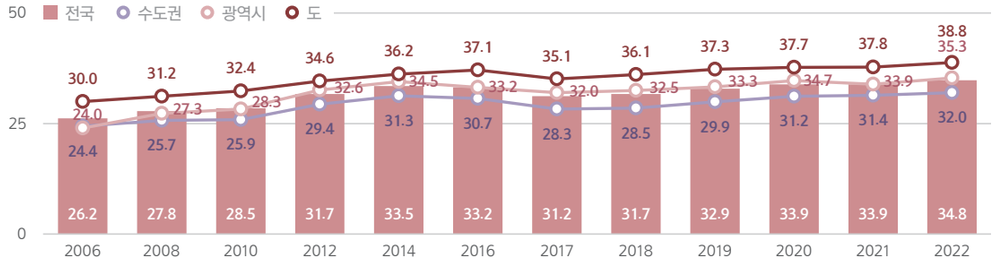
2022년 소득수준별 주거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소득수준은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로 구분됨.

2006~2022년 1인당 주거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② 2017년부터는 공동주택의 면적을 행정자료와 연계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Dwelling without basic facilities

**지표 정의**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총가구수) × 100

## 2022년 3.9%, 전년대비 0.6%p 감소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양적인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2022년 3.9%로 2021년 4.5%보다 0.6%p 감소하였다. 2006년 16.6%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 이후 5%대에서 정체해오다 2020년 4.6%, 2022년에는 3.9%까지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5%로 상대적으로 높고, 광역시가 2.8%로 낮다. 수도권 지역은 2006년 12.8%에서 2022년 4.5%로, 같은 기간 광역시는 17.7%에서 2.8%, 도지역은 21.6%에서 3.7%로 감소하여 2006년 대비 도지역의 주거시설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2014년 4.7%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정체된 반면, 광역시와 도지역은 꾸준히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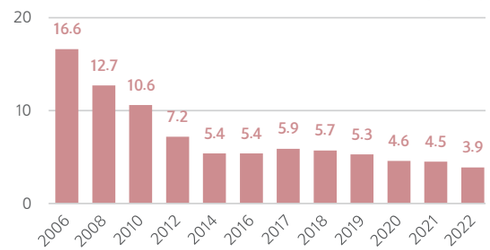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의 세부기준별로 보면 수도권은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3.6%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도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양호하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비율이 3.1%로 높다. 다만 수도권의 면적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21년 4.7%에서 2022년 3.6%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2011.5.27.)**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 및 면적기준** 1인 가구(방1개와 14m²), 2인 가구(방1개, 26m²), 3인가구(방2개, 36m²), 4인가구(방3개, 43m²), 5인가구(방3개, 46m²), 6인가구(방4개, 55m²)

2006~202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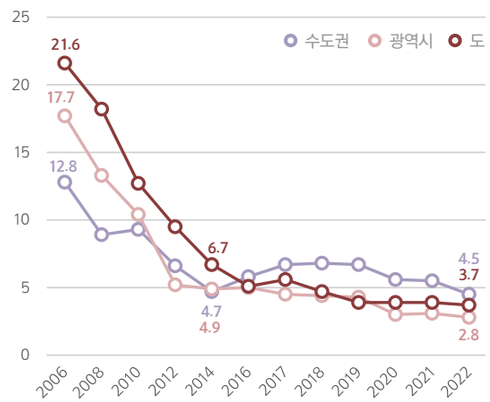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2006~2022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2022년 기준별 미달가구 비율

단위: %

| | 면적기준 미달 | 시설기준 미달 | 침실기준 미달 |
|---|---|---|---|
| 수도권 | 3.6 | 2.6 | 0.1 |
| 광역시 | 2.1 | 2.1 | 0.1 |
| 도지역 | 2.0 | 3.1 | 0.1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 통근시간

Commuting time to office

**지표 정의** 통근인구가 평소 집에서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

**측정 방법** 12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집에서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 2020년 30.8분, 2015년보다 0.4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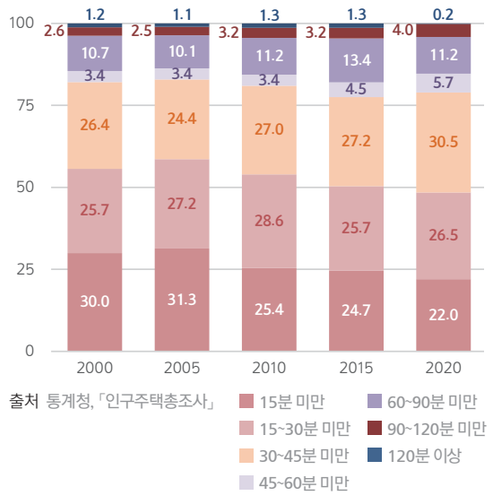
통근시간은 근로자의 직장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근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근시간은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삶의 질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통근시간의 추이를 통해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 변화,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의 변화, 토지이용과 지가의 변화, 통근 시간대 교통서비스 수준의 변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근시간은 도시의 성장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외 거주의 증가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000년 28.4분에서 2020년 30.8분으로 지난 20년간 2.4분가량 증가하였다.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 14.5%에서 2015년 18.0%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15.3%로 다시 감소하였다. 통근시간이 90분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 3.8%에서 2020년 4.2%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통근시간을 비교해보면 동지역의 통근시간이 길고 면지역이 가장 짧다. 동지역의 경우 2020년 통근시간이 60분 이상인 비율이 17.2%인 반면, 읍지역은 8.2%, 면지역은 4.7%로 큰 차이를 보인다. 15분 미만인 비율 또한 동지역이 17.9%에 불과한 반면 읍지역은 35.1%, 면지역은 47.3%이다.

2000~2020년 통근시간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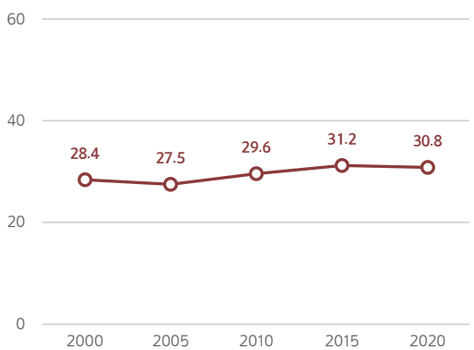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20년 평균 통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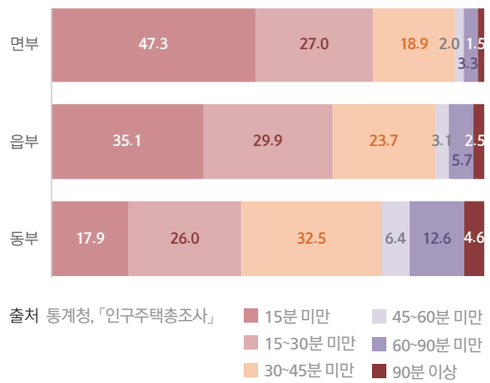
단위: 분/일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지역별 통근시간 비율

단위: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주거환경 만족도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신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86.5%, 전년대비 1.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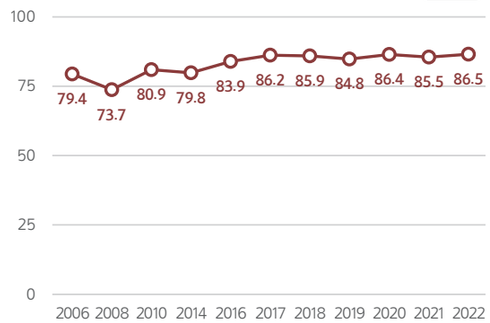
주거의 질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는 주거의 질 지표로 주거환경의 적절성을 나타낸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 주변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며, 거주 계층과 연령 등의 세부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또는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이나 계획에 활용 가능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에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이다.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2022년 86.5%로 2021년 85.5%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 2008년 73.7%에서 2017년 86.2%로 증가한 이후 85~86%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86.5%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17개 시도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세종이 9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최근에 개발된 지역인 만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 광주, 강원, 전북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다. 전남이 81.0%로 가장 낮으며, 경기, 경북, 경남지역이 85% 미만으로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충북과 경북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각각 6.0%p, 8.8%p) 반면, 대구(-3.7%p), 울산(-3.4%p), 경남(-3.9%p) 지역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06~2022년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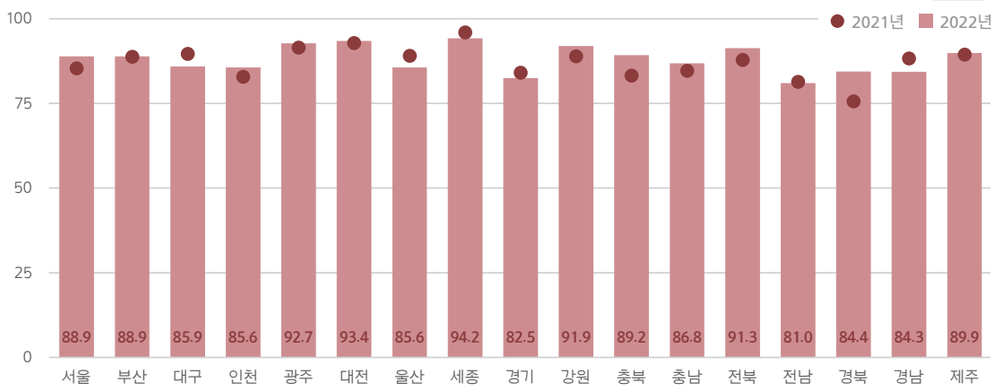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2012년은 5점 척도로 조사되어 제외.

2021년, 2022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08 환경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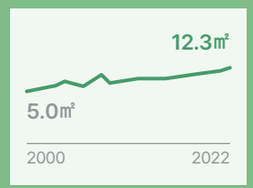
## 환경이란?

환경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환경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대기 및 수질오염), 간접적(기후변화)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람들은 물·자연과 같은 환경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점점 더 인정되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실제 선택(예,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은 기후변화와 가뭄 또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재산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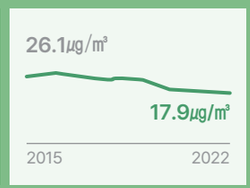
## 최근 추세

환경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의 전기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개선지표는 8개, 악화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농어촌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모두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까지는 악화로 나타나는 지표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아지면서 2020년부터 개선 추세이다.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보여주는 영역별 만족도 지표들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영역 중 기후변화 불안도만 소폭으로 증가하여 전기대비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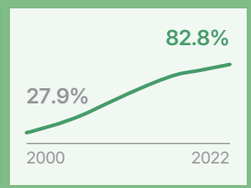
**1인당 도시공원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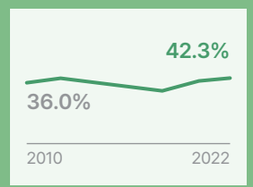

**미세먼지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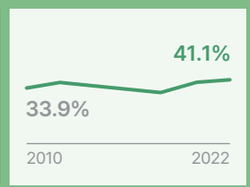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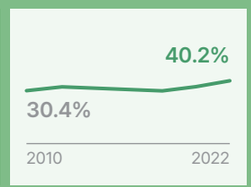

**대기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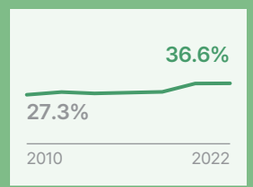

**수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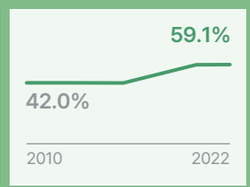

**토양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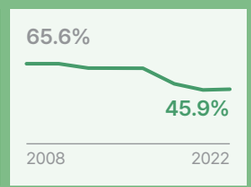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Urban park area per capita

**지표 정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

**측정 방법**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미집행면적) ÷ 도시지역 총인구

### 2022년 12.3㎡, 전년대비 0.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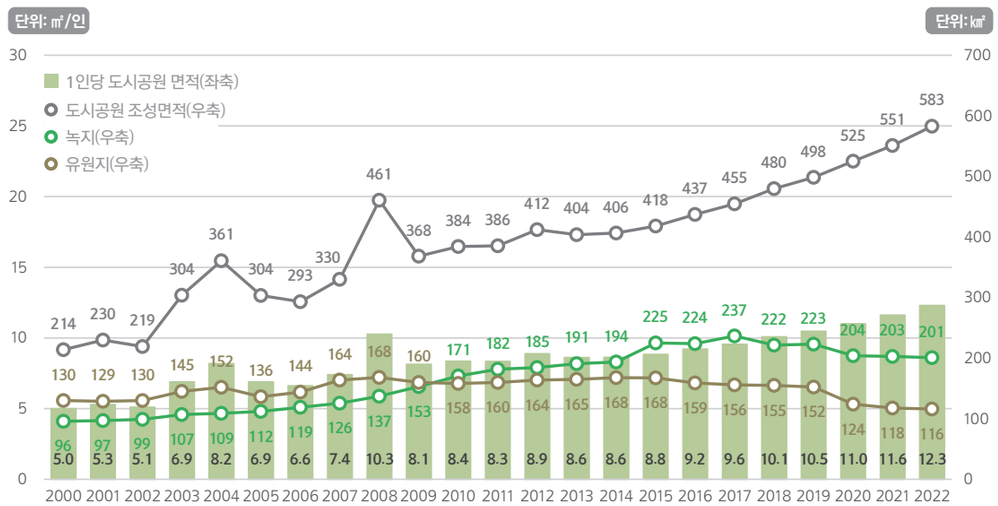
도시공원이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이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주지 내에 접근이 용이한 도시공원의 유무는 개인 삶의 질과 여가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2020년 11.6㎡에 비해 0.7㎡ 증가하였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00년 5.0㎡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2008년 10.3㎡까지 증가하였다. 2009년 8.1㎡로 감소한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5년까지 8㎡ 후반의 비슷한 면적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 9㎡대에 진입한 이후 증가 추세이다.

도시공원 조성면적의 실면적은 2000년 214㎢에서 2022년 58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녹지' 면적은 같은 기간 96㎢에서 201㎢로 증가하여 도시공원과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시설인 '유원지' 면적은 같은 기간 130㎢에서 116㎢로 감소하여 도시공원과 다르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 등의 면적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공원의 경우 결정면적(691㎢) 대비 조성면적(583㎢)이 84.4%이다.

**2000~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주 ① 도시공원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
② 녹지 :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③ 유원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시설
④ 조성면적=결정면적-미집행면적

# 미세먼지 농도($PM_{2.5}$)

Fine dust concentration level

**지표 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_{2.5}$, 지름 2.5㎛ 이하의 먼지)의 농도로 측정

**측정 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 2022년 17.9μg/m³, 전년보다 0.8μg/m³ 감소

대기오염은 인체 및 생태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문제이다. 여러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_{2.5}$)는 입자크기가 작아서 폐포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의 악화,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써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7개 시도의 미세먼지 농도($PM_{2.5}$)를 인구가중평균하여 합산한 값은 2022년 17.9μg/m³로 전년대비 0.8μg/m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1μg/m³에서 2019년 23.6μg/m³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차량 이용이 감소하고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지역별 편차도 크게 줄어 경기, 충북, 충남 지역이 20μg/m³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인천과 전북 지역이 19μg/m³, 서울과 세종이 18μg/m³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전남과 제주는 14μg/m³, 부산과 강원, 경남 지역은 15μg/m³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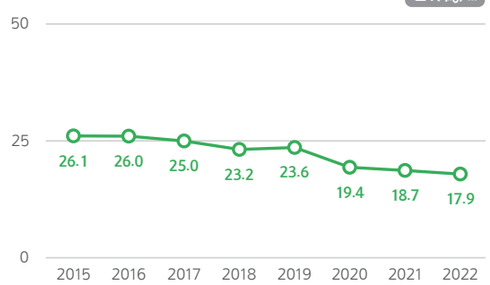
미세먼지 농도($PM_{2.5}$)는 농도기준에 따라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구분되는데 나쁨 및 매우 나쁨일수를 기록한 날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 지역에서 나쁨 및 매우 나쁨 일수가 40일로 많았으며, 충북과 충남은 각각 34일, 31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나 경기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6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전남(8일)과 경남(7일)도 10일 이하로 시도별 편차가 크다. 그러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부산, 대전, 울산, 강원, 경남을 제외하고는 '나쁨' 등급을 넘는 날이 줄어들었다.

OECD에서는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미세먼지 농도($PM_{2.5}$)를 보면, 우리나라가 2020년 25.9μg/m³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국가들 중 많은 나라가 15.0μg/m³ 이하인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μg/m³ 이상인 국가들은 38개국 중 칠레, 튀르키예 뿐이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은 미세먼지 농도가 8.0μg/m³ 이하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도 13.0μg/m³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아직 높은 수준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커서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015~2022년 미세먼지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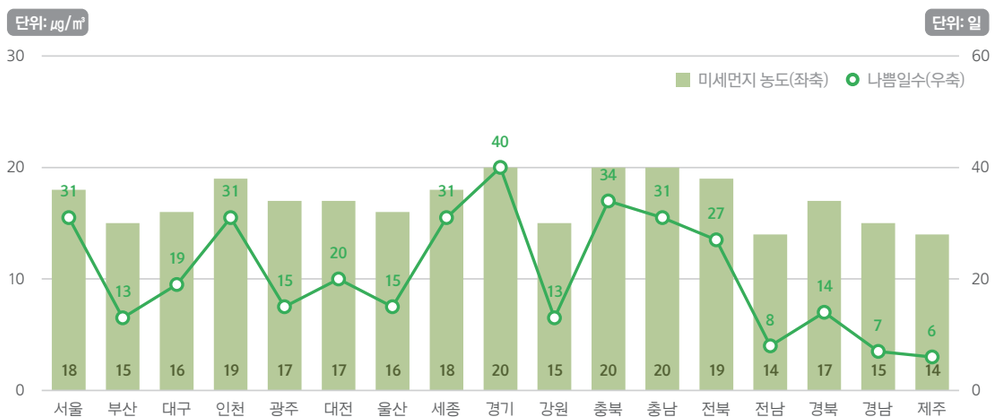
단위:μg/m³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 17개 시도 연평균 미세먼지($PM_{2.5}$)농도의 인구가중 평균값임.

**2022년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및 나쁨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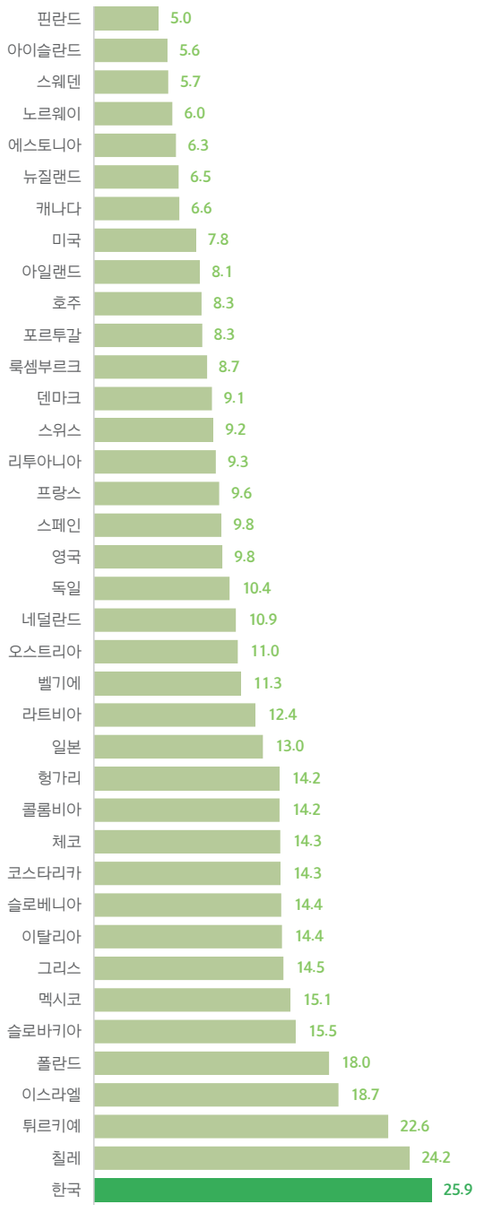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 ① 17개 시도 연평균 미세먼지($PM_{2.5}$)농도의 인구가중 평균값임.

② 나쁨일수는 $PM_{2.5}$ 나쁨(36~75μg/m³) 일수와 매우 나쁨(76μg/m³ 이상) 일수를 합한 값임.

**2020년 OECD 국가의 미세먼지 농도**

단위:μg/m³




출처 OECD, *OECD Environment Statistics*(2022년 12월 인출)

주 국가별 미세먼지($PM_{2.5}$)농도는 위성관측 자료와 화학수송모형(chemical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추정치임.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Waterworks supply rate in rural area

**지표 정의** 면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 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면 지역 급수인구 ÷ 면 지역 총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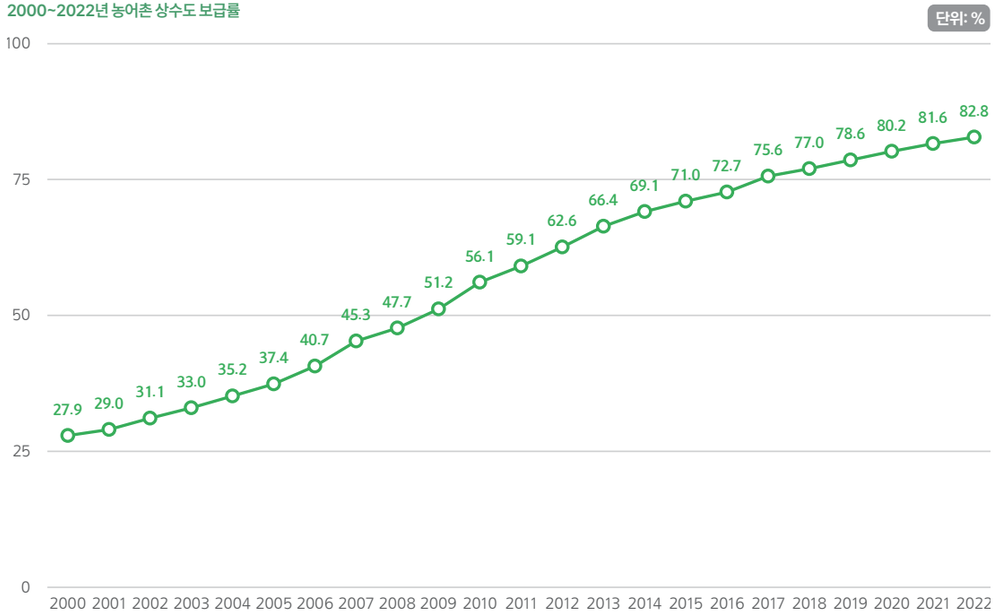
## 2022년 82.8%, 전년대비 1.2%p 증가

상수도는 보건위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과 소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상수도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편익시설이지만 상수도의 보급수준은 각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택구조,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지역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선진국 수준인 95% 이상의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하여 2022년 97.8%이다. 하지만 지역간 격차는 아직 남아 있다.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농어촌 지역은 그렇지 않다.

면지역에 속하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82.8%로 2021년 81.6%에서 1.2%p 증가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0년 27.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20년간 2000년 수치의 2.5배가 넘었다.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4.9%p가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증가폭이 컸으며, 최근에는 2%p 이내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지역(99.7%)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000~2022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주 ① 면 지역 상수도보급률임.

② 급수인구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



# 대기질 만족도

Air quality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대기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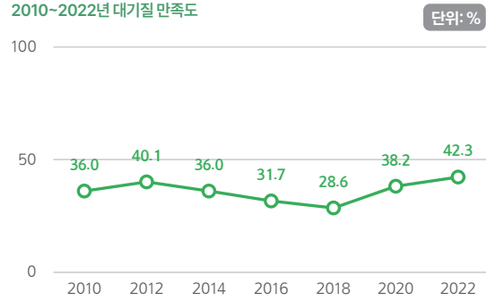
## 2022년 42.3%, 2020년보다 4.1%p 증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살펴보았다.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체감은 낮은 편인데, 이는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환경분야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40.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2014년보다 4.3%p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38.2%로 2018년 28.6%보다 무려 9.6%p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도 42.3%로 4.1%p 증가하여 다른 환경분야(수질, 토양환경, 소음)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기질 만족도의 개선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질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의 체감도 같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질 만족도는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여 2022년 농촌 지역의 대기질 만족도는 57.4%로 도시지역(39.1%)에 비해 높다. 도시와 농촌 간의 대기질 만족도는 2018년까지 2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의 만족도 차이는 2010년 30.0%p에서 2022년 18.3%p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강원 지역이 67.5%로 대기질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 전남에서 58~60%로 높다. 반면, 인천이 26.8%로 대기질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서울(33.8%), 울산(37.7%)에서 낮은 편이다. 2020년과 비교해 보면 대구, 세종, 충북에서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대기질 만족도가 높은 편인 전남과 제주에서는 2020년에 비해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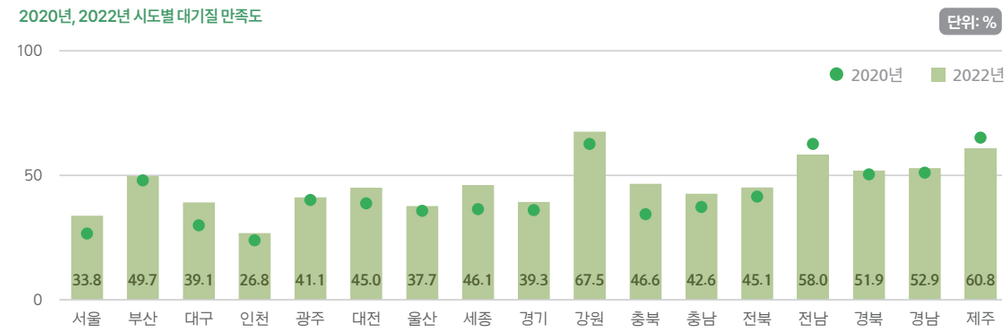
2010~2022년 대기질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시도별 대기질 만족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수질 만족도

Water quality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수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수질)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41.1%, 2020년보다 3.4%p 증가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수질은 먹는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기환경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과 연관되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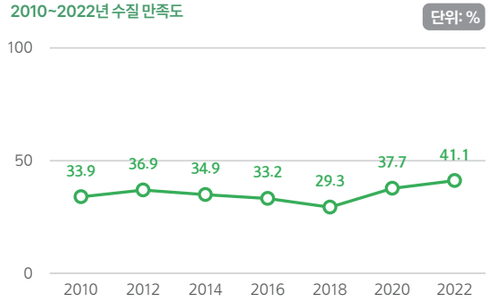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 41.1%로 2020년 37.7%보다 3.4%p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기질 만족도(42.3%)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대기질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33.9%에서 2012년 36.9%로 증가한 이후 2014년 34.9%, 2016년 33.2%, 2018년 29.3%로 계속 낮아지다 최근 41.1%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폭이 대기질 만족도보다는 낮은 편이다.

수질 만족도는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 지역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 2022년 농촌 지역의 수질 만족도는 51.0%로 도시 지역(38.9%)에 비해 12.1%p 높다.

17개 시도별로 수질 만족도를 보면 강원 지역이 55.1%로 가장 높고, 경남, 전남에서 52% 이상으로 높다. 반면, 인천은 25.7%로 수질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지역에서도 수질 만족도가 40% 이하로 낮게 나타나 대기질 만족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세종의 수질 만족도는 50.8%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수질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충북 지역이 2020년에 비해 8.2%p가 증가하였다. 반면 강원, 전남, 제주지역은 2020년에 비해 수질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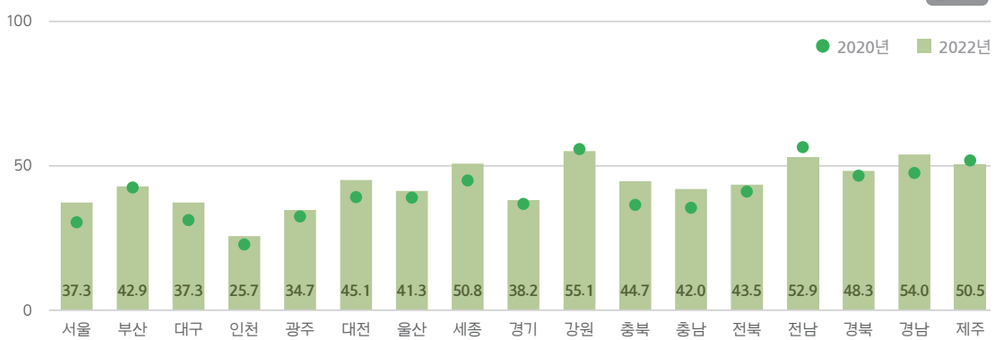
**2010~2022년 수질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시도별 수질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토양환경 만족도

Soil quality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토양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40.2%, 2020년보다 3.5%p 증가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토양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 40.2%로 2020년에 비해 3.5%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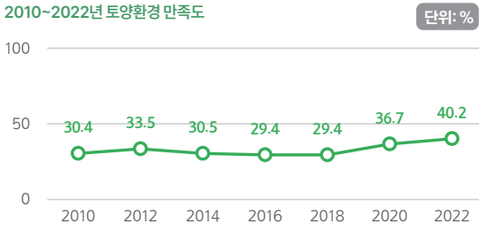
토양환경 만족도는 수질 만족도(41.1%)나 대기질 만족도(42.3%)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토양환경은 대기나 수질에 비해 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 수준은 비슷하다.

토양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30.4%에서 2012년 33.5%로 증가한 이후, 2014년 30.5%, 2018년 29.4%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36.7%, 2022년 40.2%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도시(동부) 지역(38.3%)보다 농촌(읍면부) 지역(49.4%)의 토양환경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도시 지역에서는 2018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 최근 크게 증가한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2012년 54.8%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증가하였다.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대기질, 수질, 토양환경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세 만족도가 모두 비슷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대기질 만족도가 가장 높고, 토양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는 농촌 지역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토양에 대한 체감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짐작된다.

17개 시도별로 토양환경 만족도를 보면, 강원에서 54.9%로 가장 높고, 세종도 51.8%로 높은 편이다. 반면, 인천의 토양환경 만족도는 26.7%로 가장 낮고,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이 4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서울과 대전의 토양환경 만족도가 6%p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남은 2020년에 비해 6.8%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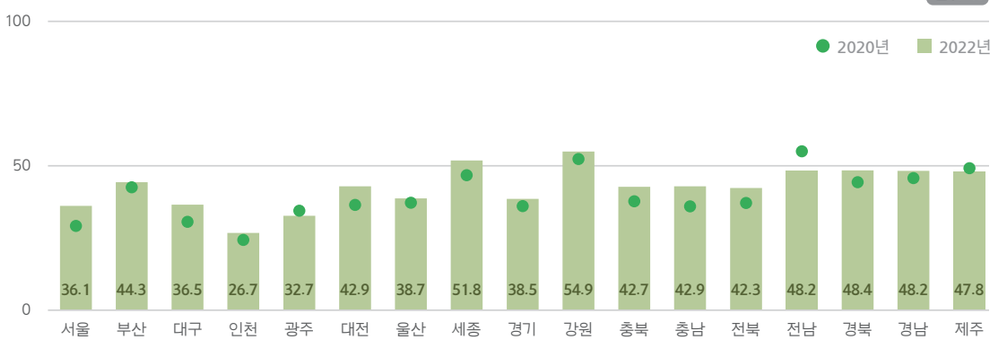
**2010~2022년 토양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시도별 토양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소음 만족도

Noise level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소음공해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진동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36.6%, 2020년보다 0.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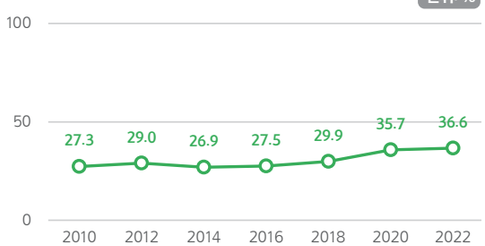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소음에 대한 체감도는 최근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도로변이나 전동차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음 만족도는 2022년 36.6%로 2020년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소음 만족도는 2010년 27.3%에서 큰 변화없이 26~29% 내외였으나 다른 환경분야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35.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기질이나 수질 만족도 보다는 증가폭이 적은 편이다.

소음 만족도는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동부) 지역(33.6%)에 비해 농촌(읍면부) 지역(51.0%)에서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도시 지역은 23%대에서 2022년 33.6%로 증가한 반면, 농촌 지역은 45~5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다른 생활환경 분야에 비해서 체감만족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17개 시도별로 소음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강원이 53.2%로 높고, 전남도 50.1%로 높은 편이다. 인천이 26.5%로 가장 낮으며, 대구, 광주도 30% 정도로 소음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반면 광역시 중 세종은 45.5%로 강원, 전남, 경북 다음으로 소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지역별로 증감폭이 다양하나, 제주의 소음 만족도는 9.2%p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전북은 2020년에 비해 6.1%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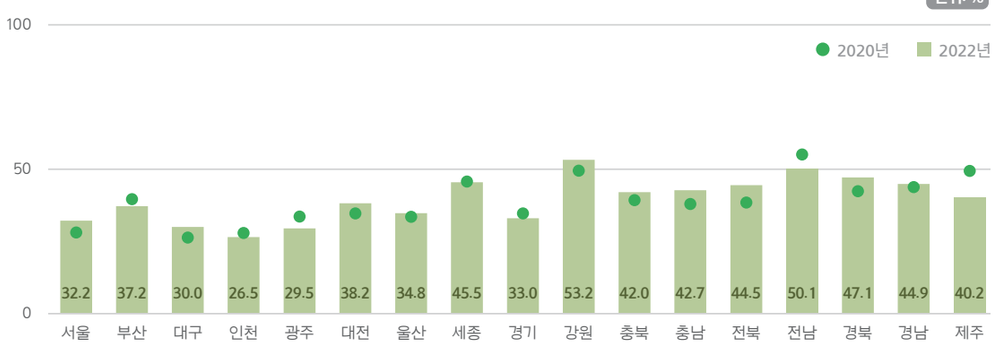
**2010~2022년 소음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시도별 소음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녹지환경 만족도

Green environment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산, 공원 등)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59.1%, 2020년보다 0.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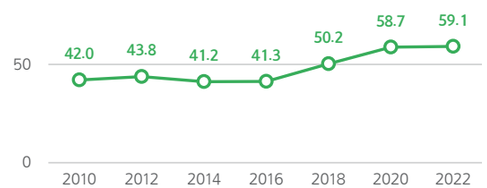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녹지환경은 살고 있는 지역의 산이나 공원 등 자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도시공원과 같이 개인들의 여가생활 향유와도 연관되어 있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 59.1%로 2020년 58.7%에서 0.4%p 증가하였다. 2016년까지는 42%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 50.2%, 2020년 58.7%로 최근 증가 추세이다.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의 만족도가 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최근에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 또한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동부) 지역에 비해 농촌(읍면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2년 기준 농촌 지역의 만족도는 68.7%이고, 도시 지역의 만족도는 57.1%이다. 도시 지역의 녹지환경 만족도는 2010년 37.8%에서 2016년까지 큰 변화없이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 2018년에 7.5%p, 2020년 9.0%p가 증가하였다. 녹지환경 만족도는 다른 생활환경 분야에 비해 도시와 농촌 간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적은 분야로 2022년 11.6%p이다.

17개 시도별로 녹지환경 만족도를 보면 강원 지역이 74.2%로 가장 높고, 전남과 세종도 각각 71.0%, 69.0%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 개발된 도시인 만큼 세종 지역에서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인천 지역의 만족도는 46.7%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 광주나 대구보다도 6%p 이상 낮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제주의 녹지환경 만족도가 8.9%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대전은 2020년보다 5.2%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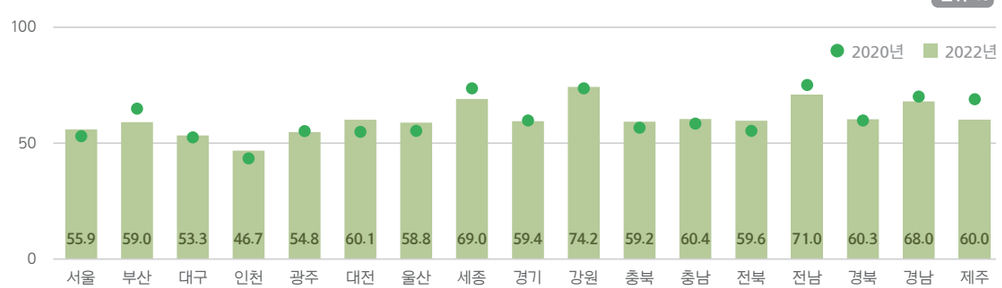
**2010~2022년 녹지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시도별 녹지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기후변화 불안도

Climate change recognition

**지표 정의** 기후변화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기후변화(폭염, 홍수 등) 문제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 또는 '약간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45.9%, 2020년보다 0.5%p 증가

기후변화는 전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정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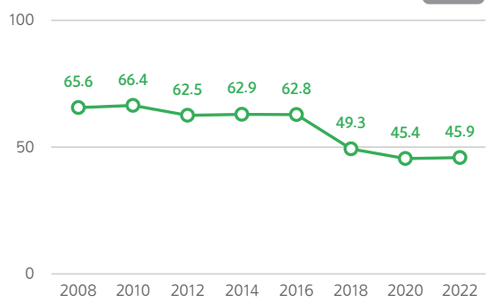
2022년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 정도는 45.9%로 2020년 45.4%에서 0.5%p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65.6%에서 2012년 62.5%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에 49.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소폭 증가하였다.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 지역 간의 기후변화 불안 정도에 대한 큰 차이는 없으나 도시 지역이 46.5%, 농촌 지역이 42.8%로 도시 지역에서 불안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42.5%)보다 여자(49.3%)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2년 이후 약 6~9%p 정도 여자가 지속적으로 남자보다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기후변화 불안도가 50% 이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47.6%로 높은 편이다. 13~19세는 41.0%, 60세 이상은 41.7%로 낮은 편이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20대 이하 연령에서 기후변화 불안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2008~2022년 기후변화 불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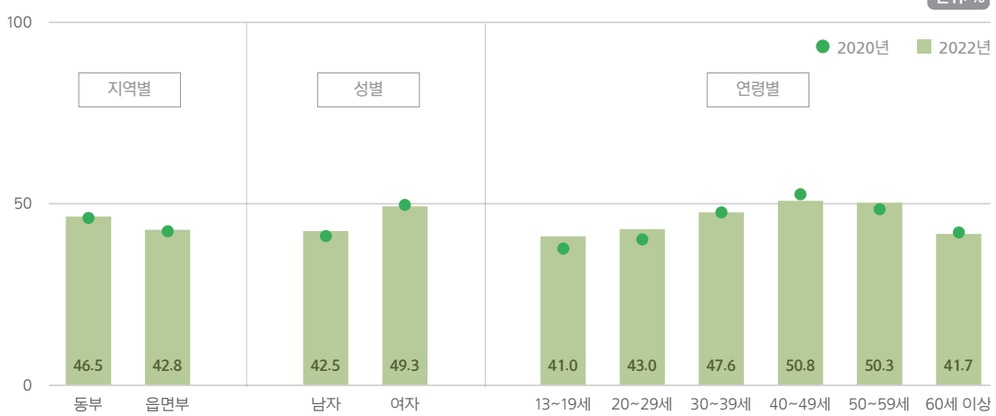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지역, 성, 연령별 기후변화 불안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09 안전

Saf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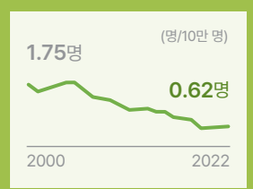
## 안전이란?

안전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 주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반으로 안전을 "각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을 위험에 빠트리는 모든 외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Stiglitz et al., 2009)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전 영역은 대부분 범죄와 사법체계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삶의 질 지표에서는 범죄 이외에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위험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사고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 최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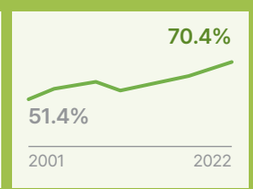
안전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는 4개로 나타났다. 범죄관련 지표인 가해에 의한 사망률과 야간보행 안전도는 개선된 반면, 범죄피해율(2020년 기준)은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를 보여주는 지표 중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개선된 반면, 산재사망률, 화재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악화되었다. 대표적인 취약집단 중 아동의 안전환경을 보여주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이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개선되었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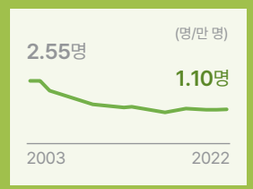



범죄피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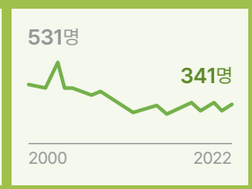
야간보행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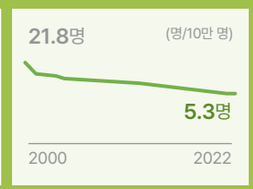

산재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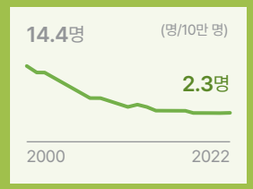

화재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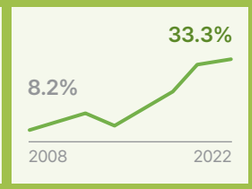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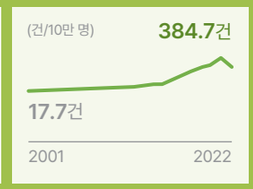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가해에 의한 사망률

Homicide rate

**지표 정의** 인구 10만 명당 타살 사망자수

**측정 방법** {가해(타살)에 의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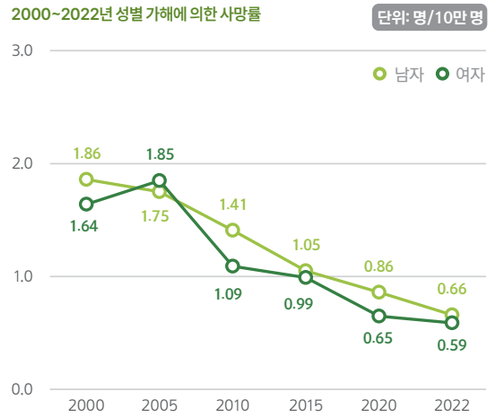
### 2022년 10만 명당 0.62명, 전년대비 0.07명 감소

타인의 가해에 의한 사망, 즉 타살은 범죄피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OECD에서 작성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의 24개 지표 중 하나로, 안전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이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000년대 초반 인구 10만 명당 1.8명 정도에서 2005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인구 10만 명당 0.85명으로 1명 이하로 낮아진 이후 2022년에는 0.62명으로, 2021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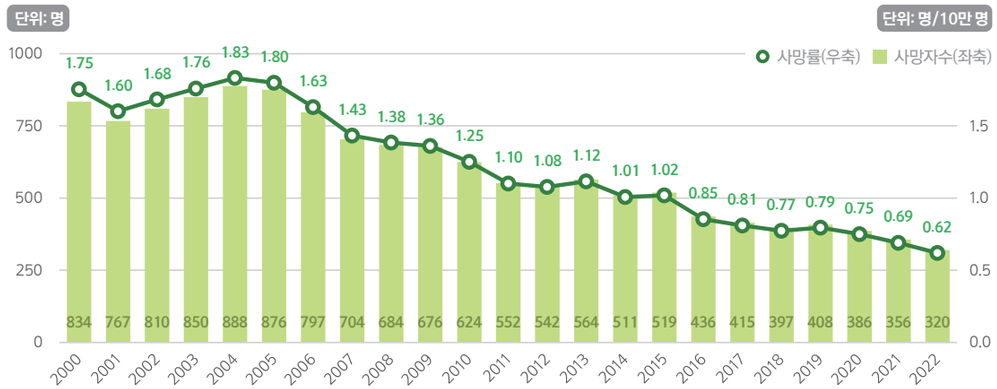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86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0.66명을 기록하였다. 여자는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64명에서 2005년 1.8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점차 감소하여 2022년 0.59명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감소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14년 이후로는 성별에 따른 차이없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2017년 이후 0.8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21년 0.74명, 2022년 0.66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2000~2022년 성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0~2022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범죄피해율

Crime victimization rate

**지표 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 발생건수

**측정 방법** {범죄피해건수(추정) ÷ 14세 이상 인구수}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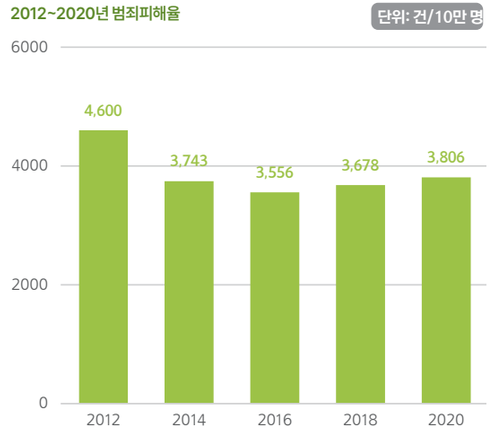
## 2020년 10만 명당 3,806건, 2018년보다 증가

범죄발생은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사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이다.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이 인지하고 처리한 사건들을 집계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어도 사법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되어도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공식 범죄통계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숨은 범죄'의 문제가 생겨난다. 표본조사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집되는 개인들의 범죄피해 자료는 개인들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조사하여 '숨은 범죄'를 파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로 개인들의 범죄피해율을 추정해보면, 2012년 인구 10만 명당 4,600건에서 2016년 3,556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에는 3,678건, 2020년에는 3,80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와 재산범죄 피해로 나누어서 보면, 피해율 자체는 재산범죄가 압도적으로 높다. 재산범죄의 경우 2012년 이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폭력범죄는 2012년 인구 10만 명당 768건에서 2014년 400건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8년 566건, 2020년 87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2~2020년 범죄피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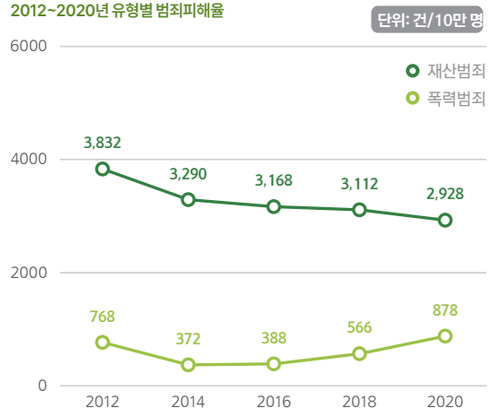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①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한 값임.

② 2020년 기준 조사에서 범죄피해 항목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 시계열 분석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

2012~2020년 유형별 범죄피해율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①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한 값임.

② 2020년 기준 조사에서 범죄피해 항목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 시계열 분석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



# 야간보행 안전도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지표 정의** 야간보행 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70.4%, 2020년보다 3.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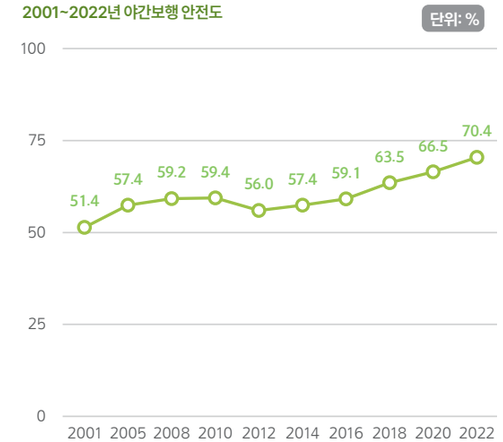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은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인 '야간보행 안전도'는 집 근처에서 야간 보행 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로 측정된다. 이 지표는 안전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 OECD BLI에서도 이 지표를 '가해에 의한 사망률'과 함께 안전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야간 보행 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항목이 일부 변경되어 2018년까지는 집 근처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로 2001년 51.4%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를 묻는 것(4점 척도)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증가 추세와 동일하게 2018년보다 증가하여 66.5%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70.4%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보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3 정도이다.

야간보행 안전도는 남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안전하다는 응답이 여자는 56.0%로 남자(84.9%)보다 28.9%p 낮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읍면부) 지역이 도시(동부) 지역보다 일관되게 높지만 그 차이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2001년 도시와 농촌의 야간보행 안전도는 각각 49.0%, 60.9%로 10%p 이상 차이가 났지만, 2022년에는 각각 70.1%, 71.6%로 도시 지역에서의 야간보행 안전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보면 68~71% 사이로 큰 차이가 없으며, 2020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30대 이하에서 야간보행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다.

2001~2022년 야간보행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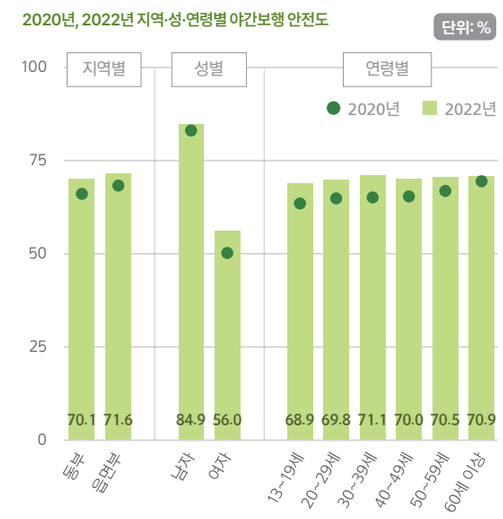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① 2018년까지는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며, 2020년부터는 밤에 혼자 걸을때 안전한지(4점 척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② 2010년까지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0년, 2022년 지역·성·연령별 야간보행 안전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산재사망률

Industrial accident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수

**측정 방법** (산재 사망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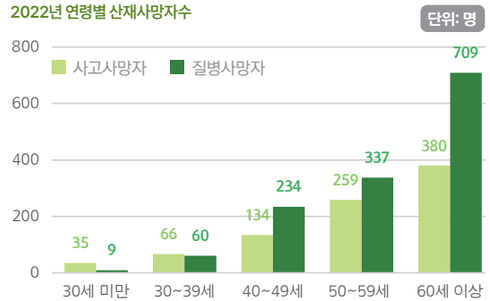
## 2022년 근로자 1만 명당 1.10명, 전년대비 0.03명 증가

산업재해는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측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의 안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 산업재해의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통계에 포착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고가 있고, 누락 정도가 국가 또는 시기마다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가 바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이다. 산재사망률이란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한 재해 사망자의 비율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로 계산된다.

2022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223명으로 2021년 2,080명보다 143명 증가하였으며, 산재사망률도 근로자 1만 명당 1.10명으로 2021년 1.07명보다 증가하였다. 산재사망률은 2003년 근로자 1만 명당 2.55명에서 2010년 1.36명, 2016년 0.9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 이후로는 근로자 1만 명당 1명 정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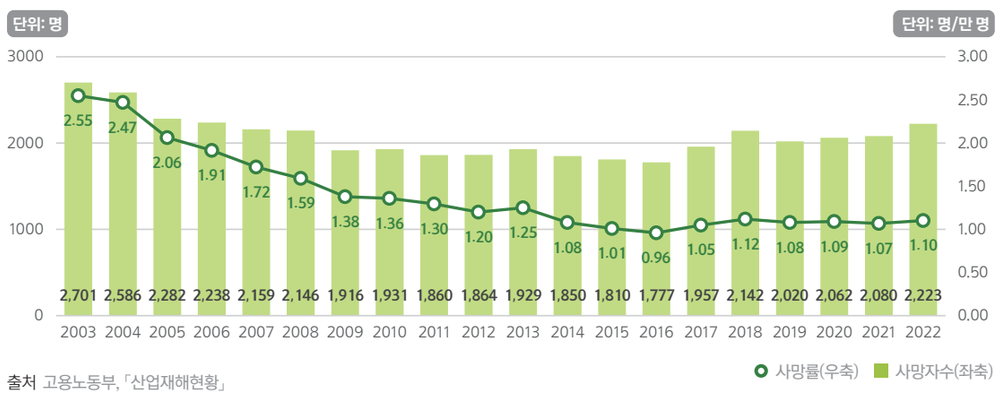
산재사망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60세 이상에서 산재사망자수는 1,089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 중 49.0%이다. 산재사망을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하여 보면, 질병 뿐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또한 50대와 60대에서 더 높아 전체 사고사망자 중 50대는 29.6%, 60대는 43.5%로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작업환경에서 사고 및 사망이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2022년 연령별 산재사망자수**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2003~2022년 산재사망률**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주 ①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

②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 포함)



# 화재 사망자수

Number of fire fatalities

**지표 정의**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

**측정 방법**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로 산출

## 2022년 341명, 전년대비 65명 증가

화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사고발생시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 등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이다. 화재는 예방과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그 사회의 화재안전 수준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2년 341명으로 2021년보다 65명 증가하였고, 화재 발생건수는 2021년 36,267건에서 2022년 40,113건으로 증가하였다.

화재 사망자수는 2003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2009년까지는 매년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연간 300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2015년 화재 사망자수는 253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화재 발생건수는 2000년 34,844건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2007년 국가화재분류체계 도입에 따라 47,88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까지 4만 건 이상이었다. 2021년 36,267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40,113건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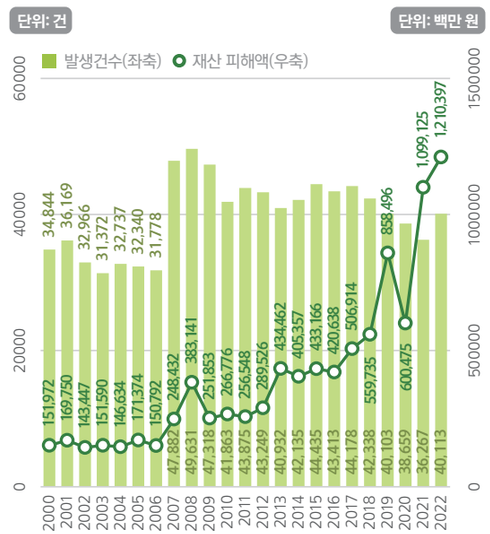
화재 발생건수는 2000년 이후 더 증가하였지만 2000년에서 2022년까지 화재 사망자수는 190명 감소하여 과거보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건축물의 대형화 및 복합화 등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로 화재발생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피해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1년의 재산피해액은 1조 991억 원으로 2020년 6,004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에도 1조 2,10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00~2022년 화재 사망자수**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2000~2022년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Road traffic accident fatality rate

**지표 정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측정 방법**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

## 2022년 인구 10만 명당 5.3명, 전년대비 0.3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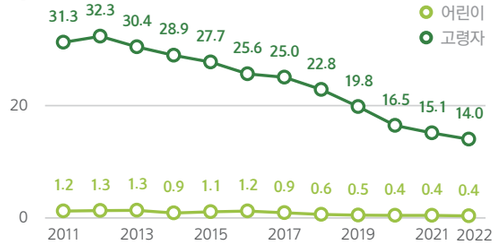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거리 보행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21.8명에서 2010년 11.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2010년 이후 다시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3명으로 2021년보다는 0.3명 감소하였다.

반면 도로교통사고 건수는 2000년 29만 481건에서 2004년 22만 755건으로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되어 있었으나, 2022년 20만 건 미만인 19만 6,836건으로 낮아져 최근 감소 추세이다.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폭이 사망자수만큼 크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자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22년 1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5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4.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들은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어린이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1년 이후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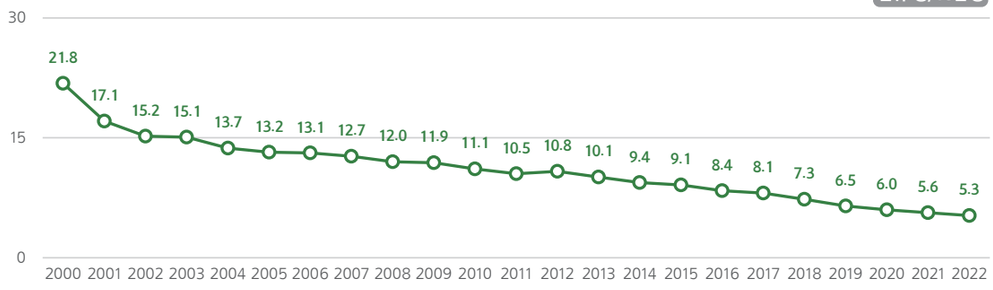
**2011~2022년 어린이 및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 명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주 어린이는 12세 이하, 고령자는 65세 이상임.

**2000~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 명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주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Child mortality rate from safety accidents

**지표 정의**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측정 방법**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 2022년 10만 명당 2.3명, 전년대비 0.1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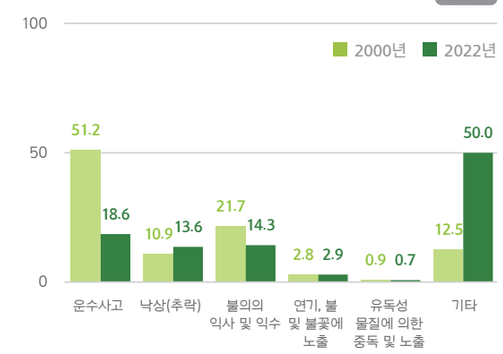
아동은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안전사고(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에 노출되기 더 쉽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사회의 안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와 함께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 사회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이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14세 이하 아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2년 140명으로,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아동 인구 10만 명당)은 2000년 14.4명에서 2010년 4.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10만 명당 2~3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되고 있다.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로 보면 2000년 1,434명에서 2010년 387명으로 1/3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20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감소폭이 줄었으며, 2022년에는 140명으로 전년대비 1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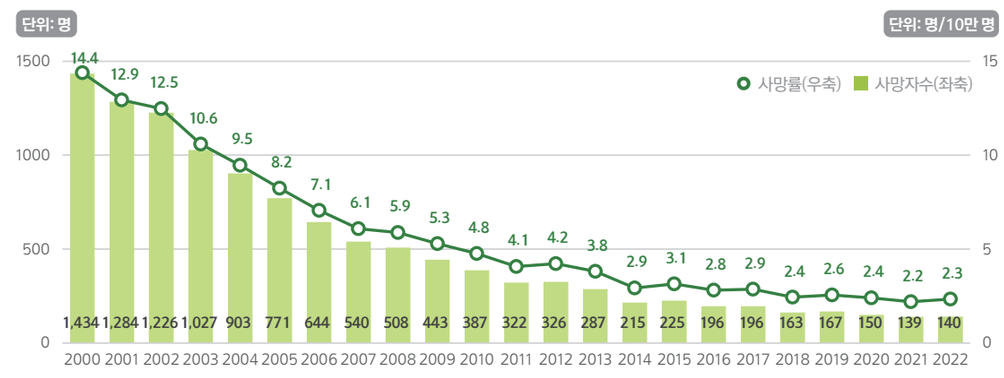
안전사고의 하위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운수사고와 추락, 익사로 인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2000년과 비교해보면 운수사고와 익사로 인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사망의 외인 중에서도 기타로 분류된 항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2022년 안전사고별 사망 비율** 단위: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0~2022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주 안전사고 범위 :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 포함(사망의 외인 중 자살과 타살을 제외한 사고사)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Perception toward societal safety

**지표 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33.3%, 2020년보다 1.5%p 증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의 파악이 필요하다. 실제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이 감소하였어도 실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해 체감하는 불안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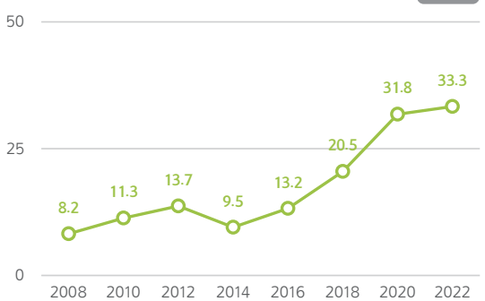
2022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33.3%로, 2020년 31.8%보다 1.5%p 증가하였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2008년 8.2%에서 2012년 13.7%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9.5%로 감소하였다. 2014년의 감소는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16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7.0%로 여자(29.7%)보다 7.3%p 높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6.8%로 가장 낮고, 13~19세가 40.9%로 안전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시계열 변화를 보면 13~19세는 일관되게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안전하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17개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대전에서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9.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울산, 세종, 서울 순으로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인 광역시 중심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며, 전북과 제주는 28.3%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광주(28.5%)도 낮은 편이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광주(-8.5%p), 세종(-6.8%p), 제주(-5.9%p)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이 아닌 구체적인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전하다는 응답은 항목별로 변화폭이 상이하다. 국가안보가 42.6%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먹거리나 식량안보도 40%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식량안보의 경우 2020년 51.3%에 비해 10.4%p 감소한 40.9%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16.2%로 매우 낮았으며, 교통사고, 화재, 정보보안, 신종질병, 범죄 등도 안전하다는 비율이 27%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항목은 개인정보유출이 53.2%로 가장 높고, 신종질병 또한 48.5%로 2020년(52.9%)보다는 감소하였지만, 다른 항목이 4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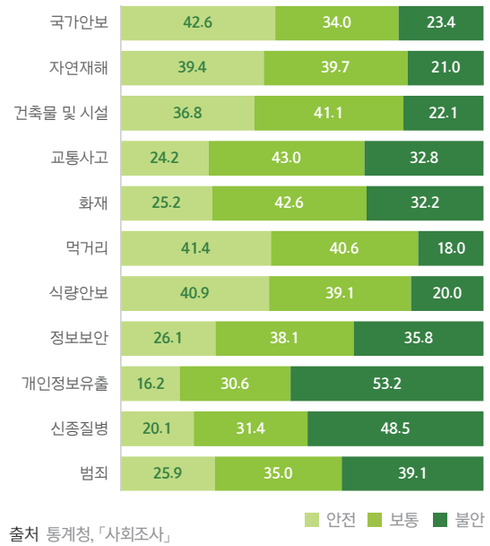
**2008~2022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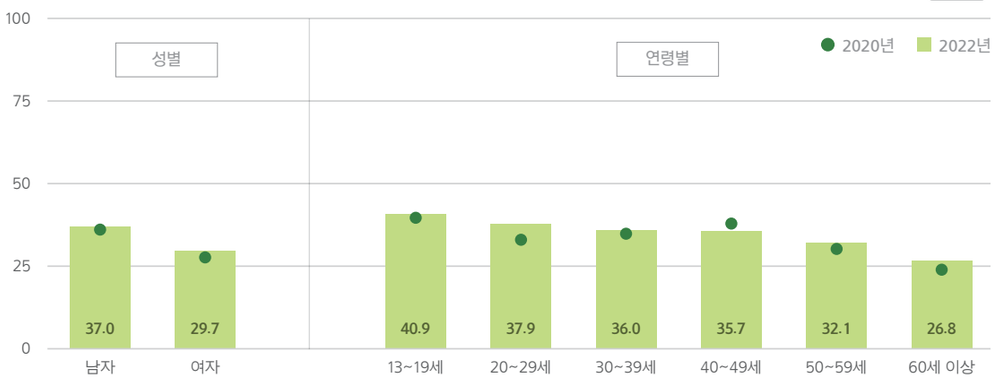
**2022년 세부항목별 안전과 불안에 대한 인식**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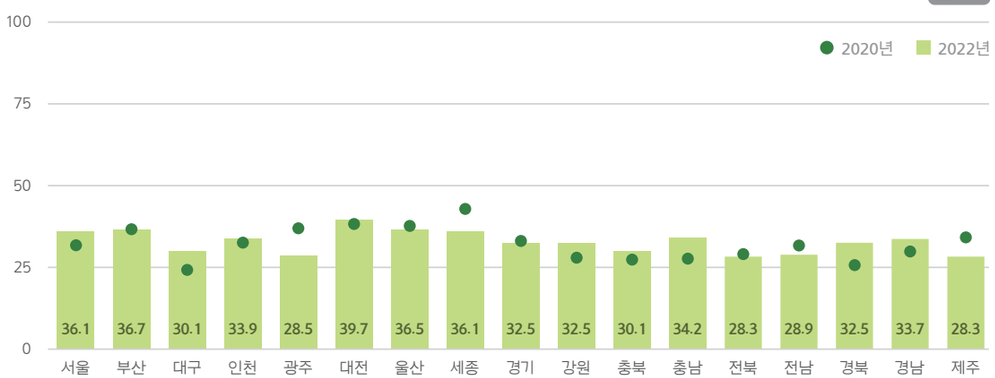
주 안전은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며, 불안은 '매우 안전하지 않음'과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020년, 2022년 성·연령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0년, 2022년 시도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Child abuse rate

**지표 정의**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아동인구 대비 건수

**측정 방법**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례 건수(최종 판정 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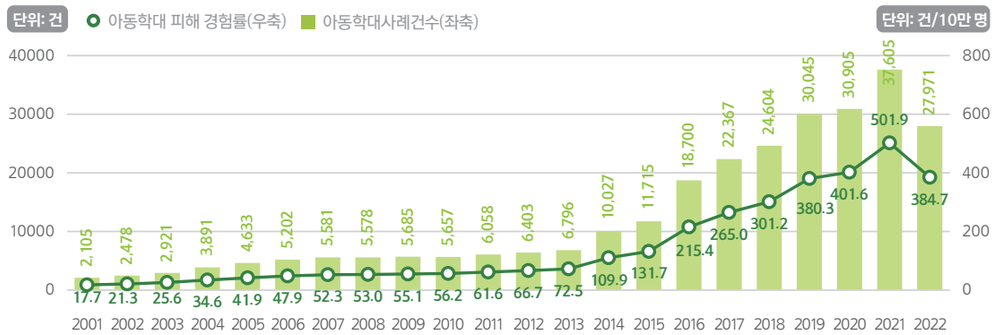
### 2022년 10만 명당 384.7건, 전년대비 117.2건 감소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가정 내에서의 학대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01년 아동 10만 명당 17.7건에서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건으로 전년대비 21.3건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0만 명당 501.9건으로 전년대비 100.3건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384.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80.3건)과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정 강화를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과거보다 피해아동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동학대를 보면 감춰진 사례들이 많고, 신고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1년 아동학대의 급격한 증가에는 2020년 말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등교중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뿐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01~2022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기준)」

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최종 학대 판단 건수임.



# 10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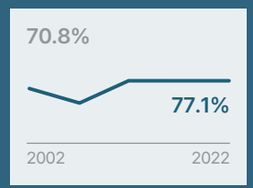
## 시민참여란?

집단 간 차이 또는 불평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정부 및 시장의 작동논리와 시민사회의 논리가 균형을 유지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개선된 여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제로써 "시민참여"를 선정하였다.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이에 대한 다수의 향유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집합적 차원의 사회의 질이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의 삶의 질로 뿌리내리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무와 권리, 정치참여, 신뢰를 포함하였다. 앞의 세 가지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구체적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며, 이것이 적절하게 작동한 결과 신뢰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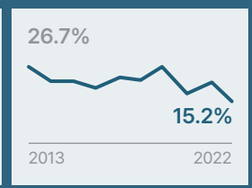
## 최근 추세

시민참여 영역의 7개 지표 중 전기대비 개선지표는 3개, 악화지표는 4개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이며, 시민의식은 2021년에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개선되었으나 이전 추세만큼 회복하지는 못 하였다. 정치적 역량감은 전년대비 감소폭이 크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방역대응,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였던 기관신뢰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대인신뢰도도 2021년 개선된 이후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보여주는 선거투표율 지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폭으로 감소하여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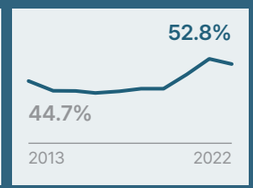
선거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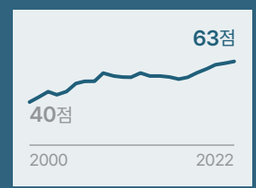

정치적 역량감




기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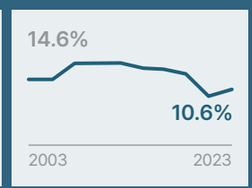



부패인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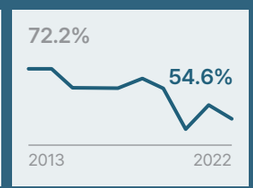



시민의식

자원봉사 참여율




대인신뢰도




# 선거투표율

Voter turnout rate

**지표 정의**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대통령선거 투표자수 ÷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 100

### 2022년 77.1%, 5년 전보다 0.1%p 감소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대표자의 선출이나 정치적 및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민의의 정치적 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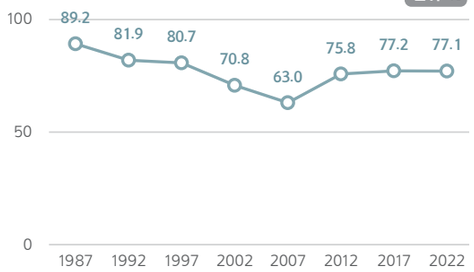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견해와 요구에 대해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이다.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는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63.0%까지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2007년 63.0%에서 2017년 77.2%까지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2022년은 77.1%로 2017년보다 0.1%p 감소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선거 후 실시하는 표본조사 결과인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2022년에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70%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60대(87.6%)와 70대(86.2%)가 높게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2017년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진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2017년보다 투표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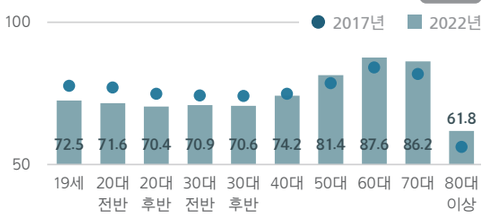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반면, 제주는 72.6%로 가장 낮고, 인천과 충북·충남도 75%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1987~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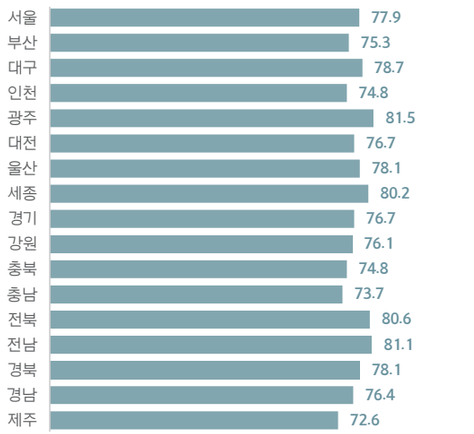
**2017년, 2022년 연령별 대통령 선거 투표율**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주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2022년 시도별 대통령 선거 투표율**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 정치적 역량감

Perception of political empowerment

**지표 정의**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

## 2022년 15.2%, 전년대비 6.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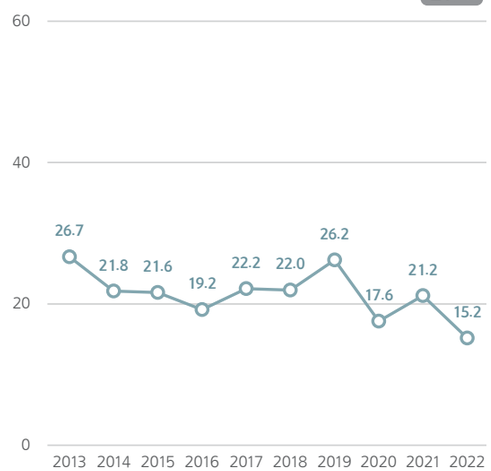
시민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치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 역량감이다. 정치참여는 시민이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질 때 높아지며, 정치적 역량감은 시민참여의 잠재적 수준을 보여준다.

정치적 역량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된다. 각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22년 15.2%로 전년보다 6.0%p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2013년 26.7%에서 감소하여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2년에는 15.2%로 2013년 이후 정치적 역량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보면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5.6%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는 14.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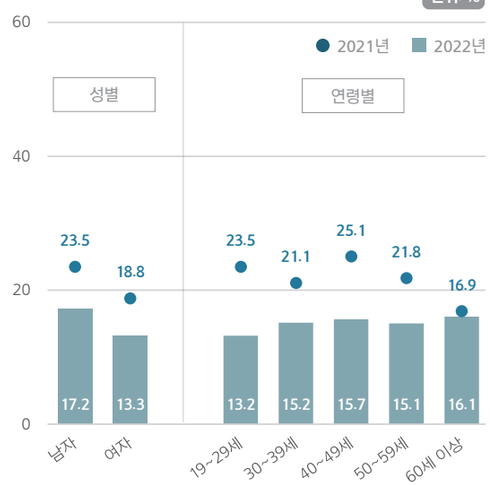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남자가 17.2%로 여자(13.3%)보다 3.9%p 높다. 연령별로 보면 2022년에는 60세 이상의 정치적 역량감이 16.1%로 상대적으로 높고, 19~29세(13.2%)를 제외하면 15% 정도이다. 2022년의 연령별 정치적 역량감은 2021년의 연령별 패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021년에 40~49세와 19~29세에서 정치적 역량감 가장 높고, 6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특징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연령에서 정치적 역량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19~29세는 10.3%p, 40~49세는 9.4%p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0.8%p 감소에 그쳤다.

**2013~2022년 정치적 역량감**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1년, 2022년 성·연령별 정치적 역량감**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기관신뢰도

Institutional trust

**지표 정의** 주요 기관과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16개 기관*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또는 '약간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 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

## 2022년 52.8%, 전년대비 2.6%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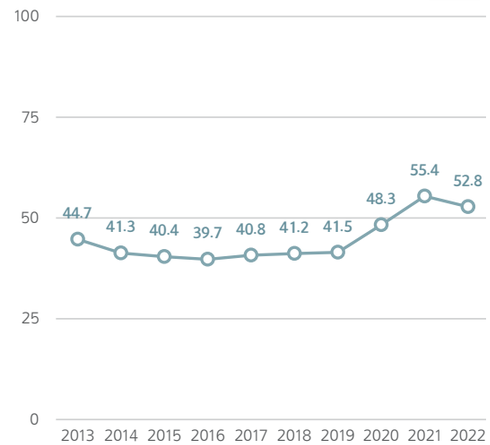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관신뢰도는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 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의 1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된다.

기관신뢰도는 2013년 44.7% 이후 감소하여 2019년까지 40% 전후의 값을 보였으나, 2020년에 48.3%, 2021년에는 55.4%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2년 52.8%로 소폭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의 증가 추세에는 코로나19의 정부대응 방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부기관별로 신뢰도를 보면 '의료계'가 76.4%로 신뢰도가 가장 높고, '교육계'도 67.7%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4.1%로 가장 낮으며 '노동조합'이 43.1%로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경우 다른 기관들이 대부분 5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34.4%에서 10.3%p 감소하여 다른 기관에서 비해 감소폭도 크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부처, 검찰, 경찰의 신뢰도가 2021년보다 5%p 이상 감소하였으며, 의료계는 전년대비 4.2%p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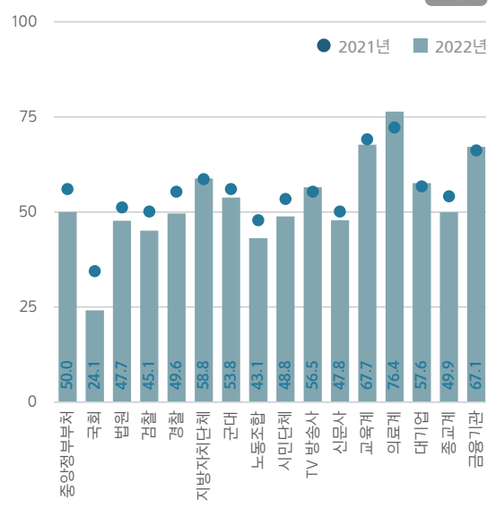
기관신뢰도는 여자가 54.0%로 남자(51.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60세 이상에서 55.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3~2022년 기관신뢰도**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1년, 2022년 기관별 신뢰도**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지표 정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

**측정 방법**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작성한 부패인식지수로 10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

## 2022년 63점, 180개국 중 31위

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주로 활용한다.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얼마나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알려준다.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운영과 성과도 좋아진다. UN에서 발간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요인 중 하나로 '부패'가 포함되는 만큼 사회의 부패정도는 삶의 질과 관련이 높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분 부패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해 작성된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즉 청렴도는 1995년 10점 만점 중 4.3점에서 점차 높아져 2008년 5.6점을 전후로 하여 개선이 정체되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이다.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부터 10점척도에서 100점척도로 변경되어 작성되어 2022년 부패인식지수는 63점으로 전년보다 1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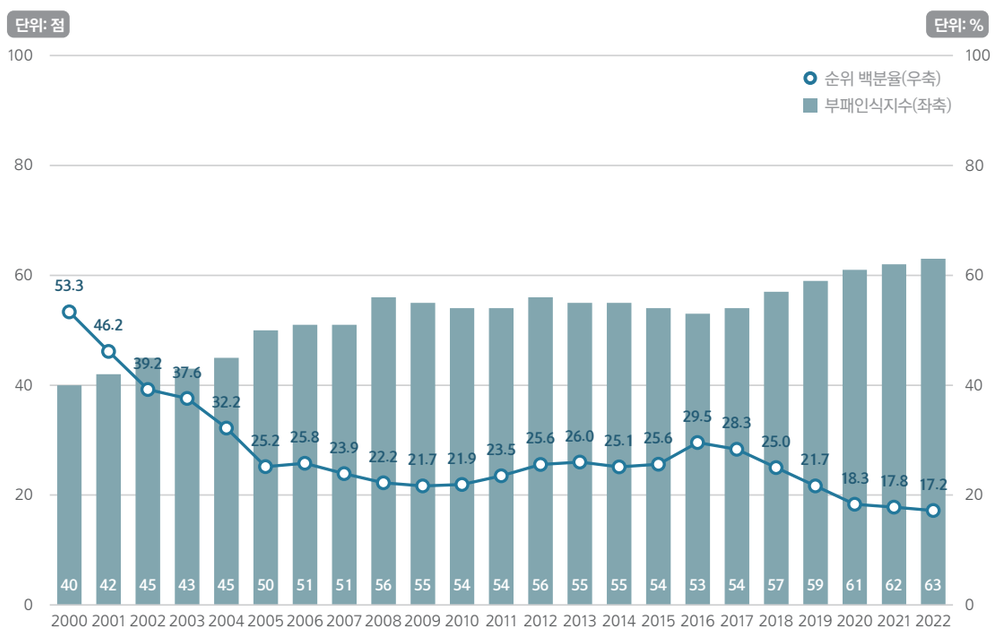
2022년에는 180개국 중 31위로 2021년(32위/180개국)보다 순위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절반 가량 국가(19개국)들의 부패인식지수가 70점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패인식지수와 순위 모두 개선되었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부패인식지수는 해마다 조사대상국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계 순위를 살피는 것보다는 전체 조사대상국 중 세계 순위의 백분율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00년 상위 53.3%에서 2009년 상위 21.7%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된 후 25%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추세였으나 2016년 29.5%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2년 17.2%로 부패인식지수의 국가별 순위가 상위 20% 이내로 상승하였다.

부패인식지수는 2022년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핀란드, 뉴질랜드가 8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56점), 그리스(52점), 튀르키예(36점), 멕시코(31점) 등 12개국이 60점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청렴도 변화를 살펴보면, 핀란드, 호주, 영국, 미국은 1995년에 비해 낮아졌고 일본과 한국은 높아졌다. 핀란드의 경우 1995년에 비해 청렴도가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꾸준히 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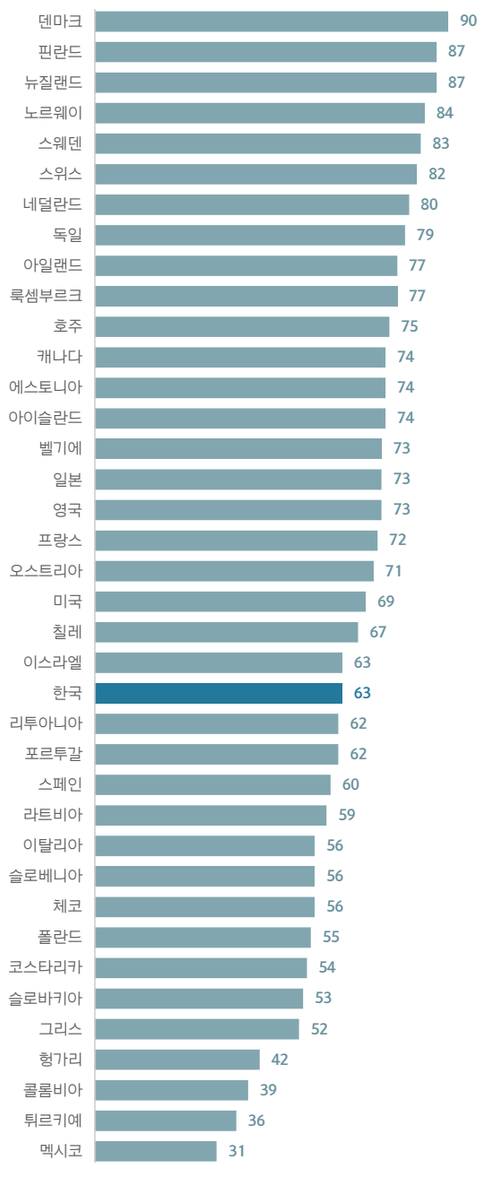
**2000~2022년 부패인식지수**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2」

주 ① 2012년 이후부터 10점 척도에서 100점 척도로 변경되었으며, 비교를 위해 2012년 이전 값은 100점 척도로 환산함.
② 순위 백분율은 조사대상국가를 연도별로 통일했을 때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냄.

**2022년 OECD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2*」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조사하는 자료로 월드뱅크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전문가들에게 각 국가별로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해 조사. 주요 질문 내용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정부예산 배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설명할 수 없는 특수공무비용이 존재하는가?", "공공재원에 대해 감사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한 내부 고발자, 언론인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등이 있음.

# 시민의식

Citizenship

**지표 정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개인의 의무와 관련된 8개 항목별 중요도 응답점수(7점 만점)의 산술평균한 값

## 2022년 5.56점, 전년대비 0.3점 증가

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거나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하는 시민권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이나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사회의 질 지표이다.

시민의식은 시민의 의무와 덕목을 보여주는 8개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로 측정되며,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②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③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④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⑤ 사회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⑥ 다른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⑦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⑧ 국가 위기시 기꺼이 군복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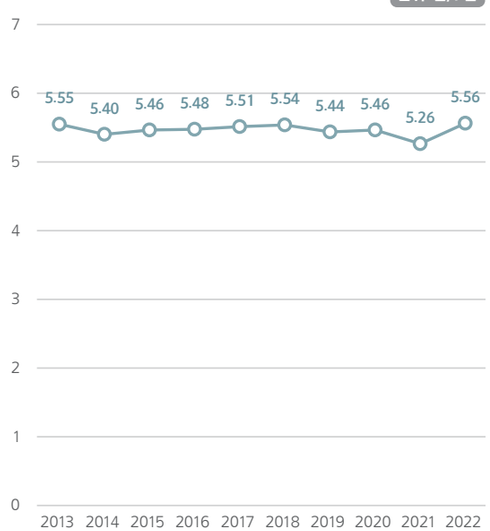
시민의식은 2022년 5.56점(7점 만점)으로 나타나 2021년에 5.26점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3년 5.55점에서 2014년 5.4점으로 감소한 이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투표 참여', '세금 납부'와 '법, 규칙 준수'가 6.0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회, 정치단체 활동'은 4.8점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서 모든 항목이 증가하였으나 '사회, 정치단체 활동'은 0.1점 증가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증가폭이 작다.

성별로는 남자가 5.59점, 여자가 5.56점으로 거의 비슷하며, 연령별로도 19~29세의 시민의식은 5.48점으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은 5.65점으로 높긴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항목별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나, '투표참여', '법, 규칙 준수'는 19~29세에서 각각 5.7점, 5.9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3~2022년 시민의식

단위: 점/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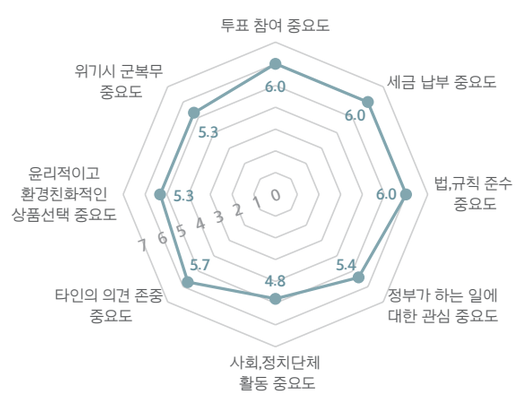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2년 항목별 시민의식

단위: 점/7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자원봉사 참여율

Voluntary work participation rate

**지표 정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 2023년 10.6%, 2021년보다 2.2%p 증가

자원봉사는 정부의 강제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이타주의의 발현이다. 자원봉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어 시민의식과 공공선이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이는 다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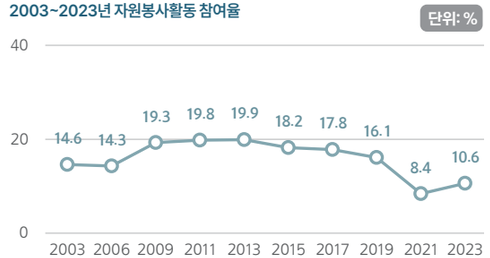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된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3년 14.6%에서 2009년 19.3%로 증가한 후 18~19% 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이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 간의 모임이나 방문 등이 제한됨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율이 8.4%로 2019년 16.1%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 2023년에는 10.6%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추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참여횟수를 보면 2023년의 평균 참여횟수는 9.3회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남자 10.1%, 여자 11.1%로 여자가 약간 높은 수준이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13~19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7.2%인 반면, 다른 연령에서 10% 내외의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20세 이상에서는 40대(11.1%), 50대(12.0%)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13~19세의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와 50대도 학력인구의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다.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졸업 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활동이 자발성에 의한 것보다는 교과과정이나 내신성적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를 보면 이와 반대로 나타나 13~19세에서 5.2회로 가장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참여횟수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 특히 60세 이상의 참여율은 30대 다음으로 낮으나, 참여횟수는 12.9회로 가장 높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기적인 활동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2003~202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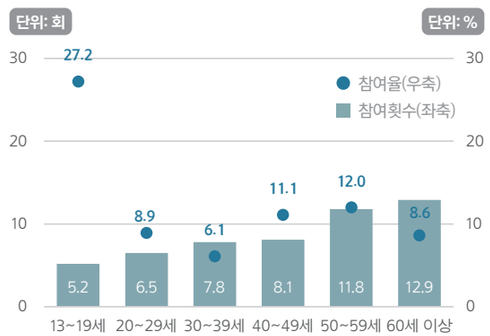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3년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 참여횟수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주 참여횟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임.

# 대인신뢰도

Interpersonal trust

**지표 정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54.6%, 전년대비 4.7%p 감소

대인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로 측정한다.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가 좁아진다. 뿐만 아니라 서로 불신하는 집단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거나 불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증대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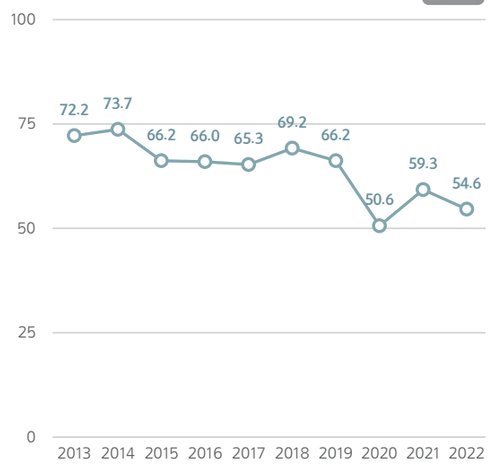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대인신뢰도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대인신뢰도는 2014년 73.7%에서 2017년 65.3%까지 떨어진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0년 50.6%로 급격히 감소(전년대비 -15.6%p)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들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타인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2020년 대인신뢰도의 급격한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졌지만 대인신뢰도는 코로나19 이전 만큼은 아니나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보여준다. 2021년 59.3%로 전년보다 8.7%p 증가하여 매우 큰 증가폭을 보였으나 2022년에 54.6%로 전년대비 4.7%p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대인신뢰도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별로는 농촌(읍면부) 지역의 대인신뢰도가 58.0%로 도시(동부) 지역(54.0%)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의 대인신뢰도가 50.7%로 가장 낮고, 60세 이상의 대인신뢰도는 57.4%로 높은 것을 보여준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30대를 제외한 연령에서 대인신뢰도가 감소하였으며, 19~29세의 경우 2021년 59.6%에서 2022년 50.7%로 8.9%p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13~2022년 대인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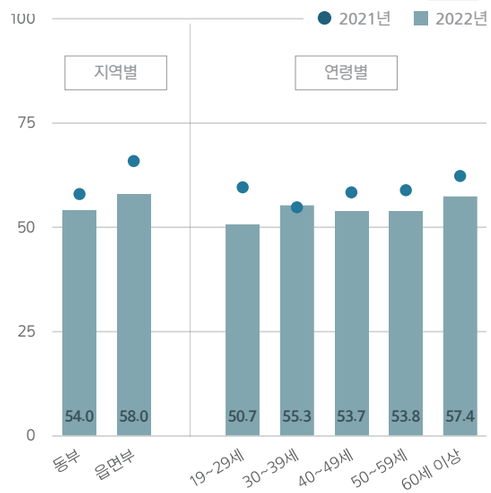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1년, 2022년 지역·연령별 대인신뢰도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11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 주관적 웰빙이란?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 특히 개인 수준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객관적인 지표들이 삶의 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들의 합은 개인이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주관적인 지표는 객관적인 측정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들을 담아주는 중요한 보완적인 측정 장치이면서 객관적 측정이 주관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인지적 요인은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개인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잣대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 전체 혹은 영역별 만족감을 평가한다. 정서적 요인은 일상의 정서적 경험으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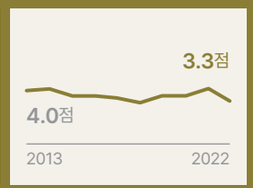
## 최근 추세

주관적 웰빙 영역에 포함되는 3개 지표의 전년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삶의 만족도와 부정정서는 개선된 반면, 긍정정서는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큰 변화를 경험한 이후인 2022년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2020년 정체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이며, 긍정정서는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기존 추세보다 크게 증가한 이후 2022년에는 동일한 수치를 보여준다. 부정정서의 경우 2014년 이후 개선 추세에서 2021년에 악화었으나 2022년에 개선되어 기존 추세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주관적 웰빙의 모든 지표들이 기존의 추세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정의**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

**측정 방법**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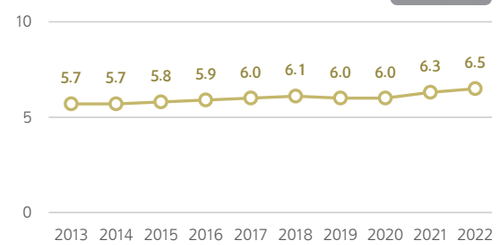
### 2022년 6.5점, 전년대비 0.2점 증가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11점 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도는 2022년 6.5점으로 2021년 6.3점에 비해 0.2점 증가하였다. 2013년 5.7점에서 2017년 6.0점으로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 2021년 6.3점, 2022년에 6.5점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일상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삶의 만족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남녀 모두 6.5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6.4점으로 낮고, 50대 이하에서는 6.5~6.6점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인 60세 이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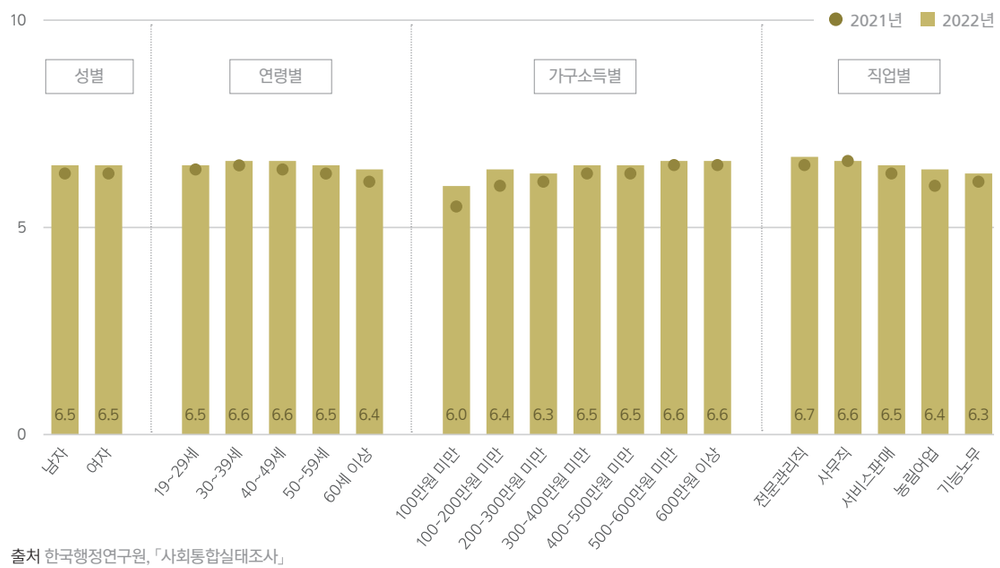
**2013~2022년 삶의 만족도**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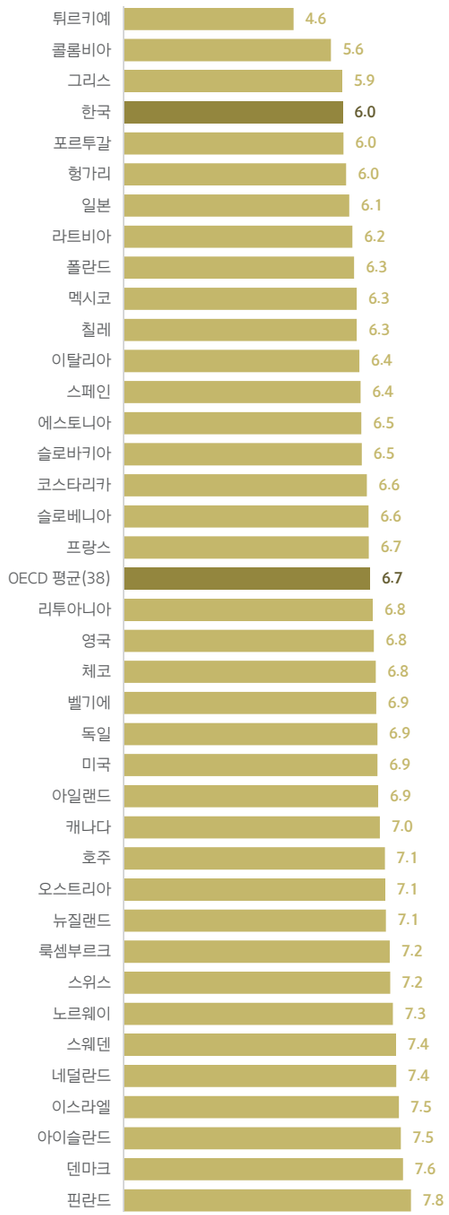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성·연령·가구소득·직업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2022년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10점




출처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3*」
주 ① 2020~2022년의 평균값임.
② 삶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0~10점 척도 평균 점수임.

2021년 6.1점에서 2022년 6.4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결과이다.

소득수준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6.0점인데 비해, 100~200만 원 미만에서는 6.4점으로 0.4점 더 높으며, 500만 원 이상은 6.6점으로 100만 원 미만에 비해 0.6점이 더 높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의 경우 전년대비 0.5점 증가, 100~200만 원 미만은 0.4점 증가하여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증가폭이 더 커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별 차이가 감소하였다. 직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각각 6.7점과 6.6점인데 비해, 기능노무직은 6.3점으로 가장 낮다. 소득수준과 직업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변수로 소득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60세 이상, 200만 원 미만 가구소득 계층, 농림어업직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OECD에서 작성되는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 중 하나이며,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활용되는 지표이다. 두 지표 모두 국가간 비교를 위해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갤럽월드폴 조사가 매년 진행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단년도 자료가 아닌 3개년도의 평균값으로 국제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2020~2022년에 5.95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74점 낮아 하위권으로 그리스, 포르투갈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은 6.13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반면, 핀란드는 7.8점으로 가장 높고,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7.5점 이상,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등도 7.0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3개국에 불과하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긍정정서

Positive emotions

**정의**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정서(행복)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

**측정 방법**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 2022년 6.7점, 전년과 동일

긍정정서는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긍정정서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제 얼마나 자주 '행복' 했는지로 측정된다.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정서(11점 척도)는 2022년 6.7점으로 2021년과 동일하다. '삶의 만족도' 지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긍정정서는 2014년 6.2점에서 2018년까지 매년 소폭 증가한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된 것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긍정정서는 남자가 6.7점, 여자가 6.8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6점으로 가장 낮고, 30~40대는 6.9점으로 가장 높아 연령별 차이가 크진 않으며, 삶의 만족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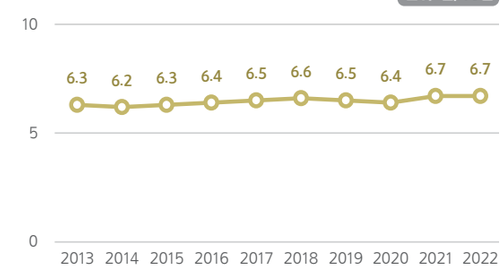
가구소득별로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더 높아 4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6.8점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6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6.9점으로 높다.

반면 100만 원 미만 집단은 6.3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0.4점 낮아 저소득층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200만 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소득수준별 차이는 감소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농림어업직에서 긍정정서가 6.9점으로 높은 반면, 기능노무직에서 6.5점으로 가장 낮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긍정정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40~49세,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농림어업직에서 긍정정서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2013~2022년 긍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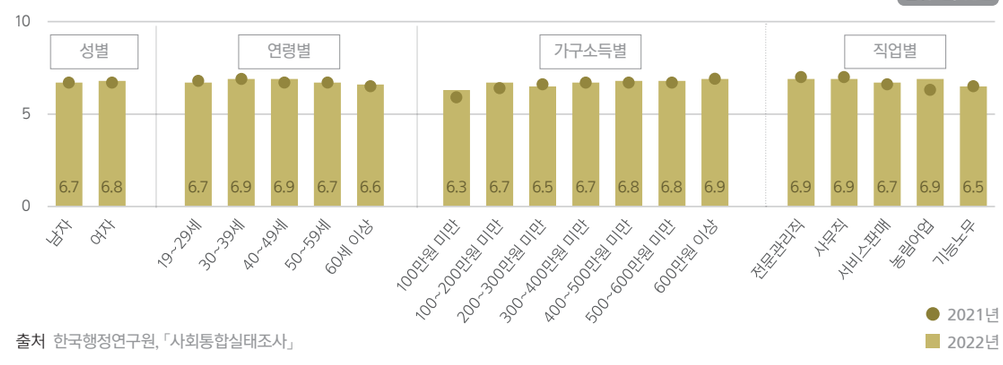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1년, 2022년 성·연령·가구소득·직업별 긍정정서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부정정서

Negative emotions

**정의**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정서(걱정, 우울감)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

**측정 방법** 어제 얼마나 걱정, 우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걱정 평균점수 + 우울감 평균점수)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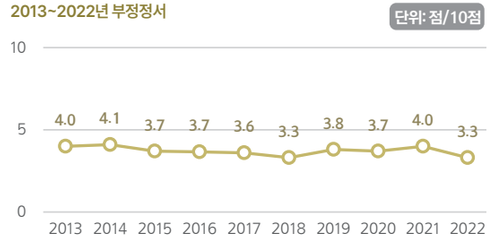
## 2022년 3.3점, 전년대비 0.7점 감소

부정정서는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긍정정서와 함께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이다. 개인들이 경험하는 부정정서는 어제 얼마나 자주 '걱정' 했는지와 '우울감'을 느꼈는지로 측정된다.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하나의 수치로 다루지 않고, 각각을 나누어 보는 것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양극단에 위치하는 반대의 개념이 아닌 두 지표가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얼마나 '걱정(3.6점)'과 '우울감(3.0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22년 3.3점으로 2021년보다 0.7점 감소하였다. 2014년 4.1점에서 2018년 3.3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는 거의 없어(남자 3.3점, 여자 3.4점) 삶의 만족도나 긍정정서와 유사하나 연령별로는 삶의 만족도나 긍정정서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정정서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소득수준별로 비교해보면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진 않지만 2021년에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4.3점으로 가장 높고 300~4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3.7점으로 가장 낮으며, 이후로는 부정정서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3.5점)을 제외하면 3.2~3.3점으로 소득수준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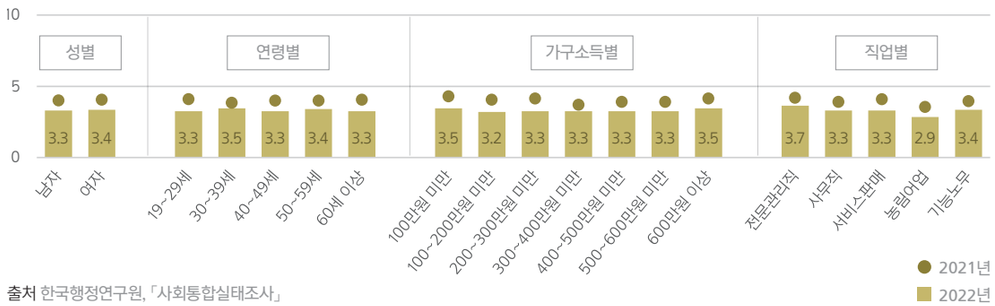
다만 직업별로 보면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부정정서는 전문관리직에서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농림어업직에서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며,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패턴과 유사하다.

**2013~2022년 부정정서**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1년, 2022년 성·연령·가구소득·직업별 부정정서**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PART 3

## 이슈 분석


01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02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

# 01.

#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1]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서론

한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의 개선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지만 그에 비해 삶의 질은 OECD의 BLI 기준으로 OECD 41개국 중 32위, 세계행복보고서의 삶의 만족도 기준으로는 150여개국 중 50위권에 머물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관심과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청에서는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해 왔다. 이 지표체계는 삶의 영역을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건강, 교육, 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 11개 분야로 나누고 해마다 총 71개 지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해 왔다. 이들 지표 중에는 독거노인 비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등 특정 연령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표도 있지만, 대부분 연령과 무관하게 성인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과 그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최근 들어 특정 집단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해야 하지만 삶의 질이 특히 낮은 취약집단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 문제가 중요해지고, 청년 실업과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정책적 문제가 되는 등 특정 연령집단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정책적 필요에 부응해서 노인 삶의 질 지표나 청년 삶의 질 지표 등 특정 연령집단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들 특정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표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연계성도 약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와의 관계도 모호하다.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다양한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세분화하고, 그간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연령대 집단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삶의 질 지표들을 통합해서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포함한다. 첫째 일관되고 유의미한 생애주기 단계들을 구분하고 그 연령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둘째 각 생애주기 단계별로 해당 연령대 집단의 삶의 질에 중요한 삶의 영역들을 선별한다. 이처럼 확정된 생애주기 단계들과 삶의 영역들을 교차시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틀을 작성한다. 셋째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항목을 정한다. 이때 모든 생애주기에 공통되는 측정 항목과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측정 항목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지표 선정 기준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 등이 포함된다.

1 이슈분석은 다음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한준, 최슬기, 이도훈, 정인관, 권다은(202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대전: 통계개발원



## 2. 생애주기 개념과 단계 구분

사회의 각 구성원은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쳐 각 생애단계에 고유한 사회적 조건과 규범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사회들은 구성원들이 이전 연령대에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완수했다는 전제 하에 다음 단계로 진입하여 그 연령대에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부여받는 연령 계층화를 법적·제도적으로 구현해 왔다. 예컨대 청소년기 및 청년기 학교 교육을 통해 일할 능력을 갖춘 이후 성인이 되어 일자리를 갖는다. 연령 계층화는 각 시기와 세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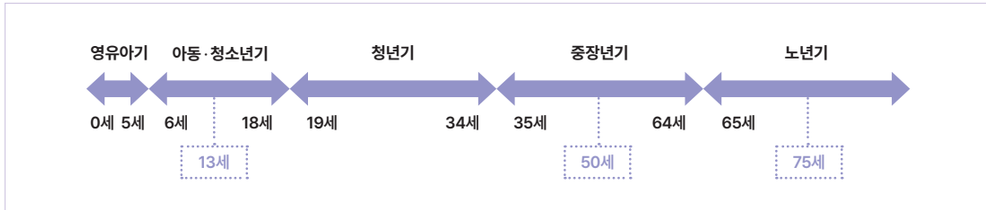
생애과정의 여러 단계에 걸친 이행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생물학적 요인의 작용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으로 성장해서 청년기에 정점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함께 이후 중장년 시기에 노화가 시작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또한 기능이 퇴화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족으로부터 학교, 일터로 사회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장년에 이르러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제도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후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다시 가족과 친구 위주로 줄어들게 되는 과정이 서로 교차한다. 이처럼 생애과정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제도나 공동체와의 관계의 확대와 축소가 교차하는 일종의 뒤집어진 U자형의 특성을 보인다.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는 사회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생물학적으로는 의학의 발전과 영양 상태의 개선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이 빨리 이루어진다거나 중장년 이후의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회적 측면이다. 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이수 기간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속하는 연령대는 확장되는 반면 성인기 이행 시점은 연기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비정규직의 확산, 직장 이동성의 증가 등—에 따라 은퇴 시기의 분포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특정 연령대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믿었던 생애사건들(예컨대 결혼이나 취직 등)에 대한 규범이 느슨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생애주기 구분에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는 연령이 바뀌기도 하고, 경험 연령의 분포가 집중되었던 것이 퍼지기도 한다.

생애주기 구분은 법이나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생애주기 단계에 해당하는 집단이 정책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하는 집단의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년 수당을 지급하거나,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혜택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연령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그밖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연령,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 다양한 연령 기준이 법과 제도에 따라 정해져 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년기본법, 노인복지법을 비롯해서 주거, 이동, 복지 등 다양한 관련 법률별로 생애주기 단계의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 법률의 연령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연령 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각 생애주기별로 법적, 제도적 연령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법적 연령정의는 32개 법률 35개 조항에 이를 뿐 아니라 이 시기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 또한 신생아, 영아, 유아, 어린이, 아이, 아동,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등 다양하다. 대체로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으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된다.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에서 성인이 아닌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한 것을 준용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우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대체로 초등학생까지를 지칭한다.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대체로 만18세 또는 만19세 미만이며 청소년 외에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청년의 연령기준 또한 법령별 정책별로 다양한데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

그림 1-1 생애주기 구분 및 연령 기준




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법령과 정책별로 청년의 연령범위 편차가 매우 크다.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정책에서 배제되는 연령을 줄이기 위해 청년 연령의 상한연령을 최고 49세까지 넓게 규정하는 곳도 있다. 중장년 연령 또한 조례 및 사업운영 기준 설정에 있어 일반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장년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살펴보면 사업유형에 따라 40세부터 45세, 50세, 65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인 연령 기준도 법령과 정책에 따라 60세부터, 65세, 70세 등 다양한데 대체로 노인연령은 65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노인연령을 70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또한 60대와 70대 초반의 노인인구와 80대 이상의 노인인구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년층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러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서 현재 한국의 생애주기 구분과 연령기준을 제시한다면 [그림 1-1]과 같다.

학교에 취학하는 5세 이하는 영유아기로, 이후의 아동·청소년기의 경우 6세에서 18세 이하로 정의하되 초등학교 졸업 후인 13세를 기준으로 세부 구분한다. 청년의 연령기준은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지만,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점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향후 검토를 요한다. 중장년의 경우 35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매우 넓게 정의되었으나,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이 50대 이후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년기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검토해볼 수 있다. 노년기의 경우도, 현재 60대, 70대 인구의 건강수명 증가, 경제력, 활발한 사회활동 등을 고려하여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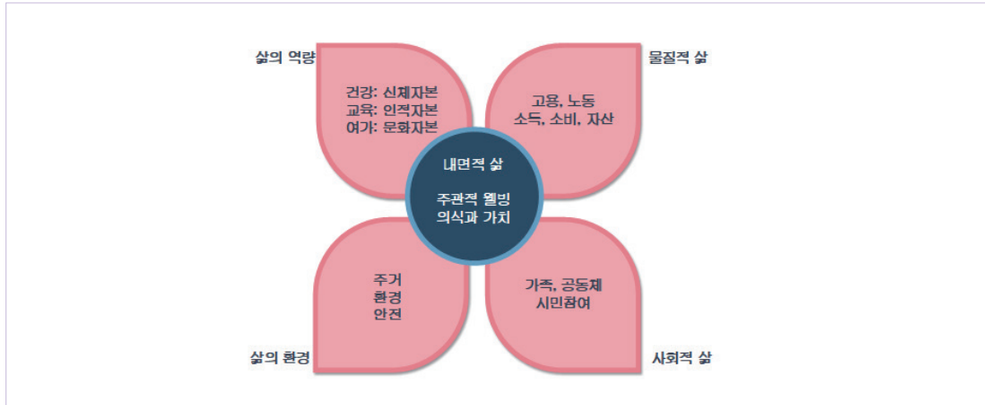
## 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영역 구성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들의 사회적 삶의 범위는 바뀐다.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개인들은 가족에서 학교, 직장으로 진출하면서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반면 중장년기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들은 사회적 삶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일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노화에 따라 활동이 줄고, 자녀들의 독립에 따라 부부관계만 그리고 이후에는 사별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삶의 범위 변화는 생애주기별로 삶의 영역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영역이 다르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일정한 원칙과 틀은 필요하다. '국민삶의 질 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1개의 관심영역들을 [그림 1-2]처럼 5개 차원들로 재구성해서 기본틀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주관적 웰빙에 의식과 가치를 추가해서 '내면적 삶'으로 보았다. 건강과 교육, 여가는 각각 신체자본과 인적자본, 문화자본에 해당된다고 보고 '삶의 역량'으로 묶었다. 센Sen의 주장대로 삶의 질이 자유를 토대로 한다면 역량이 개인에게 이 자유를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 '물질적 삶'은 경제적 자원인 소득, 소비, 자산과 고용, 노동을 포함한다. '사회적 삶'은 가



그림 1-2 삶의 질 측정 차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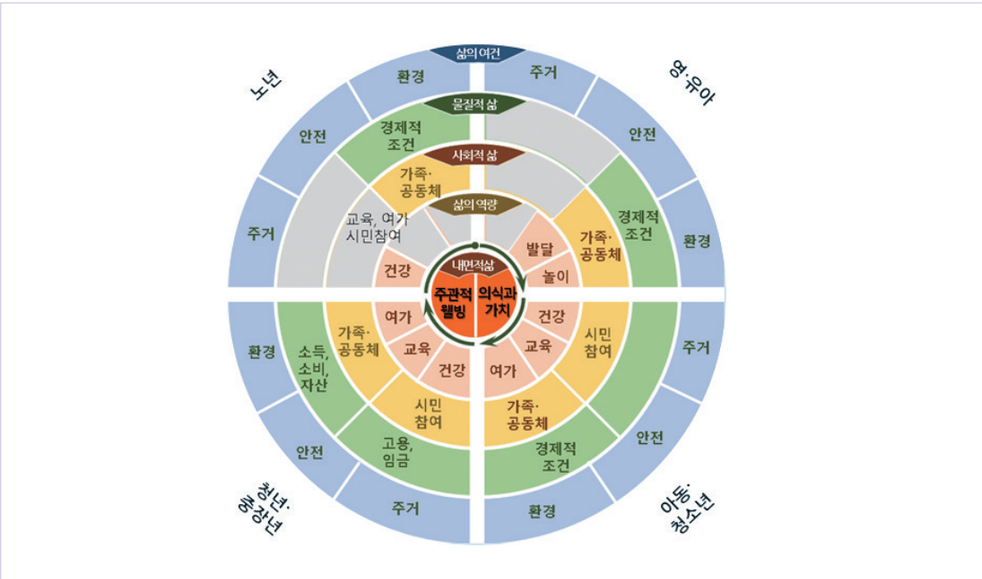

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연계와 함께 시민참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환경'은 주거와 환경, 그리고 안전과 같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기초적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5개의 차원으로 삶의 영역들을 묶은 뒤 생애주기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들을 재구성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면 가장 왕성한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펼치는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11개와 추가된 의식과 가치 영역을 포함해서 12개 영역이 모두 해당된다. 반면 청년기 이전의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와 중장년기 이후인 노년기에는 일부 영역들이 통합되어 줄어든다.

표 1-1 생애주기 단계별 영역 구성

| 구분 | 국민삶의질 지표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
| 내면적 삶 | | | 의식과 가치 | 의식과 가치 | 의식과 가치 | 의식과 가치 |
| |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 |
| 삶의 역량 | 건강 | 발달 | 건강 | 건강 | 건강 | 건강 |
| | 교육 | | 교육 | 교육 | 교육 | 교육,여가, 시민참여 |
| | 여가 | 놀이 | 여가 | 여가 | 여가 | |
| 사회적 삶 | 시민참여 | | 시민참여 | 시민참여 | 시민참여 | |
| | 가족·공동체 | 가족·공동체 | 가족·공동체 | 가족·공동체 | 가족·공동체 | 가족·공동체 |
| 물질적 삶 | 고용·임금 | | | 고용·임금 | 고용·임금 | 경제적 조건 |
| | 소득·소비· 자산 | 경제적 조건 | 경제적 조건 | 소득·소비· 자산 | 소득·소비· 자산 | |
| 삶의 환경 | 주거 | 주거 | 주거 | 주거 | 주거 | 주거 |
| | 안전 | 안전 | 안전 | 안전 | 안전 | 안전 |
| | 환경 | 환경 | 환경 | 환경 | 환경 | 환경 |

그림 1-3 생애주기 단계별 생태적 동심원 모형




<표 1-1>에 제시된 생애주기별 삶의 영역을 생애주기별로 생태적 동심원 모형(이른바 만다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3]과 같다. 각 생애주기 단계별로 영역 구성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기에는 건강과 교육이 발달로 합쳐지고, 고용·임금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득·소비·자산이 경제적 조건으로 바뀐다. 또한 시민참여 및 의식과 가치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는 아직 취학 이전인 영유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물질적 삶의 대부분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며, 의식과 가치는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이전이며 또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학습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에는 물질적 삶의 고용·임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소득·소비·자산이 경제적 조건으로 바뀐다. 이는 아직 의무교육 연한의 학생인 아동, 청소년들이 본격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 물질적 삶의 대부분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노년기에는 아동·청소년기에 통합된 여가와 시민참여에 삶의 역량 차원에 해당하는 교육이 추가되어 교육·여가·시민참여가 된다. 이는 노년기에 교육과 시민참여가 주로 여가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한편 아동·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고용·임금과 소득·소비·자산 역시 물질적 삶의 조건으로 통합되는데 이는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 연금이나 개인 자산에 의존하여 경제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 4. 생애주기별 영역별 측정 항목들

생애주기별로 해당되는 삶의 영역 구성이 변할 뿐 아니라 삶의 질 측정 항목 또한 차이가 있다. 물론 생애주기 간 차이가 없이 모든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공통 측정 항목들도 존재한다. <표 1-2>는 생애주기 구분 없이 공통된 삶의 질 측정 항목들이다. 이들 중에서 삶의 환경을 이루는 환경, 안전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측정하지 않고 동일한 측정치가 모든 생애주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나머지 영역들의 측정 항목들은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측정되지만,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기는 삶의 범위가 가족과 친구, 학교로 제한되며, 이 시기 동안의 신체적, 지적 발달과 학습은 이후 생애주기 단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특화된 측정 항목들은 <표 1-3>에서 보듯이 다수가 건강, 교육, 가족·공동체에 집중되어 있다.

표 1-2 생애주기 단계 삶의 질 관련 공통 측정 항목

| 영역 | 측정 항목 |
|---|---|
| **의식과 가치** | 삶의 가치, 개인주의/공동체주의,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신뢰, 사회적 이동성 전망 |
|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 외로움 |
| **소득·소비·자산** | 가구소득, 빈곤 비율, 소득/소비 만족도 |
| **가족·공동체** |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과의 식사, 가족과 보내는 시간, 고립감 |
|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유병율, 비만율, 수면시간, 스트레스, 자살 생각 비율 |
| **여가** |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여가활동, 매체 이용 |
| **환경** | 미세먼지 농도, 대기오염, 수질, 녹지 비율, 생활환경(소음 등) |
| **안전** | 교통사고 건수, 범죄 발생률, 야간 보행 안전 |
| **주거** | 최저 주거기준미달 비율, 자가 보유 비율 |

표 1-3 아동·청소년기 삶의 영역별 측정 항목

| 영역 | 측정항목 |
|---|---|
| **건강(영유아 경우 발달)** | 조산아율, 저체중출생아율, 장애유형별 비율, 영양결핍률, 수유형태별 비율, 예방접종률, 영유아 건강검진율, 치과검진율, 아침식사 결식률, 청소년 흡연, 음주, 약물, 가출 경험률, 청소년 성관계, 임신, 임신중단 경험 |
| **교육(영유아 경우 발달)** | 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만족도, 학습시간,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책 읽어주기빈도, 주관적 학업성취도, 언어발달 정도, 자기효능감, 학업중단율 |
| **여가·시민참여(영유아 비해당)** | 시간 압력 비율, 매체 유형별 이용 경험, 방과 후 활동 유형, 청소년 고용률, 후기 청소년 투표 참여율, 사회문제 관심도, 정치·사회문제 토론, 아동·청소년인권 인식 |
| **가족·공동체** | 맞벌이가구 및 한부모 자녀 비율, 부모와의 애착, 긍정적 관계, 가족관계, 가족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 존중, 가족 식사 정도, 친구와 어울리는 정도, 도움 정도, 친구 없는 아동 비율, 고립감, 문제 발생시 상담 가능한 사람이 있는 아동·청소년비율 |
| **경제적 조건** | 물질적 결핍지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 **주거·환경** | 거주지역 만족도 및 편의성, 대기질만족도 |
| **안전** | 아동학대 건수, 방과 후 아동방치, 가정·학교 내 체벌 경험, 또래폭력 피해경험, 소년소녀 범죄 발생 건수, 휴대폰 과의존 위험, 유해매체 이용 |

표 1-4 청년기 삶의 영역별 측정 항목

| 영역 | 측정 항목 |
|---|---|
| **건강** | 흡연, 음주상황, 우울, 정신상담경험, 약물사용경험, 건강행동 |
| **교육** |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만족도, 전공 계열의 만족도, 졸업 지연 신청 경험 및 이유,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이용 여부,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 대학 또는 기타 교육/훈련의 도움 여부등 |
| **가족·공동체** | 부모 동거 가구의 독립계획, 부모 비동거 가구의 독립 현황,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과 자원의 유무, 타인과의 교류 정도, 외출 경험 |
| **고용·임금** | 청년취업정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소득·소비·자산** | 청년소득지원정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부채 및 자산규모 |
| **주거**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주거비, 주택유형, 주택위치, 주택상태, 주택환경, 주택 의미에 대한 충족도 (안전보호공간, 휴식공간, 가족공간, 사적공간, 생리위생, 자산증식) 등 |
| **안전** | 사건 사고 노출에 대한 불안감 |

표 1-5 중장년기 삶의 영역별 측정 항목

| 영역 | 측정 항목 |
|---|---|
| **의식과 가치** | 노후에 대한 불안 |
| **건강** |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정도, 성인병 유병률 |
| **교육** | 성인교육 참여율, 자녀 교육비 부담 |
| **여가** | 일-생활 균형 |
| **시민참여** | 세대간 사회이동 가능성, 사회단체 참여율 |
| **가족·공동체** | 1인 가구 비율, 이혼율, 사회적 고립, 가족과 소통 만족도 |
| **고용·임금** | 임금수준, 근로시간, 일자리 안정성, 일자리 만족도, 산업안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
| **소득·소비·자산** | 가구 부채, 소득 대비 소비 충족도, 가구 자산, 보험, 연금 등 대비 |
| **주거** | 자가 보유 비율, 주택 비용 |
| **안전** | 산업 재해, 가정 폭력 |

표 1-6 노년기 삶의 영역별 측정 항목

| 영역 | 측정항목 |
|---|---|
| **의식과 가치** | 주관적 노인기준 연령,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 희망 노후 활동, 노년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가치부여 |
|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 노인고용률, 연금수급률 및 수급액,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평균 자산 (예금 및 부동산), 노후 삶에 대한 불안감 |
| **가족·공동체** | 배우자 유무, 1인 가구 비율, 자녀와 동거여부 및 접촉 빈도, 가족 이외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수와 빈도 |
| **건강** | 장기질병 여부 및 개수, 장애여부 및 정도, 치매, 의료기관 접근성 |
| **교육, 여가, 시민참여** | 평생교육 참여,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여가활동, 투표율 |
| **안전** | 낙상경험, 노인학대 피해율 |
| **주거** | 이동시 불편 경험, 주택 소유 |



청년기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을 이루어 성인이 되는 시기이다. 청년기 동안에는 최종학교 졸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중요한 생애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서구 선진 사회들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성인으로의 이행이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체되거나 복잡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에 따라 청년들의 물질적, 객관적 삶의 질이 악화되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나 불만과 불안이 쌓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청년 문제의 심화로 청년들이 정책적 보호나 배려의 대상이 되면서 청년기의 연령 범위에 대해서나,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기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항목들은 다수가 교육 및 가족·공동체, 물적·경제적 조건(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주거) 등의 영역에 몰려 있다.

중장년기는 한편에서는 일자리에서 성취를 거두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신체적, 정신적 노화가 시작되어 인생의 후반기를 맞는 시기이다. 과거에 비해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인 청년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중장년기 역시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시기의 특징이 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정책적으로 일자리 정년 연장과 은퇴 후의 연금 개혁이 중장년층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표 1-5>에서 보듯이 중장년기에 특화된 삶의 질 측정 항목들은 여러 영역들에 걸쳐 있지만, 가장 많은 항목들은 경제적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소비. 자산과 고용.임금에 집중되어 있다.

노년기는 일자리로부터 은퇴하고, 자녀들도 분가한 뒤 삶의 범위가 축소되는 시기이며, 또한 신체적 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시기이다. 경제생활로부터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 필요와 사회생활의 축소로 인한 외로움, 노화에 따른 불편함 등은 노년기의 위협요인이며, 그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진다. 의학의 발달과 경제 발전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층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나타날 것이며,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노인과 가족,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1-6>에서 보듯이 노년기의 주된 삶의 질 측정항목은 경제적 조건과 함께 가족, 여가, 안전, 건강 등에 집중되어 있다.

## 5. 시사점

앞서 제시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는 모든 생애주기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프레임워크의 의의는 생애주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생애주기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생애주기 통합 프레임워크가 자칫 과도하게 경직되게 해석되면 현재 한국에서 개인들의 생애주기가 본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대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함의를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려면 여기에서 제시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 프레임워크를 이념형Ideal type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 연령 구분이나 측정항목, 프레임워크는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거나 현실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으로 각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참고를 위한 이념형으로 삼아서 측정과 정책 입안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의 진입과 함께 삶의 질에서도 여타 국가들보다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압축적 근대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애주기라고도 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 모호하고 복잡해질 뿐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고, 향후 새롭게 직면하거나 더욱 심화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기저에 생애주기라는 쟁점이 깔려있다. 예를 들면 결혼 및 출산기피, 그에 따른 초저출산 사회로의 진입, 수명 연장과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고령화, 세대내·세대간 갈등과 젠더간 갈등, 청년 삶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찾고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려면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이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02.

#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1]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

## 1. 서론

인생을 계절에 빗대어 표현할 때, 아동청소년기는 봄, 청년은 여름, 중년은 가을, 노년은 겨울로 비유하곤 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지나며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칠까?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행복 수준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며 행복수준은 하향하다가 40~50대에 최저점을 찍고 50대 이후에 반등하는 U자 형태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경험적 연구는 잘 알려졌다.[2]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는 입 형태인 행복 패턴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남성과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오랑우탄과 침팬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U자 형태의 행복곡선이 영장류에게서 관찰되면서, 40~50대까지 하향하는 행복 수준이 50대 이후에 반등하는 경향은 유전자에 새겨진 결과라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한다.[3]

그런데 이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 패턴이 한국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인에서는 U자형 행복패턴 대신, 나이가 들수록 행복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4] 즉,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중장년 시기에 최저점을 찍은 후 노년기가 되어도 반등하지 않는 것이다. 인류 대다수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나이 들어갈수록 행복해진다는 통계적 경향성과 달리,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불행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하향하는 맥락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연령대에 따라 취약한 영역과 우수한 영역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연령대에 따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역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내면적 삶, 삶의 역량, 사회적 삶, 물질적 삶, 삶의 환경, 총 다섯 가지 영역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 사용된 '영역'은 '국민 삶의 질 지표' 총 11개 영역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재구성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된 '영역'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11개 '영역'이 아니라, 상위 개념인 '차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 정의도 정책과 법령에 따라 상이한데, 이 글에서는 프레임워크 구축연구와 사회조사를 참고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 그룹을 정의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분석자료와 측정변수 및 연구모형을 소개한다. 분석결과 파트에서는 연령대 별로 영역별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분석을 통해 살펴본 후, 연령대에 따라 영역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로 글을 마무리한다.

1 이슈분석은 다음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한준, 최슬기, 이도훈, 정인관, 권다은(202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대전: 통계개발원

2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3 Rauch, J. (2021).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김고명 (번역). 서울: 부키. (원서는 2019에 출판)

4 김성아, & 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4), 95-104.

## 2. 연구방법

### 2-1. 분석자료 및 측정변수

내면적 삶, 삶의 역량, 사회적 삶, 물질적 삶, 삶의 환경, 다섯 가지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기술분석을 통해, 연령대별로 취약한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 후,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자료로는 통계청 사회조사 2020년과 2021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을 위한 생애주기별 연령정의는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별법률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법령 별, 정책별로 연령 정의가 다르고 그 편차도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13~19세), 청년(20~34세), 중장년(35~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 그룹을 구분하고 연령대별 분석을 시행한다. 연령 그룹별 표본 수는 <표 2-1>과 같다.

다섯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변수는 사회조사에서 선정하였다. 사회조사는 총 10개 영역 중 다섯 개씩 교차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짝수 년도에는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다섯 가지 영역을, 홀수 년도에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면적 삶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주관적인 만족감을 사용했다. 응답자는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다섯 가지 척도로 답변했다. 직관적인 해석을 위해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되었다.

건강, 교육, 여가를 포함하는 삶의 역량을 측정하는 변수로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표 2-1 생애주기 연령별 표본 기술통계

| 생애주기별 연령 구분 | 표본 수(명) | 비율(%) |
|---|---|---|
| 아동청소년(13~19세) | 2,525 | 6.93 |
| 청년(20~34세) | 6,328 | 17.37 |
| 중장년(35~64세) | 19,037 | 52.27 |
| 노년(65세 이상) | 8,533 | 23.43 |
| 합계 | 36,423 | 100.00 |

주 조사자료의 한계로 아동청소년은 13~19세, 청년은 20~34세로 하여 분석하였음.

표 2-2 측정변수

| 영역 | 구분 | 측정변수 (5점 척도) | 비고(조사연도) |
|---|---|---|---|
| 1) 내면적 삶 | | 주관적 만족감 | |
| 2) 삶의 역량 | 건강 | 전반적인 건강상태 | 2020년, 2020년(아동청소년기만 해당), 2021년 |
| | 교육 |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 |
| | 여가 | 여가활동 만족도 | |
| 3) 사회적 삶 | 인간관계 | 인간관계 만족도 | 2021년, 2020년 |
| | 가족관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 |
| 4) 물질적 삶 | 소득과 소비 | 소득만족도/소비생활 만족도 | 2021년(소득/소비/근로여건의 평균값, 아동청소년기 해당 없음) |
| | 근로여건 | 전반적인 근로여건 만족도 | |
| 5) 삶의 환경 | 사회안전 | 전반적인 사회안전 | 2020년(사회안전/공공질서 준수수준/생활환경 만족도의 평균값) |
| | 공공질서 | 공공질서 준수수준 | |
| | 생활환경 |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 | |

만족도를 사용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①매우 좋다(매우 만족한다) ② 좋은편이다(약간 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 나쁜편이다(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나쁘다(매우 불만족한다)' 다섯 가지 척도로 코딩 되었고, 분석에는 역코딩한 값이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포함되어 있어 여타 생애주기 그룹과의 비교가 불가하므로, 기술분석만 시행하고,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삶은 인간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5점 척도이며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득과 소비, 근로여건을 포함하는 물질적 삶은, 소득에 대한 만족도, 소비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소득소비에 대한 만족도나 전반적인 근로여건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아동청소년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 중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반적인 근로여건 만족도의 경우, 노년기의 일부 응답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결측치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과 공공질서,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삶의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공공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 문항이 사용되었다. 분석에서는 세 가지 응답결과의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측정변수는 <표 2-2>에 정리되어 있다.

### 2-2 분석모형

연령대별, 영역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Ologit(\text{전반적인 삶의 만족도})_i = \beta_{0j} + \beta_{1i}\,\text{영역별만족도} + \beta_{2i}\,\text{생애주기} + \beta_{3i}\,\text{영역별만족도} \times \text{생애주기} + \varepsilon_i$$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변수가 5점 척도이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영역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모델에서 영역별 만족도-삶의 역량(건강, 여가), 사회적 삶(대인관계, 가족관계), 물질적 삶(소득과 소비, 근로여건 만족도), 삶의 환경- 변수를 각각 넣어 분석하고, 연령별 집단을 교차항으로 두고 비교 분석한다.[5] 교차항의 준거집단은 중장년이다. 중장년 표본수가 가장 많아 준거집단으로서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장년에 행복 수준이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U자형 행복곡선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년을 기준으로 연령 그룹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분석결과 해석에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3. 분석결과

### 3-1. 연령대별 영역별 만족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역별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연령대에 따라 취약한 특정 영역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령대별 영역별 만족도를 기술분석한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분석에서는 원문항의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재구성(만족과 매우 만족을 만족으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코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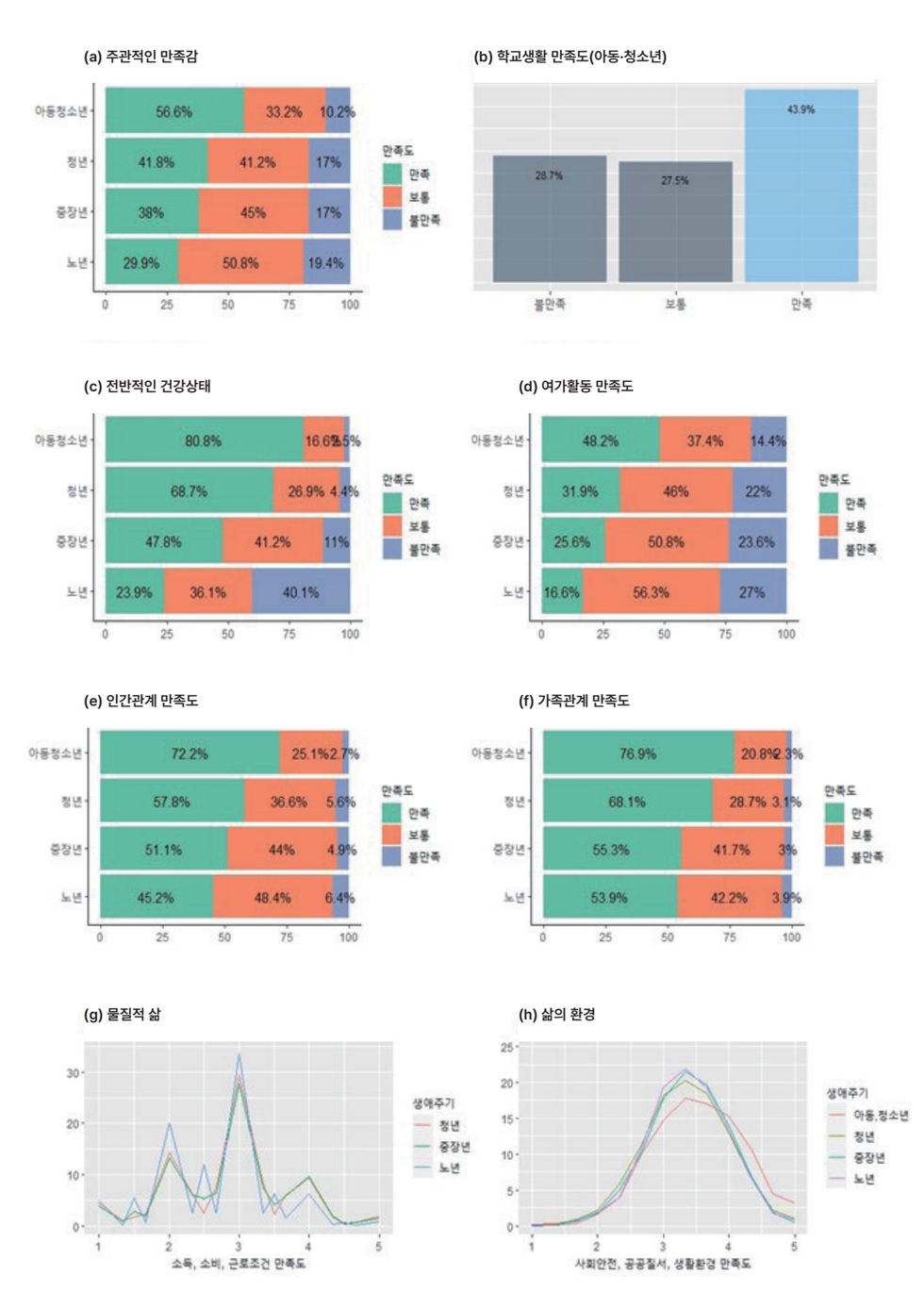
[그림 2-1]의 (a)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다섯 가지 영역 중 내면적 삶에 해당하고, (b)~(d)는 삶의 역량(교육, 건강, 여가)이다. 이 중 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분석대상은 아동청소년기만 해당된다. (e)와 (f)는 사회적 삶(대인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이다. (g) 물질적 삶은 소득/소비생활 만족도와 전반적인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청년, 중장년, 노년만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f) 삶의 환경은 전반적인 사회안전, 공공질서 준수수준,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의 평균값이다.

먼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역별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순으로 만족도가 일관되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내면적 삶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과반수(56.6%)가 현재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이 비율은 청년과 중장년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노년에서는 세 명 중 한 명 미만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그림 2-1] (a) 참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하락하는 추세는 삶의 역량([그림 2-1] (b), (c), (d) 참고), 사회적 삶([그림 2-1] (e))에서도 나타난다. 물질적 삶은 청년과 중장년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노년의 만족도가 취약하고([그림 2-1] (g) 참고), 삶의 환경은 아동청소년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2-1] (h) 참고).

그렇다면 생애주기 연령별로 취약하거나 우월한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 아동청소년은 타 연령 대비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5 연령 그룹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 모든 영역을 한 모형에 동시에 넣어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 분석방법이 제한된다. 첫째, 사회조사는 매년 이루어지지만 측정문항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격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한 모델에서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설사 영역 별 만족도 측정문항이 매해 자료에 있더라도, 영역별 만족도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여가활동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며 연령대별 영역별 만족도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별 만족도를 독립 변인으로 하는 모델을 두고 연령대를 교차하여 분석한다.

그림 2-1 연령별·영역별 만족도




가장 취약한 영역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이다. 아동청소년의 44%가 교육에 만족하는 반면 29%는 만족하지 않는다([그림 2-1] (b) 참고). 청년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아동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건강이다. 반면, 가장 취약한 영역은 물질적 삶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삶 중에서도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21%에 그쳐서 청년에게 가장 취약한 영역은 경제적인 영역인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적인 삶에 대한 취약성은 중장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반면, 중장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사회적 삶이다.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55%,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51%로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해가는 생애주기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노년에서도 물질적 삶이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1%,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6%에 그쳤다.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도 16%로 낮은 수준이다. 즉, 노년기에는 삶을 즐기며 보낼 수 있는 삶의 역량과 물질적 삶이 매우 취약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각각 54%, 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삶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 3-2.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날까? 영역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두고 생애주기별 연령그룹과 교차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과 같다. 결과값은 승산비Odds ratio로 제시하였다.

표 2-3 연령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 | (1) 삶의역량 (건강) | (2) 삶의역량 (여가) | (3) 사회적 삶 (대인관계) | (4) 사회적 삶 (가족관계) | (5) 물질적 삶 (소득소비) | (6) 물질적 삶 (근로여건) | (7) 삶의 환경 |
|---|---|---|---|---|---|---|---|
| | 종속변수: 주관적 삶의 만족감 | | | | | | |
| **영역별 만족도($\beta_1$)** | | | | | | | |
| 영역별 만족도 | 0.96*** | 1.03*** | 1.00*** | 0.83*** | 1.31*** | 0.84*** | 0.78*** |
| | (0.02) | (0.02) | (0.02) | (0.02) | (0.02) | (0.02) | (0.02) |
| **생애주기 ($\beta_2$). 준거집단: 중장년층** | | | | | | | |
| 아동청소년 (13~19세) | -0.89*** | -0.02 | -0.39+ | -1.33*** | | | 0.44* |
| | (0.22) | (0.15) | (0.20) | (0.21) | | | (0.21) |
| 청년기 (20~34세) | -0.14 | -0.02 | -0.09 | -0.27* | 0.32*** | 0.27* | 0.31* |
| | (0.13) | (0.09) | (0.12) | (0.12) | (0.09) | (0.14) | (0.15) |
| 노년기 (65세 이상) | 0.72*** | -0.00 | 0.40*** | 0.32** | 0.34*** | 0.91*** | 0.50*** |
| | (0.09) | (0.09) | (0.11) | (0.11) | (0.08) | (0.22) | (0.14) |
| **영역별 만족도*생애주기 ($\beta_3$). 준거집단: 중장년층** | | | | | | | |
| 아동청소년 (13~19세) | 0.32*** | 0.08+ | 0.16*** | 0.49*** | | | 0.16** |
| | (0.05) | (0.04) | (0.05) | (0.05) | | | (0.06) |

| | (1) 삶의역량 (건강) | (2) 삶의역량 (여가) | (3) 사회적 삶 (대인관계) | (4) 사회적 삶 (가족관계) | (5) 물질적 삶 (소득소비) | (6) 물질적 삶 (근로여건) | (7) 삶의 환경 |
|---|---|---|---|---|---|---|---|
| | 종속변수: 주관적 삶의 만족감 | | | | | | |
| 청년기 (20~34세) | 0.01 | -0.03 | -0.01 | 0.09** | -0.11*** | -0.08* | 0.00 |
| | (0.03) | (0.03) | (0.03) | (0.03) | (0.03) | (0.04) | (0.04) |
| 노년기 (65세 이상) | -0.16*** | -0.07* | -0.18*** | -0.16*** | -0.18*** | -0.38*** | -0.23*** |
| | (0.03) | (0.03) | (0.03) | (0.03) | (0.03) | (0.07) | (0.04) |
| / | | | | | | | |
| cutoff1 | -0.81*** | -0.35*** | 0.21** | -0.97*** | 0.08 | -0.82*** | -1.29*** |
| | (0.07) | (0.05) | (0.06) | (0.07) | (0.05) | (0.08) | (0.08) |
| cutoff2 | 1.14*** | 1.62*** | 2.12*** | 0.96*** | 2.09*** | 1.16*** | 0.60*** |
| | (0.06) | (0.05) | (0.06) | (0.06) | (0.05) | (0.07) | (0.08) |
| cutoff3 | 3.71*** | 3.84*** | 4.29*** | 3.49*** | 4.44*** | 3.25*** | 3.02*** |
| | (0.06) | (0.05) | (0.07) | (0.07) | (0.05) | (0.08) | (0.08) |
| cutoff4 | 5.43*** | 5.63*** | 6.05*** | 5.20*** | 6.30*** | 5.06*** | 4.65*** |
| | (0.07) | (0.06) | (0.07) | (0.07) | (0.06) | (0.09) | (0.08) |
| N | 37750 | 36423 | 36423 | 37671 | 34214 | 14435 | 37750 |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중장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다. 청년은 물질적 삶 영역만 제외하고, 영역별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년과 유사하다. 반면, 노년에는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장년에 비해 적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에는 중장년에 비해 삶의 역량(건강)과 사회적 삶(가족관계)이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어, 신체적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보호 아래 있는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의 경우, 물질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삶과 삶의 환경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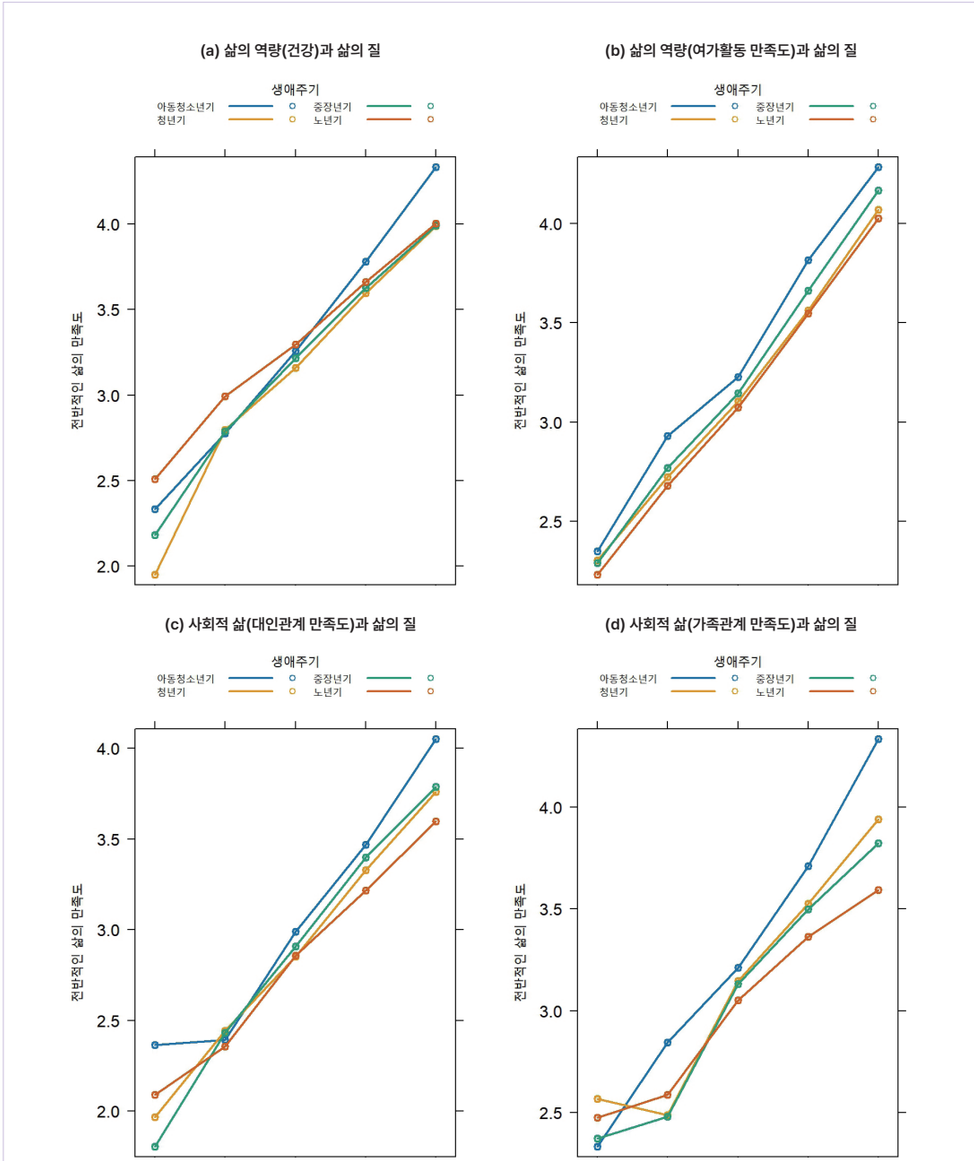
분석결과의 직관적인 해석을 돕기 위해 분석결과를 시각화 하였다. 각 그래프의 기울기가 영역별 만족도와 삶의 질 관계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를 나타낸다.

삶의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삶의 역량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가장 많이 높아지는 연령대는 아동청소년 시기이다([그림 2-2] (a), (b) 참고). 반면, 노년기에는 삶의 역량, 특히 건강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삶에 대한 만족도로 인해 삶의 질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아동청소년기이다. 노년기에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반면, 물질적 삶에 대한 만족도로 인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령대는 중장년과 청년이다([그림 2-2] (e), (f)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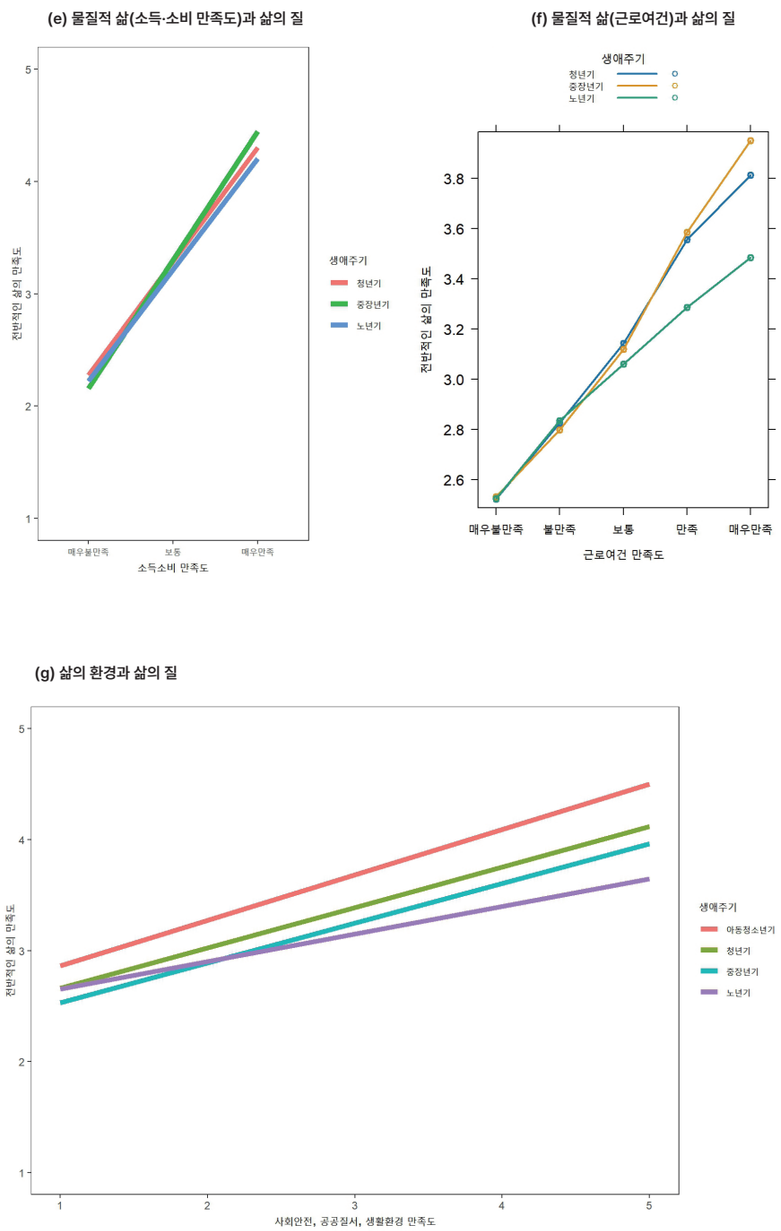
그림 2-2 생애주기별 영역별 만족도와 삶의 질(a, b, c, d)




삶의 환경으로 인해 삶의 질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연령대는 노년시기이다. 노년시기에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 자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삶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도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요약해보면, 전 연령집단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삶의 역량(여가 만족도)과 물질적 삶(소득과 소비 만족도)이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영역별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편이다. 반면 노년기에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가장 낮으며, 영역별

그림 2-2 생애주기별 영역별 만족도와 삶의 질(e, f, g)






만족도와의 상관성도 낮은 편이다. 중장년은 물질적 삶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로 사회적, 가정적으로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루는 동시에 책임감이 커지는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다. 한편, 아동청소년기에 사회적 삶(가족관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이 시기에 있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 4.결론

지금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역별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생애주기 연령대별로,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령대별 영역별 만족수준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순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은 건강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신체의 발달과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생애주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역시 건강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청년에게 가장 취약한 영역은 물질적 삶인데, 물질적 삶의 취약성은 중장년과 노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사회적 삶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해가는 생애주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에는 물질적 삶과 삶의 역량(여가) 영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삶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영역별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물질적 삶(소득과 소비 만족도)과 삶의 역량(여가 만족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전 연령집단에 걸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영역별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편이다. 반면 노년기에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가장 낮으며, 영역별 만족도와의 상관성도 낮은 편이다.

근래에 들어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삶의 질은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삶의 질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이 시기에,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연령에 따라 취약한 영역을 살펴본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 APPENDIX

## 부록

01 지표 정의서

02 지표 자료출처

# 부록 1. 지표정의서

## 1. 가족·공동체

**독거노인 비율**

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관계 측면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 측정에 중요한 지표임.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산출방법 (65세 이상 1인가구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작성주기 1년

**가족관계 만족도**

정의 자신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인의 하나로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하며,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속감과 유대, 친밀감의 원천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망함.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가족생활의 질과, 더 나아가 구성원의 삶의 질의 중요한 단면의 현주소를 보여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만족 | ② 약간 만족 | ③ 보통 | ④ 약간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 ⑥ 해당 없다 |
|---|---|---|---|---|---|---|
| 7. 전반적인 가족 관계 | | | | | | |

**지역사회 소속감**

정의 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의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1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사회단체 참여율**

정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의의 사회단체 활동정도는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결합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보여주며, 최근 공동체적 삶의 기초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융성의 기초로 보고 있음.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정도가 적극적일수록 사회의 질이 좋은 것으로 여겨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9개의 사회단체* 중에서 하나의 단체라도 '소속되어 가끔(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음) 활동한다' 또는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단체/사업자단체/직업조합, 종교단체,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등),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동창회/향후회, 자원봉사/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 | 소속된 적이 없다 |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 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
| 정당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 ① | ② | ③ | ④ | ⑤ |
| 종교단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동호회 (스포츠, 여가, 문화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시민단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동창회, 향우회 | ① | ② | ③ | ④ | ⑤ |
|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22년부터 보기항목 변경(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 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사회적 고립도

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의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유무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특히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망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회의 질을 높여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① 있다 (  ) 명  ② 없다
>
>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① 있다 (  ) 명  ② 없다

## 2. 건강

### 기대수명

정의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의의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구성되며, 사망수준은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기대수명이 사용됨. 기대수명은 영아사망률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으로 지칭됨.

출처 통계청, 「생명표」

산출방법 0세의 기대여명

작성주기 1년

### 건강수명

정의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함.

의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적을수록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함.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 비교에 널리 이용됨.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산출방법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작성주기 5년



### 스트레스 인지율

정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구의 비율

의의 개인들의 건강은 신체건상과 정신건강으로 측정되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많이 느꼈다' 또는 '느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많이 느꼈다 | ② 느낀 편이다 | ③ 느끼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느끼지 않았다 | ⑤ 해당 없다 |
|---|---|---|---|---|---|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 | | | | |

### 주관적 건강상태

정의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의료환경 이외에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건강수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 비만율

정의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 이상인 인구의 비율

의의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형성된 건강위험 요인으로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섭취, 그리고 신체활동의 부족 등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함.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는 달리 비만은 산업구조와 생활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아직 선진국만큼 비만율이 높지 않지만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산출방법 조사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²'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작성주기 1년

### 신체활동 실천율

정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크며, 신체활동은 대중적이란 측면에서 전문적인 운동(스포츠)과

차이가 있고, 신체 전반의 근육을 단련하고 심폐기능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동작만을 반복하는 노동과도 다름. 걷기, 달리기, 줄넘기,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일정한 강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평소 규칙적 운동(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실천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평소 다음 각 항목의 활동을 실천하는 편입니까?

| | ① 실천한다 | ② 실천하지 않는다 |
|---|---|---|
| 규칙적 운동 | | |

※ **참고** '규칙적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단, 부정기적인 운동이나 일상적인 걷기 등은 제외)

**자살률**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의의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개인의 정신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음. 또한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며, 특히 사회적인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은 높아짐.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산출방법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작성주기 1년

## 3. 교육

**유아교육 취원율**

정의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율

의의 교육기회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교육기회가 해당되는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로 측정될 수 있음. 한국사회에서 초중등단계의 교육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 취학률 지표는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산출방법 {(3~5세 어린이집 보육아수 + 3~5세 유치원 재적원생수) ÷ 취학적령(3~5세)인구} × 100

※ 취학적령인구는 추계인구로 작성

작성주기 1년

**교육비부담도**

정의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의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미침.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가구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교육비 부담도는 교육지출에 대한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수준을 보여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30세 이상)의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댁의 자녀 교육비는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됩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약간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교육비는 학교 납입금, 보충 교육비, 학원비, 기숙사비 등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학교교육의 효과**

정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객관적인 수준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인들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통해 학교교육의 성과 측면을 포착하는 지표임.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학교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학교교육이 '생활, 취업 및 직업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효과 있다' 또는 '약간 효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학교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효과 있다 ② 약간 효과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효과 없다 ⑤ 전혀 효과 없다 ⑥ 잘 모르겠다

4.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학교생활 만족도**

정의 자신이 다니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주관적 차원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자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전반적인 학교생활

### 고등교육 이수율

정의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의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사회의 교육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가별 비교시 많이 활용되며,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과 함께 교육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al attainment of 25-64 year-old(Tertiary)

산출방법 (고등교육기관 이수자 ÷ 25~64세 인구) × 100

※ 고등교육기관(Tertiary)은 대학 이상 졸업임.

작성주기 1년

### 대학졸업자 취업률

정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등 제외) 중 취업자의 비율

의의 학교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 또한 이 지표는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산출방법 (취업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 100

※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

※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

작성주기 1년

## 4. 고용·임금

### 실업률

정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의의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취업의사는 있지만 취업할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로 의미가 있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출방법 (15세 이상 실업자수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임.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① 구해보았음 ② 구해 보지 않았음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고용률

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

의의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 이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주목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지표로도 고용률이 주로 사용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출방법 (15세 이상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일을 도와 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함.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지난주'는 '일요일~토요일'의 지난 1주를 말함.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평소 1주 동안 총 몇 시간 일합니까?

총 (  )시간

※ 총 시간은 '주된 일'과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의 합계임.

### 월평균 임금

정의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실질금액으로 환산한 값

의의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임금의 총액임. 임금총액은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임금수준의 정확한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법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직전 연도 연간특별급여) ÷ 12개월}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화

※ 월임금총액 :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한 월급여액에 직전 연도 연간특별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더하여 산출

작성주기 1년

###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의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며 국제비교 지표로도 흔히 사용됨.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함.

출처 OECD, Earnings(Incidence of low pay)

산출방법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수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작성주기 1년

**근로시간**

정의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

의의 더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장시간근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바, 이것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에 따라서 증가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크면 줄어들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출방법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작성주기 1년

**일자리 만족도**

정의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이러한 하위 지표들을 측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한 것으로 근로생활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니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세부항목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약간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
|---|---|---|---|---|---|
| 12)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 | | | | |

## 5.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정의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값

의의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실질 GNI는 국민의 소득수준을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유용하고 이러한 비교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법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 실질 국민총소득 ÷ 총인구

※ 실질 국민총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작성주기 1년



**가구중위소득**

정의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따라 배분한 금액의 중위소득

의의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등화 중위소득은 지니계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계층 비율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법 표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하여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중위값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작성주기 1년

**소득만족도**

정의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별도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있다 –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② 없다

**소비생활 만족도**

정의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소비 생활(의식주, 여가와 취미 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가구순자산**

정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의의 평균적인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구평균 순자산을 통하여 가구의 재산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구의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음. 가구의 재산 증감과 각 자산 및 부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 상태가 소비에 영향을 주므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법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 – 전체 가구의 평균부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

※ 자산 : 금융자산(저축, 전·월세보증금 등)과 실물자산(부동산, 자동차 등)

※ 부채 :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작성주기 1년

---

**가계부채비율**

정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총액의 비율

의의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주지만, 부채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 됨.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Debt of households)

산출방법 가계부채 비율 = (가구부채총액 ÷ 가구순가처분소득) × 100

---

**상대적 빈곤율**

정의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임.

의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중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회의 질 측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산출방법 (가처분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 전체 인구) × 100

작성주기 1년

## 6. 여가

**문화여가 지출률**

정의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지출의 비율

의의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을 가계지출에 대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제시함. 문화여가비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산출방법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 ÷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 × 100.

※ 오락문화비 : 영상음향기기(텔레비전 등),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영상음향 및 정보 기기 수리,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화훼 관련 용품, 애완동물 관련 물품 등에 지출하는 비용

작성주기 1년

---

**여가시간**

정의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으로 여가시간은 일, 가사, 수업 등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의의 여가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여가시간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시함. 적정한 수준의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산출방법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 ÷ 7일.

※ 여가시간은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동안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에 각각에 대해 응답한 값임.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일여가와 휴일여가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십시오.

| | 평일 | 휴일(휴가,연휴) |
|---|---|---|
|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평일 하루 평균 ____ 시간 | 휴일 하루 평균 ____ 시간 |

---

**여가시간 충분도**

정의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여가시간은 사람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함. 여가시간이 많아지면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여가시간의 양과는 별개로 각자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이 충분한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산출방법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 ÷ 2.

※ 여가시간 충분도 :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 동안 평일과 휴일(휴가, 연휴 포함)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매우 부족했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했다'의 7점까지 중 5–7점에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일여가와 휴일여가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십시오.

| | 평일 | | | | | | | 휴일(휴가,연휴) | | | | | | |
|---|---|---|---|---|---|---|---|---|---|---|---|---|---|---|
| | 매우 | 부족했다 | ← | 보통 | → | 매우 | 충분했다 | 매우 | 부족했다 | ← | 보통 | → | 매우 | 충분했다 |
| 귀하는 지난 1년동안의 여가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정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

의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국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본 지표로 문화예술 관람률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파악하며 문화예술 소비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문화예술활동은 다양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인 수준에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음악회·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문학 행사, 스포츠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1인 평균 관람 횟수(현장 관람 횟수)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을 몇 번 관람하였는지 모두 답하여 주십시오.

① 있다

| | |
|---|---|
| ①-1 음악회·연주회·콘서트 | □□번 |
| ①-2 연극·마당극·뮤지컬 | □□번 |
| ①-3 무용 | □□번 |
| ①-4 영화 | □□번 |
| ①-5 박물관(유물 전시회 등) | □□번 |
| ①-6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등) | □□번 |
| ①-7 문학행사(시화전, 도서 전시회 등) | □□번 |
| ①-8 스포츠 경기(e스포츠 포함) | □□번 |
| ①-9 기타 (　　) | □□번 |

※ 2023년부터 보기 항목으로 문학행사 및 (e스포츠 포함) 이 추가됨.

**1인당 여행일수**

정의　1인당 연간 국내관광여행(당일여행 포함) 일수

의의　여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행인구도 증가하고 있음.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1인당 여행일수를 통해 국민의 여가향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산출방법　15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1인당 연간 국내관광여행(당일여행 포함) 일수

※ 국내관광여행 :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20○○년 (　)월 한달 동안 다녀오신 여행(해외여행, 관광·휴양여행, 출장·업무, 단순 귀성/단순 친구·친지 방문), 일자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다녀오신 여행에서 방문 일자별로 주요 방문 장소를 말씀해주시고, 숙박한 경우 숙박 장소(시도, 시/군), 숙박유형을 말씀해주세요.

| 구분 | 여행일 | 주요 방문지 | | | 숙박장소 | 숙박시설 | 평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방학 여부 |
|---|---|---|---|---|---|---|---|
| | | 방문지1 | ... | 방문지5 | | | |
| 첫 번째 여행 | ( )월 ( )일 | | | | ( )시도<br>( )시군구 | 아래 보기에서 선택 | ① 개인휴가<br>② 방학<br>③ 기타 ( )<br>④ 해당없음 |
| | ( )월 ( )일 | | | | ( )시도<br>( )시군구 | 아래 보기에서 선택 | |
| | ⋮ | | | | | | |
| 두 번째 여행 | ( )월 ( )일 | | | | ( )시도<br>( )시군구 | 아래 보기에서 선택 | ① 개인휴가<br>② 방학<br>③ 기타 ( )<br>④ 해당없음 |
| | ( )월 ( )일 | | | | ( )시도<br>( )시군구 | 아래 보기에서 선택 | |
| | ⋮ | | | | | | |



**여가생활 만족도**

정의　현재의 여가활용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여가활용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들이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여가 만족이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여가생활의 만족은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과 같은 다른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친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도 의미를 가짐.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평소 여가활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 7. 주거

**자가점유가구비율**

정의　전체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의의　주택공급의 꾸준한 확대로 주택보급률은 크게 늘어났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사는 비율은 높지 않음. 한국사회에서는 주택마련이 거주의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큼.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산출방법　조사대상가구 중 자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 댁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　⑥ 일세　⑦ 무상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세 :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주택임대료 비율**

정의　주택임대료의 월소득 대비 비율

의의　주택임대료는 가구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 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산출방법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작성주기　1년

**1인당 주거면적**

정의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의의 한국은 가구원수가 감소하여 1인당 주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주거면적보다는 1인당 주거면적이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을 정확하게 나타내며, 국제비교에서도 활용성이 높음.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산출방법 1인당 주거면적 =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 ÷ 개별 가구원수)의 평균

작성주기 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정의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최저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구원수별 면적, 방수, 시설 등의 기준임.

의의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양적인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한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거취약계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산출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 총가구수) × 100.
※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 가구원수별로 침실 및 면적기준,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1) 시설기준: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2) 침실 및 면적기준 : 가구원수별 방수 및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가구원수(인) | 1 | 2 | 3 | 4 | 5 | 6 |
|---|---|---|---|---|---|---|
| 방수(개) | 1 | 1 | 2 | 3 | 3 | 4 |
| 면적(㎡) | 14 | 26 | 36 | 43 | 46 | 55 |

작성주기 1년

**통근시간**

정의 통근인구가 평소 집에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

의의 통근시간은 근로자의 직장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근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근시간은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삶의 질의 한 단면을 보여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산출방법 12세 이상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사람 중 평소 집에서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

작성주기 5년

**주거환경 만족도**

정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 주변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며. 거주 계층과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또는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이나 계획에 활용 가능한 지표임.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에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국민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산출방법 자신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십시오.

| |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
|---|---|---|---|---|
|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 8. 환경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정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의의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산출방법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 도시지역 총인구.

작성주기 1년

**미세먼지 농도**

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로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말함.

의의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인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의 악화,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서,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으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산출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미세먼지(PM2.5)농도를 인구가중한 평균값임.

작성주기 1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정의 면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 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

의의 상수도는 보건위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과 소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함. 상수도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편익시설이지만 상수도 보급 수준은 각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택구조,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름. 이러한 점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지역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산출방법 (면 지역 급수인구 ÷ 면지역 총인구) × 100.
※ 급수인구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

작성주기 1년

### 대기질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대기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좋다 | ② 약간 좋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
|---|---|---|---|---|---|
| 1. 대기 | | | | | |

### 수질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수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수질)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좋다 | ② 약간 좋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
|---|---|---|---|---|---|
| 2. 하천 | | | | | |

### 토양환경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토양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좋다 | ② 약간 좋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
|---|---|---|---|---|---|
| 3. 토양(쓰레기로 인한 오염) | | | | | |



### 소음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소음공해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진동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좋다 | ② 약간 좋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
|---|---|---|---|---|---|
| 4. 소음·진동 | | | | | |

### 녹지환경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산, 공원 등)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좋다 | ② 약간 좋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나쁘다 | ⑤ 매우 나쁘다 |
|---|---|---|---|---|---|
| 6. 녹지 환경 (산, 공원 등) | | | | | |

### 기후변화 불안도

정의 기후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의의 기후변화는 전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정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기후변화(폭염, 홍수 등)' 문제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불안하다' 또는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환경 문제들에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불안하다 | ⑤ 매우 불안하다 |
|---|---|---|---|---|---|
| 1. 기후 변화 (폭염, 홍수 등) | | | | | |

## 9.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정의 인구 10만 명당 타살로 인한 사망자수

의의 타인의 가해에 의한 사망, 즉 타살은 범죄피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

산출방법 {가해(타살)에 의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작성주기 1년

---

**범죄 피해율**

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범죄피해 발생건수

의의 범죄발생건수는 실제로 신고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자기보고 범죄피해율은 신고되지 않은 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범죄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의미가 있음.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실태조사(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산출방법 (범죄피해건수(추정) ÷ 14세 이상 인구수) × 100,000

※ 14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동안 한 번이라도 각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한 값임.

작성주기 2년

---

**야간보행 안전도**

정의 야간보행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집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평가를 파악할 수 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 ②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낀다 ③ 약간 불안하다고 느낀다 ④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

**산재 사망률**

정의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

의의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근로여건의 안전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지표임. 산업재해의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통계에 포착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고가 있고, 누락 정도가 국가 또는 시기마다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가 바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산출방법 (산재 사망자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00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작성주기 1년

---

**화재 사망자수**

정의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

의의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 가운데 하나로 물적 피해 뿐 아니라 인적 피해를 주기도 함. 화재는 예방과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화재안전 수준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지표임.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산출방법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

작성주기 1년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정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의의 우리나라의 도로 사망률이나 보행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거리 보행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산출방법 도로교통사고사망률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

※ 도로교통사고사망자: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작성주기 1년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정의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의의 아동은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더 쉬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

산출방법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안전사고에는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이 포함됨(사망의 외인 중 자살과 타살 제외한 사고사)

작성주기 1년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정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18세 미만 아동인구 10만 명당 건수

의의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산출방법 (아동학대 최종 판단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작성주기 1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비교적 안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 ⑤ 매우 안전하지 않다 |
|---|---|---|---|---|---|
| 12. 전반적인 사회 안전 | | | | | |

## 10.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정의 전체 선거인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사람의 비율

의의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대표자의 선출이나 정치적 및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의미함.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임.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산출방법 (대통령선거 투표자수 ÷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 100

작성주기 5년

**정치적 역량감**

정의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시민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됨. 정치참여는 시민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질 때 높아지며, 정치적 역량감은 시민참여의 잠재적 수준을 보여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임.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 약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
|---|---|---|---|---|---|
| (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부패인식지수**

정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

의의 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이 주로 활용되며,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소수의 부패한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줌.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잘 운영되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음.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산출방법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작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을 나타냄.

작성주기 1년

**기관신뢰도**

정의 주요 기관과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각 기관별로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각 기관별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

※ 기관 :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 | 전혀 믿지 않는다 | 별로 믿지 않는다 | 약간 믿는다 | 매우 믿는다 |
|---|---|---|---|---|
| (1) 중앙정부 부처 | ① | ② | ③ | ④ |
| (2) 국회 | ① | ② | ③ | ④ |
| (3) 법원 | ① | ② | ③ | ④ |
| (4) 검찰 | ① | ② | ③ | ④ |

| | 전혀 믿지 않는다 | 별로 믿지 않는다 | 약간 믿는다 | 매우 믿는다 |
|---|---|---|---|---|
| (5) 경찰 | ① | ② | ③ | ④ |
|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 ① | ② | ③ | ④ |
| (7) 군대 | ① | ② | ③ | ④ |
| (8) 노동조합단체 | ① | ② | ③ | ④ |
| (9) 시민단체 | ① | ② | ③ | ④ |
| (10) TV방송사 | ① | ② | ③ | ④ |
| (11) 신문사 | ① | ② | ③ | ④ |
| (12) 교육기관 | ① | ② | ③ | ④ |
| (13) 의료기관 | ① | ② | ③ | ④ |
| (14) 대기업 | ① | ② | ③ | ④ |
| (15) 종교기관 | ① | ② | ③ | ④ |
| (16) 금융기관 | ① | ② | ③ | ④ |

### 시민의식

**정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사회의 질 지표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사회단체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국가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를 한다' 등 8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7점 척도 평균을 산술평균 값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보통 | | → 매우 중요하다 | |
|---|---|---|---|---|---|---|---|
| (1)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국가 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군인으로서 복무 등 직접적 참여뿐만이 아닌, 물자 수송, 간호 등의 간접적 참여 또한 포함



### 자원봉사 참여율

**정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의의** 자원봉사는 정부의 강제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이타주의의 발현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의 공공선이 증대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만족감과 시민의식이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옴.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작성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대인신뢰도

**정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대인신뢰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가 좁아질 뿐 아니라 서로 불신하는 집단들끼리 협동하기보다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번성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 활동 분야 | 참여한 총 횟수(연간) |
|---|---|
| 1. 생활편의 지원(활동보조, 이동지원, 청결지원, 급식지원, 식사·반찬지원 등) | (　　)회 |
| 2. 주거환경(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등) | (　　)회 |
| 3. 교육(방과후 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등) | (　　)회 |
| 4.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등) | (　　)회 |
| 5. 보건의료(간호·간병, 의료지원, 헌혈 등) | (　　)회 |
| 6. 농어촌봉사(일손지원 등) | (　　)회 |
| 7.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등) | (　　)회 |
| 8.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등) | (　　)회 |
| 9.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등) | (　　)회 |
| 10.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청소년 안전, 취약계층 안전 등) | (　　)회 |
| 11.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등) | (　　)회 |
| 12.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등) | (　　)회 |
| 13. 국제협력·해외봉사(국제행사, 단체지원, 통·번역 등) | (　　)회 |

**참고** 참여 횟수와 1회 평균 활동 시간
-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따로 작성합니다.
- 한 활동을 연속해서 이틀 이상 한다면 참여 횟수와 시간을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예) 쓰나미 구호 활동에 3박 4일(총 28시간) 참여하였다면 '4회, 7시간'으로 작성

## 11.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정의** 현재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의의** 주관적 삶의 만족(subjective wellbeing)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인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 하지만 살의 질이 다차원적이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만족은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산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보통 | → | | | | 매우 만족한다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긍정정서

**정의**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정서(행복)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

**의의**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로 개인들이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경험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 | | ← | 보통 | → | | | | 매우 행복했다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부정정서

**정의**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정서(걱정, 우울감)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

**의의**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항목 중 하나로 개인들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의 경험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어제 얼마나 걱정, 우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평균값을 산출평균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셨습니까?

|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 | | | ← | 보통 | → | | | | 매우 걱정했다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 | | ← | 보통 | → | | | | 매우 우울했다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부록 2. 지표 자료출처

| | 통계자료 | 국민 삶의질 지표 |
|---|---|---|
| 01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
| 02 | 가계동향조사 | 문화여가지출률 |
| 03 |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실업률 |
| 04 |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 05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
| 06 | 국민계정 | 1인당 국민총소득 |
| 07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범죄피해율 |
| 08 | 국민건강영양조사 | 비만율 |
| 09 |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시간 |
| 10 | 국민여행조사 | 1인당 여행일수 |
| 11 | 도시계획현황 | 1인당 도시공원면적 |
| 12 |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 13 | 사망원인통계 | 자살률, 가해에 의한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 14 | 사회조사 | 소득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학교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비부담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 만족도, 자원봉사 참여율, 야간보행 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
| 15 | 사회통합실태조사 | 지역사회소속감, 사회단체 참여율, 대인신뢰도, 기관신뢰도, 정치적 역량감, 시민의식,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
| 16 | 산업재해현황 | 산재사망률 |
| 17 | 상수도통계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 18 | 생명표 | 기대수명 |
| 19 | 인구총조사 | 통근시간 |
| 20 | 장래가구추계 | 독거노인 비율 |
| 21 | 주거실태조사 |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주택임대료 비율(소득대비), 자가점유가구 비율 |
| 22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대학졸업자 취업률 |
| 23 | 화재발생 총괄표 | 화재사망자수 |
| 24 | 대기오염도 현황 | 미세먼지농도($PM_{2.5}$) |
| 25 | 교육 기본 통계 | 유아교육취원율 |



| | 통계자료 | 국민 삶의질 지표 |
|---|---|---|
| 26-1 | 국제투명성기구 | 부패인식지수 |
| 26-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투표율 |
| 26-3 | OECD Earnings | 저임금근로자 비율 |
| 26-4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고등교육이수율 |
| 26-5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가계부채 비율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
| 26-6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 건강수명 |

### 01 가계금융복지조사

- 작성기관 : (주)통계청, (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 작성목적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조사대상 : 1인이상 일반가구
- 조사규모 : 전국 약 20,00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 02 가계동향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분기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조사대상 : 전국 거주 일반가구
- 조사규모 : 약 7,200가구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문화여가지출률

### 03 경제활동인구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대상→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조사대상 : 15세 이상 개인
- 조사규모 : 전국 35,00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고용률, 실업률

### 04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작성기관 : 경찰청
- 작성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통계, 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도로교통사고사망률

### 0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
- 작성목적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조사대상→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 조사대상 : 사업체(전국)
- 조사규모 : 근로자 1인이상 33,000개 사업체,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100만명 내외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 06 국민계정

- 작성기관 : 한국은행
- 작성목적 :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생산활동 및 경제성장의 추이를 추계하여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분기
- 작성체계 : 가공통계, 일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 → 한국은행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1인당 국민총소득

### 07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작성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율을 살펴보고 범죄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작성주기 : 2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가구조사(면접원)→수퍼바이저→실사기관 내부검토→KIC연구원 연구팀
- 조사대상 : 가구 및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2019년 6,710 가구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범죄피해율



### 08 국민건강영양조사

- 작성기관 : 질병관리청
- 작성목적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과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설문, 검진 및 계측)→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질병관리청
- 조사대상 : 가구(1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14,400여 가구 및 가구원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비만율

### 09 국민여가활동조사

- 작성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작성목적 :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주)나이스알앤씨→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 조사대상 :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10,0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여가시간충분도, 여가시간

### 10 국민여행조사

- 작성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면접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조사전문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조사대상 : 15세 이상 개인
- 조사규모 : 개인 월 4,200명(연간 50,4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1인당 여행일수

### 11 도시계획현황

- 작성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작성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행정, 도시정책, 도시연구, 도시개발,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통계, 시·군·구(도시과)→시·도(도시과)→한국토지주택공사(공간정보처)
- 보고단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공표범위 : 시군구
- 활용지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 12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
- 작성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아동보호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보고통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 보고단위 : 개인(18세 미만)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13 사망원인통계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가공분석(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시구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모성·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
- 보고단위 : 개인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자살률, 가해에 의한 사망률

### 14 사회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작성주기 : 1년(10개 영역에 대해 격년 조사)
  짝수년도: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홀수년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대상→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조사대상 : 13세 이상 가구원(2010년까지는15세 이상)
- 조사규모 : 목표가구 18,576가구의 전체 가구원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소득만족도 , 소비생활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실천율, 스트레스인지율, 학교교육효과, 학교생활만족도 , 교육비부담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 만족도, 자원봉사참여율, 야간보행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대기질만족도, 수질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소음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기후변화불안도

### 15 사회통합실태조사

- 작성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작성목적 :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 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전문조사원→전문조사기관→한국행정연구원
- 조사대상 : 19세 이상 가구원(2019년까지는 19~69세)
- 조사규모 : 개인 8,0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지역사회소속감, 사회단체참여율, 대인신뢰도, 기관신뢰도, 정치적역량감, 시민의식,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 16 산업재해현황

-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
- 작성목적 :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당해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활용
- 작성주기 : 월, 년
- 작성체계 : 행정자료,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청(지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 보고단위 : 전국 사업체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산재사망률

### 17 상수도통계

- 작성기관 : 환경부
- 작성목적 : 전국의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상수도시설의 적정 설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자료, 수도사업자(시·군)→도·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
- 보고단위 : 전국 162개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 공표범위 : 시·군·구
- 활용지표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 18 생명표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 추계작성, 국가간 경제·사회·보건 수준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가공통계, 기초자료 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 보정→연령별 사망률 산출→연령별 사망확률 산출→연령별 사망자수 및 생존자수 산출→연령별 정지인구 산출→연령별 총생존년수 산출→연령별 기대여명 산출
- 보고단위 : 전국 및 시도의 성, 연령별 사망자수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기대수명

### 19 인구총조사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전수)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작성대상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 공표범위 : 동읍면
- 활용지표 : 통근시간

### 20 장래가구추계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 구성적 변화를 추정하여, 미래의 가족 형성과 해체 양상에 대비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 정부의 가족 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주기 : 5년
- 작성체계 : 가공통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에 대한 가구주의 비율인 가구주율을 적용하여 가구를 산출
- 작성대상 : 시도 일반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독거노인 비율

### 21 주거실태조사

- 작성기관 : 국토교통부
- 작성목적 :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 파악을 통해 공급계획 지원, 주거복지 소요 파악,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가구→조사전문기관→연구기관→국토교통부
- 조사대상 : 전국 가구
- 조사규모 : 59,25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만족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소득대비), 자가점유가구 비율

### 22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작성기관 : (주)한국교육개발원, (부)통계청
- 작성목적 :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진학 등 진로현황 분석을 통해 진로지도 및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가공통계, 조사대상→고등교육기관→한국교육개발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행정통계, 조사대상 ↔ 한국교육개발원 ↔ 공공DB 연계기관
- 작성대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전국의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대학/전문대학과정), 일반대학원의 졸업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매년 1월 및 2월 전체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졸업자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대학졸업자 취업률

### 23 화재발생 총괄표

- 작성기관 : 소방청
- 작성목적 : 전국의 화재현황을 취합. 분석하여 화재발생 추이 및 원인, 장소별로 분석하고 이를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소방서→시도 소방본부→소방청
- 작성대상 :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산불은 산림청에서 파악)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화재사망자수

### 24 대기오염도 현황

- 작성기관 : 환경부
- 작성목적 : 전국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도 및 산성강하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구온난화 물질의 농도측정,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여 적정한 대기보전정책의 수립, 시행 및 국가간 환경보전 협력방안 관련 대책의 기초자료로 이용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시도(자동측정장비)→한국환경공단(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 작성대상 : 전국 대기오염 측정망 510여 개소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미세먼지농도($PM_{2.5}$)

### 25 교육기본통계

- 작성기관 : 교육부
- 작성목적 : 국가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자의 교육기초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 작성주기 : 반기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유.초.중등,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 작성대상 : 전국 유·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유아교육취원율

### 26 그 외 연보 및 국제통계

- 국제투명성기구 : 부패인식지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투표율
- OECD Earnings : 저임금근로자 비율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고등교육이수율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가계부채 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 건강수명

**국민 삶의 질 2023**

**집필진**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남상민,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김은아,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인** 송준혁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 통계센터 7층
**전화** 042.366.7315
**디자인** 동그란북 eumeumeum20@gmail.com

#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7층 T 042.366.7315 http://sri.kostat.go.kr

9 772765498002 15
ISSN 2765-4982